

鬱陵島に行ってきた  
울릉도에 다녀왔다  
I Went to Ulleungdo



天野松男  
아마노 마쯔오  
Matsuo Amano









**鬱陵島に行ってきた**  
**울릉도가 불렀다**  
**Ulleungdo Called To Me**

**天 野 松 男**  
**아마노 마쓰오**  
**Matsuo Amano**



## はじめに

これは私の韓国旅行記である。旅の中心は鬱陵島であるが、鬱陵島渡島前後の釜山や浦項、大邱、光州などでの出来事も記録している。本書では過去 4 回鬱陵島に行った中の一回目と二回目の訪問記を整理した。韓国での私の経験と思いを率直に綴った。なぜ鬱陵島なのかについては第一回目の訪問記に記しているので重複を避けるためここでは説明しない。

過去 4 回の鬱陵島訪問日程

	韓国滞在期間	うち鬱陵島滞在期間
第一回	2016 年 6 月 1 日～6 月 7 日	6 月 2 日～6 月 4 日
第二回	2017 年 3 月 16 日～3 月 22 日	3 月 17 日～3 月 20 日
第三回	2018 年 3 月 26 日～4 月 3 日	3 月 27 日～3 月 30 日
第四回	2019 年 3 月 25 日～4 月 3 日	3 月 26 日～3 月 29 日

今年の 3 月、鬱陵島訪問記を韓国語と英語を併記して整理し「文学フリマ福岡 11」(2025 年 10 月)で発表することを思い立った。資料も散逸しデータの整理に手間取ったが、ここに一回目と二回目の訪問記を形にすることができた。一回目の訪問記は既に整理しネット上で公表していたが、それを多少書き直して組み入れた。

韓国語も英語もネット上の AI を含む語学ツールを使って翻訳したものである。

韓国内ではいろいろな人に支えられて有意義な旅をすることができた。ここにこれら人々への感謝の気持ちを表しておきたい。また、本書が少しでも日韓友好の役に立てば望外の喜びである。

2025 年 6 月 21 日

天 野 松 男

## 서 문

이것은 나의 한국 여행기이다. 여행의 중심은 울릉도이지만, 울릉도에 도착하기 전후의 부산, 포항, 대구, 광주 등지에서의 일들도 기록되어 있다. 본서에서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울릉도를 방문한 중 제 1 회 및 제 2 회의 방문기를 정리하였다. 한국에서의 나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담았다. 왜 울릉도인가에 대해서는 울릉도인가에 대해서는 제 1 회의 방문기에 언급하였기에 중복을 피하고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과거 네 차례 울릉도 방문 일정

	한국 체류 기간	그중 울릉도 체류 기간
제 1 회	2016 년 6 월 1 일 ~ 6 월 7 일	6 월 2 일 ~ 6 월 4 일
제 2 회	2017 년 3 월 16 일 ~ 3 월 22 일	3 월 17 일 ~ 3 월 20 일
제 3 회	2018 년 3 월 26 일 ~ 4 월 3 일	3 월 27 일 ~ 3 월 30 일
제 4 회	2019 년 3 월 25 일 ~ 4 월 3 일	3 월 26 일 ~ 3 월 29 일

올해 3 월, 울릉도 방문기를 한국어와 영어 병기 형식으로 정리하여 "문학 프리마 후쿠오카 11" (2025 년 10 월)에서 발표하고자 결심하였다. 자료가 흩어져 있어 데이터 정리에 시간이 걸렸으나, 여기 제 1 회와 제 2 회의 방문기를 정리하여 완성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방문기는 이미 정리해 인터넷 상에서 공표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소 고쳐 써 넣었다.

한국어도 영어도 번역에는 온라인 AI 를 포함한 언어 도구들을 활용하였다.

한국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뜻깊은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또한 이 책이 한일우호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다면 더없는 기쁨이다.

2025 년 6 월 21 일

아마노 마쯔오

## Introduction

This is a record of my journeys in Korea. Although the focus lies on Ulleungdo, I have also documented events in Busan, Pohang, Daegu, and Gwangju before and after my visits to the island. This book compiles my first and second visits out of a total of four trips I have made to Ulleungdo. I have written candidly about my experiences and reflections in Korea. The reason why I chose Ulleungdo is discussed in the first travelogue, so I shall refrain from repeating it here.

Past Four Visits to Ulleungdo

Trip No.	Period in Korea	Ulleungdo Stay
1 st	June 1–7, 2016	June 2–4, 2016
2 nd	March 16–22, 2017	March 17–20, 2017
3 rd	March 26–April 3, 2018	March 27–30, 2018
4 th	March 25–April 3, 2019	March 26–29, 2019

In March of this year, I decided to organize the Ulleungdo travelogues in both Korean and English and present them at “Literary Flea Market Fukuoka 11” (October 2025). Though the materials were scattered and data sorting proved time-consuming, I managed to compile the accounts of the first and second visits. The record of the first trip had already been edited and published online, but it was rewritten and incorporated.

Both Korean and English texts were translated using language tools, including AI available online.

Within Korea, I was able to enjoy a meaningful journey thanks to the support of many individuals.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m. If this book can contribute even slightly to Japan-Korea friendship, it would bring me boundless joy.

June 21, 2025  
Matsuo Amano



## 目次 목차 Contents

まえがき 머리말 Preface	
	..... 7
目次 목차 Contents	
	..... 11
第一回鬱陵島訪問記	
제 1 회 울릉도 방문기	
The First Visit to Ulleungdo	
	..... I 1
第二回鬱陵島訪問記	
제 2 회 울릉도 방문기	
The Second Visit to Ulleungdo	
	..... II 1
あとがき 꼬리말 Afterword	
	..... 19









意外な出会いで始まった初めての鬱陵島  
뜻밖의 만남으로 시작된 첫 울릉도  
My First Ulleungdo Adventure  
with an Unexpected Encounter



天野松男  
아마노 마쯔오  
Matsuo Amano

表紙写真：鬱陵島道洞港

표지사진：울릉도 도동항

Cover photo: Ulleungdo Dodong Port





意外な出会いで始まった初めての鬱陵島  
뜻밖의 만남으로 시작된 첫 울릉도  
My First Ulleungdo Adventure  
with an Unexpected Encounter

天野松男  
아마노 마쯔오  
Matsuo Amano





## まえがき 머리말 Preface

これは私の初めての鬱陵島旅行記である。思いもよらない出会いがあり、実り多い旅となった。

이것은 나의 첫 울릉도 여행기이다.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있어, 결실 많은 여행이 되었다.

This is my first adventure to Ulleungdo. There was an unexpected encounter and it became a fruitful journey.

6月1日から7日までの7日間の訪韓計画を立てた。当初鬱陵島には4泊の予定であったが、鬱陵島の宿の予約をしていなかったので宿が取れず結果的には2泊3日の鬱陵島訪問となった。

6월 1일부터 7 일까지의 7 일간의 한국 방문 계획을 세웠다. 당초 울릉도에는 4 박의 예정이었지만, 울릉도에 숙소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숙소를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2 박 3 일의 울릉도 방문이 되었다.

I planned a seven-day visit to Korea from June 1st to 7th. Initially, I intended to stay on Ullengdo for four nights, but since I hadn't booked any accommodation on Ulleungdo, I couldn't find a place to stay. As a result, the visit to Ulleungdo ended up being a three-day, two-night journey.

予定を繰り上げて釜山に戻り、久しぶりに知人に会ってきた。

예정을 앞당기고 부산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고 왔다.

I shortened my itinerary, and returned to Busan and met old acquaintances after a long time.

2013年に「私の韓国、私の日本」という文集を日韓両国語併記で自費出版した。これは日本で生まれ終戦後韓国へ帰った人、あるいは韓国で生まれていても日本と関わりのあった方々の日本への思い出を綴ったものである。42名の方が寄稿した。

2013년에 「나의 한국, 나의 일본」이라고 하는 문집을 한일 양국어 병기로 자비출판 했다. 이것은 일본에서 태어나 종전 후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 또는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일본과 관계가 있던 분들의 일본에 대한

추억을 쓴 것이다. 42 분이 기고했다.

In 2013, I self-published a collection titled 'My Korea, My Japan' in both Korean and Japanese. This collection captures the memories of those born in Japan who returned to Korea after the end of the war, or those born in Korea but had connections with Japan in Korea. Forty-two individuals contributed to this collection.

鬱陵島では、日本による韓国併合前から日本人と関わりがあったと聞いている。韓国人にとって日本人との関わりは、日本の帝国主義的支配のために辛いことも多々あったと思う。それで、鬱陵島民の日本統治時代の経験を文集として残そうと考えた。その第一歩が今回の訪問であった。

울릉도에서는 일본에 의한 한일 강제 병합 전부터 일본인과 관련이 있었다고 듣고 있다. 한국인에게 일본인과의 관계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지배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울릉도 민의 일본 통치 시대의 경험을 문집으로 남기고자 생각했다. 그 첫 걸음이 이번 방문이었다.

I have heard that in Ulleungdo, there were interactions with Japanese people before Japan-Korea annexation. I believe these interactions were often marked by hardships due to Japan's imperial rule for Korean. So, I decided to document the experiences of Ulleungdo resident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in a collection of essays. This visit was the first step in that initiative.

詳しくは巻末の「仮称『鬱陵島と日本人』にあなたの思い出をお寄せください」を参照していただきたい。この文書を作るために、日本語を Google 翻訳と weblio 翻訳を使い、交互に翻訳文を比較して韓国語文書を作った。しかし、機械翻訳ではとんでもない翻訳文が出てくることを知っていたので、最終的には釜山で日本語教室を開いている朴清九さんにチェックしていただいた。この文書を 100 枚印刷した。また、自分の依頼したい(言いたい)ことを文書にして機械翻訳し、別途印刷して持参した。これらの文書を鬱陵島でばらまいてくるつもりでいた。

자세한 것은 권말의 「가칭 『울릉도와 일본인』에 당신의 추억담을 보내 주세요」를 참조해 주시길 바란다. 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어를 Google 번역과 weblio 번역을 사용해, 교대로 번역문을 비교해

한국어 문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기계 번역에서는 터무니 없는 번역문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부산에서 일본어 교실을 열고 있는 박청구 선생님에게 체크를 부탁했다. 이 문서를 100 매 인쇄했다. 또, 내 자신의 의뢰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문서로 해서 기계 번역하고, 별도 인쇄해서 지참했다. 이러한 문서를 울릉도에서 뿌리고 올 생각으로 있었다.

For further details, please refer to the appendix ' Please share your memories to the tentatively titled "Ulleungdo and the Japanese" '. To create this document, I used Google translation and Weblio translation, comparing the translations alternately to form the Korean text. However, knowing that machine translations make serious mistakes, I had Mr. Park Cheong-Gu, who runs a Japanese language class in Busan, check the final version. I printed 100 copies of this document. And, I drafted my requests (things I wanted to say), machine translated them, printed them separately, and brought them along. I intended to distribute these documents in Ulleungdo.

また、釜山日語奉仕会の会長の金仁熙さんには、鬱陵島に知り合いがおられれば紹介してほしいと依頼したところ、金さんはわざわざ鬱陵郡の郡役所にまで電話し情報収集に骨を折っていただいた。ご迷惑をおかけいたし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또, 부산 일어 봉사회의 회장 김인희선생님에게는, 울릉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었으면 한다고 의뢰했는데, 김선생님은 일부를 울릉군의 군청에까지 전화해 정보 수집에 애써 주셨다. 폐를 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I also asked Kim In-Hee, the president of the Busan Japanese Language Volunteer Association, if he could introduce me to any acquaintances he might have on Ulleungdo. He made contact with the Ulleung County Office and gathered information for me. I apologize for any trouble this may have caused. I am very grateful.

前段で上述のようなことがあって、今回の鬱陵島訪問が実現できた。以下、はじめての鬱陵島訪問の顛末を記録しておきたい。

앞서 언급한 일들도 인해, 이번 울릉도 방문이 실현될 수 있었다. 아래와 같이, 첫 울릉도 방문의 전말을 기록해 두고 싶다.

Due to the aforementioned efforts, I was able to realize this visit to Ulleungdo. As below, I would like to record the details of my first visit to Ulleungdo.

なお、本文中の韓国語と英語は機械翻訳による。

또한, 본문 중 한국어와 영어는 기계번역에 의한다.

In addition, Korean and English in the text are translated with machine.

2016 年년 7 月월 5 日일

天野松男

아마노마쓰오

Matsuo Amano

## 目次 목차 Contents

まえがき	머리말	Preface	..... I 7
目次 목차 Contents			..... I 11
6 月 1 日 (水)	釜山から浦項へ		
6 월 1 일 (수)	부산에서 포항으로		
June 1st (Wed)	From Busan to Pohang		..... I 15
6 月 2 日 (木)	浦項から鬱陵島へ		
6 월 2 일 (목)	포항에서 울릉도로		
June 2nd (Thu)	From Pohang to Ulleungdo		..... I 19
6 月 3 日 (金)	鬱陵島		
6 월 3 일 (금)	울릉도		
June 3rd (Fri)	Ulleungdo		..... I 43
6 月 4 日 (土)	鬱陵島 ⇒ 浦項 ⇒ 釜山		
6 월 4 일 (토)	울릉도 ⇒ 포항 ⇒ 부산		
June 4th (Sat)	Ulleungdo ⇒ Pohang ⇒ Busan		..... I 53
6 月 5 日 (日)	遊覧船乗り場、凡一自由市場		
6 월 5 일 (일)	유람선 선착장, 범일 자유 시장		
June 5th (Sun)	Sightseeing ship terminal, Beom il free market		..... I 67

6 月 6 日 (月)	釜山の友人	
6 월 6 일 (월)	부산 친구	
June 6th (Mon)	Friends in Busan	
	.....	I 75
6 月 7 日 (火)	朴清九日本語教室	
6 월 7 일 (화)	박 청구 일본어 교실	
June 7th (Tue)	Park Cheong-gu Japanese class	
	.....	I 81
あとがき	꼬리말	Afterword
	.....	I 87
資料	자료	Appendix
	가칭 '울릉도와 일본인'에 당신의 추억담을 보내주세요	
	仮称「鬱陵島と日本人」にあなたの思い出をお寄せください	
	Please share your memories for the tentative title 'Ulleungdo and the Japanese.'	
	.....	I 91







6月1日(水) 釜山から浦項へ 6월 1일(수) 부산에서 포항으로  
June 1st (Wed) From Busan to Pohang

博多から釜山へ。釜山で旧知の知人に迎えられ、昼食を共にす。

하카타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마중을 나와 준 지인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From Hakata to Busan. In Busan was welcomed by old friends and had lunch with them.



左から、金哲宇さん、金仁熙さん、崔貞美さん、天野  
왼쪽에서 ; 김철우, 김인희, 최정미,  
아마노

From left ; Kim Cheol U, Kim In Hee, Choi Jeng Me, Amano)

昼食後、老圃のバスセンターまで金哲宇さんが送ってくれた。そして、私がトイレに行っている間に哲宇さんが浦項までの乗車券を購入してくれていた。金さんは代金を受け取ろうとしなかった。

점심식사 후, 노포 버스터미널까지 김철우씨가 배웅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철우씨가 포항까지의 승차권을 사 주었는데 돈을 쥐도 받지 않았다.

After the lunch, Mr. Kim Cheol U escorted me by subway to Nopo bus center. And, he had bought a ticket to Pohang while I was in the restroom, instead of me. He would not receive the money for the ticket.



高速道路 老圃入口  
고속도로 노포 입구  
Nopo highway entrance



慶州インターチェンジ出口  
경주 인터체인지 출구  
Gyeongju interchange exit

茶色の建物が浦項バスターミナル  
정면 갈색 건물이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The front brown building of the  
center is Pohang bus terminal



老圃から高速道に入り慶州で下りて、その後は下道を通って浦項まで行く。  
노포에서 경주까지는 고속도로로 가고 포항까지는 일반 도로로 간다  
The bus took the expressway from Nopo to Gyeongju, and after that,  
went to Pohang through local road.

バスを降り、タクシーつかまえるも乗車拒否。あっちの模範タクシーに乗れという。リュックを引きずってそっちへ。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잡으니 승차 거부를 했다. 저쪽에 있는 모범택시를 타라고 해서 가방을 끌고 그쪽으로 갔다.

Getting off the bus, a taxi rejected to ride and said “take that exemplary taxi”. Dragging my backpack, I went there.

模範タクシーに乗るも目的地まで連れて行かず。かつ、大回り。近すぎたのか。メーターどおりの金を払わず下車。運転手、何も言わず。

모범택시를 탔지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다. 또한 우회했다. 너무 가까웠나? 미터대로의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했다. 운전사, 아무 말도 안 했다.

Took an exemplary taxi, but it would not take me to the designated place. Moreover, big detour. Was it too near? I got off the taxi without paying money as instructed in the meter. The driver did not say anything.

夕食はモテルの近くの食堂で。焼酎とチリソースのようなもので絡めた麺。それが甘くて、半分以上残した。女将は怪訝な顔。

저녁 식사는 모텔 근처의 식당에서 했다. 소주와 칠리소스 같은 것으로 무친 국수. 너무 달아서 절반 이상 남겼더니 여주인은 의아한 얼굴을 했다.

The supper was at a small restaurant near the motel. I took a distilled spirit and noodle mixed with a sauce like chili sauce. It was too sweet for me, so I left more than half uneaten. The landlady looked perplexed.



6月2日(木) 浦項から鬱陵島へ 6월 2일(목) 포항에서 울릉도로  
**June 2nd (Thu) From Pohang to Ulleungdo**

浦項から鬱陵島へ。それは意外な出会いで始まった。

포항에서 울릉도로. 그것은 뜻밖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From Pohang to Ulleungdo. It began with an unexpected encounter.

当初は8時過ぎにフェリーターミナルへ行くつもりでいたが、年を取ると早く目が覚めて、7時には準備万端整ったのでホテルを出ることにした。フロントでチェックアウトを告げ、タクシーを呼んでほしいと依頼すると電話してくれた。すぐにタクシーは来た。フェリーターミナルまで W7000。7時20分頃到着。

당초는 8시 지나 페리 터미널에 갈 생각으로 있었지만, 나이를 먹으면 빨리 깨어나서, 7시에는 준비가 다 돼서 모텔을 나오기로 했다. 프런트에서 체크아웃을 알리고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자 전화해주었다. 곧바로 택시는 왔다. 페리 터미널까지 W7000. 7시 20분 무렵 도착.

Initially, I planned to go to the ferry terminal after 8 o'clock, but as I have aged, I woke up earlier. By 7 o'clock, I was completely ready to go, so I decided to leave the motel. I informed the front desk about my checkout and asked to call a taxi for me. They made the call, and the taxi arrived promptly. The fare to the ferry terminal was W7000. I arrived around 7:20.

ターミナルにはまだ客はあまり来ていなかった。出港は9時50分。まだだいぶ時間がある。良い天気だ。きれいな写真を撮ることができそうだ。9時に発券受付が始まった。2014年11月に下見に来たときの女性が受付にいたので一言あいさつしてみようと思いその列に並んだ。しかし、運悪く隣の列が早く進みあと一人のところで隣の列の受付に呼ばれた。仕方がないのでこちらで乗船券を購入した。定価は W64000。

터미널에는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았다. 출항은 9시 50분. 아직 제법 시간이 있다. 좋은 날씨다.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9시에 매표가 시작되었다. 2014년 11월에 예비 조사하러 왔을 때의 여성이 매표소에 있었으므로 한마디 인사해 보려고 그 줄에 섰다. 그러나, 운

나쁘게 옆줄이 빨리 진행되어 나머지 한 명을 앞에 두고 옆줄에 불리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그 쪽 줄에서 승선권을 구입했다. 정가는 W64000.

There were not many passengers at the terminal yet. The departure was at 9:50. There was still quite a bit of time left. The weather was good, and it seemed like I could take some beautiful photos. The ticketing counter opened at 9 o'clock. I saw the woman at the counter who had been there when I visited for a preliminary inspection in November 2014, so I decided to greet her and lined up in her queue. However, unfortunately, the adjacent line moved faster, and just when it was my turn, I was called to the next queue's counter. So, I had to buy my boarding pass there. The regular fare was W64,000.

中国旅行で老人割引料金を利用したことがあったので、ここでは予め「65 세이상」というメモを作り受付に提示した。すると了解してくれて W51900 に料金が下がった。日本円でおおよそ 1210 円の割引である。有り難い。日本でも外国人旅行者にこのような割引をしているのだろうか。

중국 여행에서 경로 우대 요금을 이용했던 적이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미리 「65 세이상」라고 하는 메모를 만들어 접수에 제시했다. 그러자 이해해 주어 W51900 으로 요금이 내렸다. 일본엔으로 약 1210 엔의 할인이다. 고맙다. 일본에서도 외국인 여행자에게 이러한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일까.

During my trip to China, I had used the senior discount rate, so here I prepared a note that said '65 세이상' (over 65) and presented it at the counter. They understood and reduced the fare to W51,900. This was roughly a 1,210 Yen discount in Japanese currency. I was grateful for this. I wonder if Japan also offers such discounts to foreign travelers.

乗船券購入の際にパスポートの提示を求められた。やっぱり日本人(外国人)は警戒されるのかと思っていたが、地元の韓国人も何やら身分証明書のようなカードの提示が求められていたので、外国人を特別に警戒するとかそのようなことではないようだ。

승선권구입 시에 패스포트 제시를 요구 받았다. 역시 일본인(외국인)은 경계 받는가 생각했지만, 현지의 한국인도 무엇인가 신분 증명서와 같은 카드의 제시를 요구받고 있었으므로, 외국인을 특별히 경계한다든가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다.

When purchasing the boarding pass, I was asked to present my passport. I initially thought it was because they were cautious of Japanese (foreigners), but I noticed that Koreans were also asked to present some form of identification card. It seems that they were not particularly cautious of foreigners.

さて、改札を待っていると一人の男性が「日本の方ですか」と話しかけてきた。「観光ですか」と聞く。「そうです」と応えると「観光だけですか」とちょっと妙な質問をしてきた。さらに「独島には行かないですね」だったか、そのようなことを聞いてきた。独島へ行くかどうか迷っていたのだが、その時は行かないことに決めていたので「行きません」と応えた。で、名刺を求めると、「울릉군 독도박물관 관장 이승진」と書いてあった。なんとその人はかの独島博物館の李承鎮館長だった。私の名刺の肩書は「フリーフォトグラファー」だ。

그런데, 개찰을 기다리고 있으니 한 남성이 「일본 분입니까」 라고 말을 건네 왔다. 「관광입니까」 하고 묻는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관광 뿐입니까」 라고 조금 이상한 질문을 해 왔다. 더구나 「독도에는 가지않으시네요」 였는지, 그러한 것을 물어 왔다. 독도에 갈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지만, 그 때는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었으므로 「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명함을 청구하니,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장 이승진」 이라고 써 있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저 독도 박물관의 이승진관장 이었다. 내 명함의 직함은 「프리 포토 그래퍼」 이다.

As I was waiting for the ticket check, a man approached me and asked, 'Are you from Japan?' When I replied 'Yes', he asked, 'Are you here for sightseeing?' I said yes, and then he asked a slightly unusual question, 'Is it just for sightseeing?' He further inquired, 'You're not going to Dokdo, right?' I was contemplating whether to visit Dokdo, but at that moment, I had decided not to go, so I answered, 'No, I'm not going.' I asked for his business card, it read, 'Director of Ulleung County Dokdo Museum, Lee Seung-jin.' To my surprise, he was the director of the famous Dokdo Museum. My business card's title was 'Freelance Photographer.'

これはいい出会いだと思い、私は「相談がある」と寄稿を呼びかける例のチラシを取り出して彼に渡し、協力を依頼した。そのつもりではなかったが、

あっさりと渡島目的を明かしてしまった。彼はチラシを一瞥したが何も言わなかった。どこへ泊まるかとも聞かれた。宿泊予約をしていなかったので予約していないとそのまま応え、そして、どこか紹介して下さいと厚かましくも頼んだ。それにも特に返事はなかった。席はどこかとも聞いてきた。乗船券を見せると、ああ、2階ですね、私は1階です、といった。乗船券には「2층」と刻印されていたが、その時まで自分の席が1階か2階か知らなかった。

이것은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상담이 있다」라고 기고를 부당하는 예의 안내문을 꺼내어 그에게 건네주어, 협력을 의뢰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시원스럽게 섬에 건너가는 목적을 밝혀 버렸다. 그는 광고지를 언뜻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디에 묵을까도 물었다. 숙박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약하고 있지 않다고 그대로 대답하고, 그리고, 어딘가 소개해 주세요 라고 뻔뻔스럽게도 부탁했다. 그 말에도 특별한 대답은 없었다. 좌석은 어딘가 라고도 물어 왔다. 승선권을 보이자, 아, 2층이군요, 나는 1층입니다, 라고 했다. 승선권에는 「2층」이라고 찍혀 있었지만, 그 때까지 자신의 좌석이 1층인가 2층인가 몰랐다.

I thought this was a good encounter, so I took out the flyer calling for contributions and handed it to him, asking for his cooperation. Although I didn't intend to, I quickly revealed the purpose of my visit to the island. He glanced at it but said nothing. He also asked where I would be staying. Since I hadn't booked any accommodation, I answered honestly that I didn't have a reservation and even boldly asked if he could recommend a place. He didn't give a particular response to that either. He also inquired about my seat. When I showed him my boarding pass, he said, 'Ah, you're on the second floor. I'm on the first



フェリーターミナル  
페리 터미널  
Ferry Terminal



待合室 대합실  
Waiting Room



floor.' The boarding pass had '2 층' (second floor) stamped on it, but until then, I didn't know whether my seat was on the first or second floor.



乗船 9 時 30 分  
 승선 9 시 30 분  
 Boarding at 9:30.

身分証明のチェックは改札の時も行われ、私はパスポート、韓国人は身分証明カードを再び示して改札を通過し乗船することができた。

신분 증명의 체크는 개찰 때도 행해져 나는 패스포트, 한국인은 신분 증명 카드를 다시 보여주며 개찰을 통과해 승선할 수 있었다.

The identity check was also conducted at the ticket gate, where I showed my passport and the Koreans showed their identification cards again. This allowed us to pass through the gate and board the ship.

フェリーは全席座席指定のようで、私の座席は「일반석 (2 층) / H-36」であった。この「일반석」は Google 翻訳では「エコノミークラス」と出た。2 階の一般席はおおよそ下図のようであ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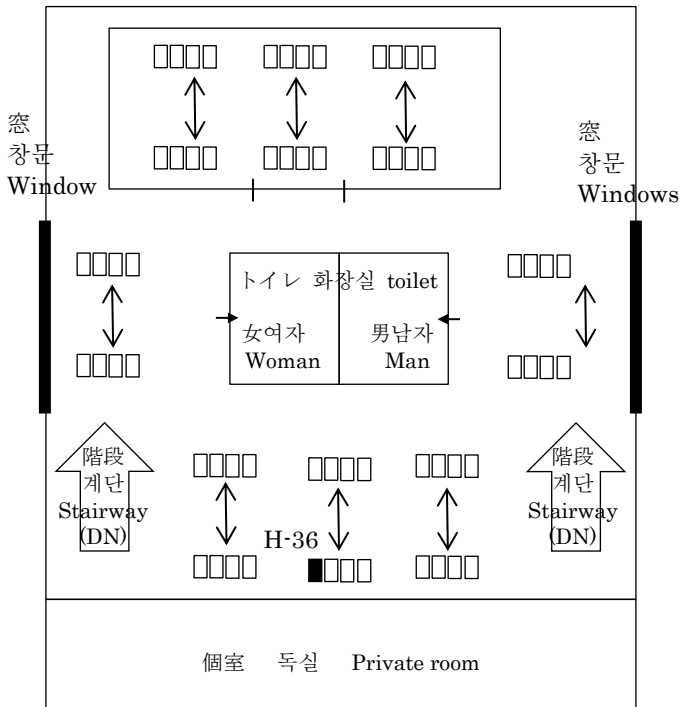
페리는 모든 좌석이 지정좌석 같았고, 나의 좌석은 「일반석 (2 층) / H-36」이었다. 이 「일반석」은 Google 번역에서는 「이코노미 클래스」라고 나왔다. 2 층의 일반석은 대체로 아래그림과 같았다.

It seems that all seats on the ferry are assigned. My seat was '일반석 (2 층) / H-36.' According to Google Translate, '일반석' translates to 'Economy Class.' The general seating on the second floor was roughly as shown in the diagram below.

乗船後、船から港の写真を撮ろうと思い近くの船員に「デッキ?」と尋ねると「ノーデッキ、オールインサイド」と答えが返ってきた。えっ、外に出られないのかと思った。高速船だから安全管理上そうせざるを得ないのかも知れない。しかし、閉鎖的な空間で窓がほとんどなく、これで転覆でもしたら助からないと恐怖を覚えた。これが「一般席」なのだ。JR 九州のビートルも

オールインサイドだが、「一般席」でも窓があり外が見えるだけでもいい。

승선 후, 배로부터 항구의 사진을 찍으려고 생각하고 가까이 있는 선원에게 「데크?» 라고 묻자 「노우 데크, 올 인사이드」 라고 대답이 돌아왔다. 어, 밖에 나갈 수 없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고속선 이니까 안전 관리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다. 그러나, 폐쇄적인 공간에서 창이 거의 없고, 이것으로 배가 전복되면 살아날 수 없다는 공포를 느꼈다. 이것이 「일반석」이다. JR 큐슈의 비틀 도 올 인사이드 이지만, 「일반석」이라도 창이 있어 밖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좋다.



2 階客室の座席配 2 층객실 좌석배정  
Seating on the second floor

After boarding, I wanted to take a picture of the port from the ship, so I asked a nearby crew member, 'Deck?' He replied, 'No deck, all inside.' I was surprised to learn that we couldn't go outside. Perhaps this is

necessary for safety management on a high-speed ship. However, in a closed space with hardly any windows, I felt terrified, thinking that if the ship capsized, there would be no escape. 'Economy Class' is like this. The JR Kyushu Beetle is also fully enclosed, but even the economy class has windows that allow us to see outside.

さて、独島博物館の館長が何で私に近づいてきたのか、正直不可解な思いだった。旅の目的、宿泊場所を聞いてくる、やっぱり監視されていると思った。まあ、しかし、出港した後、館長がわざわざ私の座席にやってきて「マツオさん、ホテルとれましたよ、2日だけですがいいですか?」と言ってきた。船から鬱陵島のホテルに電話を入れてくれたのだ。自分は宿が取れなければとんぼ返りするつもりでいたから、2日間でもとれば万々歳だ。有り難うございますとお礼した。下船したら待っていますから一緒に行きましょうと笑顔で言ってくれた。

그런데, 독도 박물관의 관장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다가왔는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여행의 목적, 숙박 장소를 물어 온다, 역시 감시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출항한 후, 관장이 일부러 나의 좌석에 와서 「마쓰오씨, 호텔 잡혔어요, 2일뿐입니다만 좋습니까?」라고 말해 왔다. 배에서 울릉도의 호텔에 전화를 걸어 주었던 것이다. 나는 숙소가 잡히지 않으면 바로 되돌아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2일간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만세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다. 하선하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 잡시다 라고 웃는 얼굴로 말해 주었다.

To be honest, I was puzzled as to why the director of the Dokdo Museum approached me. He asked about my travel purpose and accommodation, making me feel as if I was being monitored. However, after the departure, the director kindly came to my seat and said, 'Matsuo-san, I managed to book a hotel for you, but only for two days. Is that alright?' He had called a hotel in Ulleungdo from the ship. Since I was planning to return if I couldn't find accommodation, I was delighted to have a place for even two days. I thanked him, and he smiled and said, 'I'll wait for you after disembarking, so we can go together.'

船を下りると館長はすぐにホテルに電話を入れ、ちょっと待つとホテルから我々をジープのような車で迎えに来た。館長は私だけを乗せて行こうとしたが、迎えに来た人があんたも乗りなさいという身振りをし、館長も同乗し

た。後でわかったことだが、車で行くほどの距離ではなかった。初めての鬱陵島だ、距離感が全くなかった。島は人でごった返していた。

배를 내리자 관장은 곧바로 호텔에 전화를 걸어, 조금 기다리자 호텔에서부터 우리를 지프 같은 차로 마중 나왔다. 관장은 나만을 태우고 가라고 했지만, 마중 나온 사람이 당신도 타세요 라고 하는 몸짓을 해, 관장도 동승 했다. 뒤에 안 일이지만, 차로 갈 정도의 거리는 아니었다. 처음 오는 울릉도지만, 거리감이 전혀 없었다. 섬은 사람으로 붐비고 있었다.

After disembarking from the ship, the director immediately called the hotel. After a short wait, someone from the hotel came to pick us up in a jeep-like vehicle. The director initially intended for only me to go, but the person who came to pick us up gestured for the director to join as well, so he did. Later, I realized that it wasn't a distance that required a car. Being my first time on Ulleungdo, I had no sense of the distances. The island was bustling with people.



多数の客が下船

다수의 손님이 하선

A large number of passengers disembarked.



李承鎮独島博物館館長

이승진 독도 박물관 관장

Director of the Dokdo Museum, Lee Seung-jin



下船客と迎いの車でごった返す道洞港

하선객과 마중 나온 차로 붐비는 도동항

Chaos at Dodong Port with disembarking passengers and welcoming vehicles.

着いたところは「e-편한 호텔」というホテルだった。オンドル部屋で宿賃は一泊 W60000、かなりきつい値段だったが、この際四の五の言っておれなかった。新しいホテルだった。館長とはここでお別れだが、今度いつ会えるかと聞くと 4 日（土）11 時だったらしいよ、とのことだったのでその時間に会うことにした。

도착한 곳은 「e-편한 호텔」이라는 호텔이었다. 온돌 방으로 숙박료는 일박 W60000, 제법 비싼 가격이었지만, 이제와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없었다. 새 호텔이었다. 관장과는 여기서 작별이지만, 다음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물으니 4 일(토)11 시라면 좋아요, 라고 해서 그 시간에 만나기로 했다.

The place we arrived at was a hotel called 'e-Pyeonhan Hotel.' It had ondol rooms, and the accommodation fee was W60,000 per night, which was quite steep for me, but I couldn't afford to be picky at that point. It was a new hotel. This was where I said goodbye to the director. When I asked when we could meet again, he said that 11:00 on the 4th (Saturday) would be OK, so we agreed to meet at that time.

ここで敢えて記しておこうと思う。

여기서 굳이 적어 두고 싶다고 생각한다.

I would like to record this here intentionally.

2014 年 11 月に渡島を試みたことがあった。その時、浦項のフェリーターミナルで応対してくれた職員にホテルの紹介を依頼した。そして、紹介されたのが「e-편한 모텔」であった。「호텔」と「모텔」が異なるが、多分同じところだろうと思う。この時はまだモテルだったのだ。しかし、この時は激しい下痢に見舞われて渡島しなかった。渡島の目的は何か、独島へは行くか、

ホテルはどこか、を聞いてきた。私（日本人）はやっぱり「監視」され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思う。そして、「e-편한 호텔」は私のような人間が来たときにまずは紹介する「指定」ホテルではないか。具体的な証拠は何もないが。

2014년 11월에 울릉도행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 그 때, 포항의 페리터미널에서 응대해 준 직원에게 모텔의 소개를 의뢰했다. 그리고, 소개받은 것이 「e-편한 모텔」이었다. 「호텔」과 「모텔」이 다르지만, 아마 같은 곳 일거라고 생각한다. 이 때는 아직 모텔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때는 심한 설사가 나서 울릉도에 가지 못했다. 섬에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독도에는 가는지, 호텔은 어딘가, 를 물어 왔다. 나(일본인)는 역시 「감시」당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e-편한 호텔」은 나와 같은 인간이 왔을 때에. 우선 소개하는 「지정」호텔이 아닌가. 구체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만.

I attempted to visit the island in November 2014. At that time, I asked the staff at the Pohang ferry terminal to recommend a motel, and they suggested 'e-Pyeonhan Motel.' The terms '호텔' (hotel) and '모텔' (motel) are different, but I think it's probably the same place. Back then, it was still a motel. However, I didn't visit the island that time due to severe diarrhea. He asked me about the purpose of my visit, whether I would go to Dokdo, and where I would stay. I felt that I (as a Japanese) was being 'monitored.' I wonder if 'e-Pyeonhan Hotel' is a 'designated' hotel that they first introduce to people like me. Although I have no concrete evidence.

しかし、喧嘩するために鬱陵島に行くわけではないし、渡島目的も実は観光ではなく、李館長にチラシを見せてオープンにした。監視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は逆に安全が確保されているとも言えないか。冒険的な旅行であれば安全は大切なことだ。李館長からはいっぱい写真を撮ってください、と言われた。諜報活動で行く人にはこうはならないかも知れない。信じる者は救われる。負の連鎖を増幅させても意味はない。

그러나, 싸움하기 위해서 울릉도에 가는 것은 아니고, 섬에 가는 목적도 실은 관광이 아니라, 이 관장에게 광고지를 보이며 분명히 했다. 감시 당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안전이 확보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모험적인 여행이라면 안전 확보는 중요한 일이다. 이 관장은 사진을 많이 찍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첩보활동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는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믿는자는 구원받는다. 부의 연쇄를 증폭

시커도 의미는 없다.

However, I do not go to Ulleungdo to fight. And the purpose of my visit wasn't actually tourism, as I showed Director Lee the flyer, was open about my intentions. Being monitored could also mean that my safety was being ensured. Safety is crucial, especially for an adventurous trip. Director Lee told me to take lots of photos. To someone on an espionage mission, it wouldn't likely be treated this way. Those who believe will be saved. Amplifying negative cycles is meaningless.

第一日目の当初予定は独島博物館、日本式家屋を訪ね、道洞の町をぶらぶらすることであった。独島博物館は工事中で見学不可との情報を既にフェリーで李館長から得ていたので、まずは日本式家屋を訪ねることにした。受付嬢に「日本語 OK?」と聞くとあまり通じなかった。それでも「どうぞ」と優しく迎え入れてくれた。先客は二人だけで混雑はしていなかった。この日本式家屋の細かなことは聞かなかったが大工さんの家だったらしい。二階屋だ。そんなに大きくない建物なので 10 分もあればさっと見て回れる。説明はハングルだから理解できない。今は鬱陵歴史文化体験センターとして使われている。

첫날의 당초 예정은 독도 박물관, 일본식 가옥을 방문하고 도동 마을을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는 것이었다. 독도 박물관은 공사중으로 견학 불가라는 정보를 이미 페리에서 이 관장으로부터 얻고 있었으므로, 우선은 일본식 가옥을 방문하기로 했다. 접수 아가씨에게 「일본어 OK?」라고 물으니 별로 통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어서 오세요」라고 상냥하게 맞아들어 주었다. 선객은 두 명만으로 혼잡하지는 않았다. 이 일본식 가옥의 상세한 것은 묻지 않았지만 목수의 집이었던 것 같다. 2 층집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이어서 10 분 정도면 획 돌아볼 수 있다. 설명은 한글이니까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은 역사 문화 체험 센터로서 사용되고 있다.

On the first day, my initial plan was to visit the Dokdo Museum, a Japanese-style house, and stroll around the town of Dodong. On the ferry, Director Lee had already informed me that the Dokdo Museum was under construction and couldn't be visited, so I decided to visit the Japanese-style house first. When I asked the receptionist 'Japanese OK?', she didn't understand very well, but she still welcomed me kindly with a 'Please.' There were only two other visitors, so it wasn't crowded. I didn't ask about

the details of this Japanese-style house, but it seemed to be a carpenter's house. It was a two-story house. The building wasn't very large, so it could be quickly toured in about 10 minutes. Since the explanations were in Hangul, I couldn't understand them. The house is now used as the Ulleung Historical and Cultural Experience Center.

このセンターのマネージャーと名刺交換をした。許順姫허순희さん。明るく朗らかな人だ。すぐに寄稿よびかけを出して読んでもらったが、特に感想はなく、セイブ、セイブとよびかけを押し返した。そして、韓国 TBC が 2006 年に作成した「독도 바다사자 (独島アシカ)」という番組がインターネット上にあると思うので見なさい、と言った。この番組は私の横で放映されていたが、韓国語だから内容はよく分からなかった。このセンターですっと放映されていた。

이 센터의 매니저와 명함 교환을 했다. 허순희선생님. 밝고 명랑한 사람이다. 곧바로 기고 호소문을 내고 읽어달라고 부탁했는데, 특별한 감상없이, 세이브, 세이브라고 하며 호소문을 되돌렸다. 그리고, 한국 TBC 가 2006 년에 작성한 「독도 바다사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있다고 생각하니 봐주세요, 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내 바로 옆에서 방영되고 있었지만, 한국어라서 내용은 잘 몰랐다. 이 센터에서 계속 방영되고 있었다.

I exchanged business cards with the manager of the center, 허순희 (Heo Sun-hee). She was a bright and cheerful person. I quickly showed her my call for contributions and asked her to read it, but she didn't have any particular feedback. Instead, she kept saying 'Save it' and handed the flyer back. She also mentioned that there is a program called '독도 바다사자' (Dokdo Sea Lion), produced by Korean TBC in 2006, available on the internet, and recommended that I watch it. This program was playing next to me, but since it was in Korean, I couldn't understand it well. It was constantly being shown at the center.

帰国後調べたことだが、韓国 TBC のキム・ウンギョン記者の「TBC の HD ドキュメンタリー『独島アシカ』が『2007 韓国民放犬賞』に選ばれた」という記事 (2007-04-18) によると次のように報告している。

귀국후 조사한 것이지만, 한국 TBC 의 김은경 기자의 「TBC 의 HD 다큐 '독도 바다사자'가 '2007 한국민영방송대상'으로 선정됐다.」라고



하는 기사 (2007-04-18)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After returning to Japan, I researched and found that according to an article by Kim Eun-kyung, a reporter from Korea's TBC, titled 'TBC's HD Documentary "Dokdo Sea Lion" Selected for the "2007 Korean Private Broadcasting Award"' (dated April 18, 2007), it reported as follow.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070418.010280745300001>

\*\*\*\*\*

'독도 바다사자'는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HD 영상으로 담아내고, 바다사자의 생존 및 복원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한 작품이다. 한때 세계 최대의 바다사자 서식지에서 지금은 멸종 위기에 다다른 이유를 추적하고, 결국 독도가 우리땅임을 다시 한 번 대외적으로 천명시켰다.

「独島アシカ」は、独島の美しい自然環境をHD映像に込めて、アシカの生存および復元の可能性を多角的に検討した作品である。かつて世界最大のアシカの生息地で、今では絶滅の危機にある多々の理由を追跡して、最終的には独島が私たちの土地であることをもう一度対外的に明らかにした。

The documentary 'Dokdo Sea Lions' captures the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of Dokdo in HD footage,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the sea lions' survival and restorat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Once the largest habitat for sea lions in the world, it now faces numerous reasons for their endangerment. Ultimately, the work reaffirms to the international audience that Dokdo is our land.

\*\*\*\*\*

日本語訳が韓国語のニュアンスを正しく訳出しているとすれば、率直に思う。アシカの絶滅危機問題と領土問題は全く別の問題ではないか。この二つの問題を同じ土俵で論じることには論理的な無理がある。番組はどのような論理構成になっているのだろうか。

일본어 번역이 한국어의 뉘앙스를 바르게 번역하고 있다고 하면, 솔직히 생각한다. 바다 사자의 멸종 위기 문제와 영토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 두 문제를 같은 틀에서 논하기는 논리적인 무리가 있다. 프로그램은 어떤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

If the Japanese translation accurately captures the nuances of the Korean, I honestly think. Isn't the issue of the endangered status of sea

lions and the territorial dispute two completely separate issues? There seems to be a logical inconsistency in discussing these two issues on the same platform. I wonder what kind of logical structure the program has.

また、許さんは独島関係の本を一冊くれた。その内容はハングルで書かれているので、よく分からないが、独島問題を論じることは私の目的ではないのでこれ以上言及しない。

또한 허 선생님은 독도 관련 서적을 한 권 주었다. 그 내용은 한글로 쓰여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독도 문제를 논하는 것은 나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Ms. Heo also gave me a book about Dokdo. Since it's written in Hangul, I cannot understand it well, but discussing the Dokdo issue is not my purpose, so I won't mention it further.



アコーディオンを弾いて私を歓迎する許さん。

아코디언을 연주하면서 나를 환영하는 허 선생님.

Ms. Heo playing the accordion to welcome me.

受付嬢にもよびかけを読んでもらった。期待する反応はなかった。逆に、独島をどう思うかと聞かれた。独島問題を議論しにきたのではないので、そんなことは議論したくない、ここを読んでくれ、とばかりによびかけの「ひとりの民間人・・・」の件を示した。それでも受付嬢は納得していない風だった。私は独島問題の白黒をつけるために鬱陵島まで来たのではない。私の渡島目的は文集作成の協力者を得ることだ。そうは言っても、初対面の人に何かを頼むこと自体、突飛な行動だろうと思う。しかし、その突飛な行動を、ここでは熱意と理解していただきたい。

접수 아가씨에게도 기고 호소문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기대하는 반응은 없었다. 거꾸로, 독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독도 문제를 논의하러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논의하고 싶지 않다, 여기만 읽어주세요 라고 말하며, 기고 호소문의 「한사람의 민간인・・・」의 부분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접수 아가씨는 납득하고 있지 않는 듯 했다.

나는 독도 문제의 흑백을 가리기 위해서 울릉도까지 온 것은 아니다. 나의 울릉도행 목적은 문집 작성의 협력자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첫 대면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엉뚱한 행동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엉뚱한 행동을, 여기에서는 열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I also asked the receptionist to read the call for contributions. She didn't give the expected reaction and instead asked me what I thought about the Dokdo issue. Since I didn't come to discuss the Dokdo issue, I didn't want to debate it and showed her the part of the call that says 'As a private citizen...' Even so, she seemed skeptical. I didn't come to Ulleungdo to settle the Dokdo issue. My purpose in visiting the island is to find collaborators for the literary collection. Asking something from someone just met might seem like a reckless action. However, I hope this unexpected initiative is understood here as enthusiasm.



日本式家屋：玄関を入ると右の  
写真のような受付カウンターがある。  
許さん撮影。



일본식 가옥 : 현관을 들어가면 오른쪽의 사진과 같은 접수 카운터가  
있다. 허선생님 촬영.

Japanese-style house: When we enter the entrance, there is a  
reception counter on the right, as shown in the photo. Photo taken by  
Ms. Heo.

幸い、許さんはケイコさんという日本人女性に連絡を取ってくれた。なんと鬱陵島に日本人が住んでいるというのだ。結局、私がいる間には連絡が取れず、明日 13 時にきなさい、ということになった。

다행히, 허선생님은 케이코 씨라고 하는 일본인 여성에게 연락을 해주었다. 놀랍게도 울릉도에 일본인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내가 있는 동안에는 연락을 되지 않아, 내일 13 시에 오세요, 라는 것이 되었다.

Fortunately, Ms. Heo contacted a Japanese woman resident named Keiko. I was surprised to learn that a Japanese person lives on Ulleungdo. In the end, we couldn't reach her while I was there, but I was told to come back at 1 PM tomorrow.



日本式家屋 2 階

일본식 가옥 2 층

Japanese-style house, second floor.



右：鬱陵歴史文化体験センターマネージャー許順姫さん

우：울릉 역사 문화 체험 센터 매니저 허순희 선생님

Right: Heo Sun-hee, Manager of the Ulleung Historical and Cultural Experience Center

左：受付嬢（この文書では、最初に私を受け付けてくれた人なので受付嬢と記した。後で知ったことだが許さんの娘さんだった。）

좌：접수 직원（이 문서에서는, 최초로 나를 받아들여 준 사람이므로 접수 직원라고 적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허 선생님의 따님이였다.）

Left: Receptionist (In this document, I referred to her as the receptionist because she was the first person who assisted me. I later found out that she was Ms. Heo's daughter.)



17 時少し前にセンターを辞去し、さて今からどうしたものかと思いつつ町をうろついていると独島博物館入り口という看板に巡りあった。そこから独島博物館まで 500m とあった。ならば歩いて行けると思い坂道を登っていった。小さな島で平地はほとんどなく道洞の町も斜面にある。その上の方に独島博物館がある。船着き場からすたすと歩くと 10 分くらいで行ける距離だ。

17 時 10 分 前に センター を 出 発 し、 今 日 何 を 何 処 へ 行 っ て 見 たい か 考 へ ながら 町 を 歩 いて いる と 独 島 博 物 館 入 口 と 書 いた 標 識 に 巡 り 会 った。 そ っ け り 独 島 博 物 館 へ 500 m 離 れ っ た。 そ っ け り 登 り 上 っ て 行 っ た。 こ の 島 は 平 地 が 少 なく 道 洞 の 町 も 傾 斜 地 に 在 る。 そ の 上 の 方 に 独 島 博 物 館 が 在 る。 船 着 き 場 か ら 歩 くと 10 分 程 度 行 け る 距 離 だ。

A little before 5 PM, I left the center and, wondering what to do next, wandered around the town. I came across a sign for the entrance to the Dokdo Museum. It indicated that the museum was 500 meters away, so I decided to walk there. The small island has very little flat land, and the town of Dodong is also on a slope. The Dokdo Museum is located further up. It's about a 10-minute walk from the port if you walk briskly.

看板の大きな文字のハングルは「道洞薬水公園入口」と書いてある。博物館までの途中に寺(대한불교 천태종 해도사大韓仏敎天台宗海島寺)があり、この少し上に博物館があった。

간판의 큰 글씨의 한글은 「도동 약수 공원 입구」라고 써 있다.



Buddhist Cheontae Order Haedosa Temple), and just a bit further up was the museum.

박물관까지의 도중에 절 (대한불교 천태종 해도사) 이 있고, 이 조금 위에 박물관이 있었다.

The large Hangul letters on the sign read 'Dodong Mineral Spring Park Entrance.' On the way to the museum, there was a temple (대한불교 천태종 해도사, Korean



横断幕は「独島博物館展示室 リモデリング工事により観光客の作業現場への出入りを禁止します。利用にご不便をおかけし申し訳ありません。 期間:2016.4.1~2016.7.31 / 問合せ電話:独島博物館 (054-790-6591)」と書いてある。

횡단막은 「독도 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관광객의 작업 현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기간 : 2016.4.1~2016.7. 31 /문의전화 : 독도 박물관 (054-790-6591)」 이라고 써 있다.

The banner reads: 'Dokdo Museum Exhibition Room Remodeling. Tourists are prohibited from entering the construction site.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caused. Period: 2016.4.1 - 2016.7.31 / Contact phone: Dokdo Museum (054-790-6591).'

博物館のすぐ側に独島展望台ケーブルカーの乗車口があった。小高い山は망향봉望郷峰 317.3m であった。写真は右に下りケーブルカーが写っていて、



中央の白い建物が独島博物館。

박물관의 바로 측에 독도 전망대 케이블카의 승차구가 있었다. 작은 산은 망향봉 317.3 m 였다. 사진은 오른쪽으로 하행 케이블카가 비치고 있고, 중앙의 흰 건물이 독도 박물관.



Right next to the museum, there was the boarding area for the Dokdo Observatory Cable Car. The hill, 망향봉 (Manghyang Peak), is 317.3 meters high. In the photo, the descending cable car is on the right, and the white building in the center is the Dokdo Museum.

山頂の展望台で、居合わせた観光客に独島はどっちの方向かと聞くと、あれ、と望遠鏡を指さした。望遠鏡が二つあって、その一つは独島専用らしく独島が見える方向に固定されていた。展望台で数人の観光客の写真を撮らせてもらって、ちょっと民間交流し、またケーブルカーで下って道洞港へとぶらぶら歩いた。

산정의 전망대에서, 우연히 만난 관광객에게 독도는 어느 방향인가 하고 물으니, 저것, 이라고 망원경을 가리켰다. 망원경이 두 개 있고, 그 하나는 독도 전용인 것 같게 독도가 보이는 방향으로 고정되고 있었다. 전망대에서 몇 사람의 관광객의 사진을 찍고, 조금 민간 교류도 하고, 또다시 케이블카로 내려와 도동항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었다.

At the observatory on the mountain summit, I asked the tourists happened to be there which direction Dokdo was, and they pointed to a telescope, saying 'There.' There were two telescopes, one of which seemed to be dedicated to Dokdo and was fixed in the direction where Dokdo could be seen. At the observatory, I took photos of a few tourists, had a brief interaction with them, and then took the cable car down and strolled back to Dodong Port.



港には魚市場があった。小さいけれども釜山で言うところのチャガルチのような場所だ。そこを見物しながら、写真を撮らせてくれとチョッカイを出してみた。断る人もいるが乗りのいい人もいる。ポーズも様になっている。すぐさま写真を印刷して渡すともう私は人気者である。こんな風に撮ってくれと指定する人も出てくる。これが面白くて写真がやめられない。



도동항에는 작은 어시장이 있었다. 작지만 부산으로 치자면 자갈치와 같은 장소다. 그곳을 구경하면서, 사진을 찍게 해 달라고 부탁해 보았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응해주는 사람도 있다. 포즈도 근사하다. 곧바로 사진을 인쇄해 건네주면 이제 나는 인기인이다. 이런 식으로 찍어달라고 지정하는 사람도 나온다. 이것이 재미있어서 사진을 포기할 수 없다.

There was a fish market at the port. Although small, it was similar to Jagalchi in Busan. While exploring the market, I cheekily asked if I could take photos. Some people refused, but others were enthusiastic and struck poses. When I quickly printed out the photos and handed them out, I became quite popular. Some people even asked me to take specific types of photos. This was so entertaining that I couldn't stop taking pictures.

もう一つ、でかい三角形の巻き貝があった。われわれが北九州若松の岩屋で採るこの種の貝は大きくても 3cm 前後である。しかしここのは写真で分かるように、サザエでもかかったがそのサザエよりもでかい。私の握り拳よりも大きかった。

하나 더, 아주 큰 삼각형의 고둥이 있었다. 우리가 기타큐슈 (北九州) 와카마쓰 (若松)의 이와야 (岩屋)에서 잡는 이런 종류의 조개는 커도 3cm 전후이다. 그러나 여기의 것은 사진으로 알 수 있듯이, 소라도 컸지만 그 소라보다 아주 크다. 나의 주먹보다 컸다.



Additionally, there was a large,



triangular shellfish. The ones we collect from Iwaya in Wakamatsu, Kitakyushu, are usually around 3 cm even at their largest. However, as you can see in the photo, these were much bigger than turban shells, and even larger than my clenched fist.



夕食は港近くの食堂でビビンパ。これしか知らないのだ。あちこちでビビンパを食べてきたが、釜山の南浦洞で食べたビビンパが質的にも量的にも一番よかった。この食堂でも何枚か写真を撮り、民間交流。写真の人々は夫婦四組のグループだ。夫婦連れでトレッキングだろうか。私がもうすこし韓国語ができれば楽しいのだが。



저녁 식사는 항구 가까이의 식당에서 비빔밥. 이것 밖에 모른다. 여기저기에서 비빔밥을 먹어왔지만, 부산의 남포동에서 먹은 비빔밥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제일 좋았다. 이 식당에서도 몇 장 사진을 찍어, 민간 교류. 사진의 사람들은 부부 4 쌍의 그룹이다. 부부 동반으로 트레킹일까. 내가 좀 더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즐겁겠지만.

Dinner was bibimbap at a restaurant near the port. It's the only dish I know well. I've had bibimbap in various places, but the one I had in Nampodong, Busan, was the best in terms of both quality and quantity. I took several photos at this restaurant and engaged in some civilian interaction. The people in the photos are a group of four couples. Maybe they were trekking together as couples. It would have been more enjoyable if I could speak a little more Korean.

ぶらぶらとホテルに戻る途中、きらきらとネオンの輝く店があった。数人の男と女性一人がたむろしていた。年は 50-60 歳くらい。ここは何の店かと聞くとノレバンと女性が言う。

어슬렁어슬렁 호텔로 돌아오는 도중, 반짝반짝 네온이 빛나는 가게가 있었다. 몇 사람의 남자와 여성 한 명이 모여 있었다. 나이는 50-60 세 정도. 여기는 무슨 가게인가 하고 물으니 노래방이라고 여성이 말한다.

Wandering back on my way back to the hotel, I came across a brightly lit neon store. A few men and one woman, aged around 50-60, were hanging around. When I asked what kind of store this was, the woman said this was a karaoke.

9 時少し前にホテルに戻りシャワーを浴び、鬱陵後の宿の手配。ここは 4 日にはチェックアウトしなければならない。帰りのビートルの予約は 7 日。6 日夜のホテルは agoda で Business Hotel Busan Station を予約している。4 日と 5 日の夜が未予約だ。agoda を探すも空室がない。booking.com も空室がない。安いところはだ。高いところならあったかも知れない。楽天でやっと空室を見つけた。釜山インモテル。ここは以前から一度は泊まってみようと思っていたところだった。釜山駅周辺の最安ホテルの一つだ。安ホテルを検索すると必ず出てくる。

9 시 조금 전에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울릉 후의 숙소의 수배. 여기는 4 일에는 체크아웃 해야 한다. 출국의 비틀의 예약은 7 일. 6 일밤의 호텔은 agoda 로 Business Hotel Busan Station 를 예약하고 있다. 4 일과 5 일의 밤이 미예약이다. agoda 를 찾아도 빈방이 없다. booking.com 도 빈방이 없다. 싼 곳은 말이다. 비싼 곳이라면 있었을지도 모르다. 라쿠텐에서 겨우 빈방을 찾아냈다. 부산 인 모텔. 여기는 이전부터 한번은 묵어 보려고 생각했던 곳이었다. 부산역 주변의 최저렴 호텔의 하나다. 싼 호텔을 검색하면 반드시 나온다.

A little before 9 PM, I returned to the hotel, took a shower, and arranged accommodations for after Ulleungdo. I have to check out of here on the 4th. My reservation for the Beetle ferry back is on the 7th. I have a reservation at the Business Hotel Busan Station for the night of the 6th through Agoda. The nights of the 4th and 5th are still unreserved. I searched on Agoda but found no vacancies. Booking.com also had no vacancies, at least for the cheaper places. There might have been some if I looked at more expensive options. I finally found a vacancy on Rakuten at Busan Inn Motel. This motel was a place I had wanted to stay at least once. It's one of the cheapest hotels around Busan Station. When searching for cheap hotels, this one always comes up.

4 日、5 日泊まって 6 日にホテルを変えるのは面倒だったので 4 日から 6 日まで 3 泊を予約した。そして agoda で予約したビジネスホテルを解約しようと思い agoda の my page を開くと予約はないと出た。おかしい、手元に voucher はある。my page を何回か閉じたり開いたりしたが、やっぱり予約記録が出ない。一泊 4000 円くらいのダブルブッキングだ。お金がもったいないが放置した。

4 日, 5 日 묵고 6 일에 호텔을 바꾸는 것은 귀찮았기 때문에 4 일부터 6 일까지 3 박을 예약했다. 그리고 agoda 로 예약한 비즈니스용 호텔을 해약하려고 생각하고 agoda 의 my page 를 열자 예약은 없다고 나왔다. 이상하다, 수중에 voucher 는 있다. my page 를 몇번인가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지만, 역시 예약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일박 4000 엔 정도의 이중 예약이다. 돈이 아깝지만 그대로 두었다.

Since changing hotels on the 6th would be troublesome, I booked a stay from the 4th to the 6th for three nights. Then, I tried to cancel my reservation for the business hotel I booked through Agoda. When I opened the 'My Page' section on Agoda, it stated there was no reservation. That's strange, as I have the voucher in hand. I opened and closed 'My Page' several times, but the reservation record still didn't appear. It looks like I have a double booking for around 4000 yen per night. It's a waste of money, but I left it as it is.



6月3日(金) 鬱陵島 6월3일(금) 울릉도  
June 3rd (Fri) Ulluendo

今日は 13 時からケイコさんに会う予定になっている。午前中は何をしようかと思っていたが、島一周の遊覧船があることを思い出した。フェリーターミナルに行って遊覧船の乗船券を買う場所を尋ねるとあっちに行って下れという。なるほどそっちに行くと下る階段があった。言葉が通じないから、聞く方も答える方もあっち、こっちと指さし言葉だ。それで、下に行ったがそれらしき建物がわからない。また同じところに戻ってどこかと改めて聞き直した。今度は職員が外に出てきて私を導き、あそこだと指さした。下におりる場所が手前過ぎたのだ。

오늘은 13 시부터 케이코 씨를 만날 예정으로 되고 있다. 오전중은 무엇을 할까하고 생각했지만, 섬을 일주 하는 유람선이 있는 것을 생각이었다. 페리 터미널에 가서 유람선의 승선권을 사는 장소를 물으니, 저쪽에 가서 내려거라고 말한다. 과연 그쪽에 가니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묻는 쪽도 대답하는 쪽도

이 쪽 저 쪽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말한다. 그래서, 아래에 갔지만 그것 같은 건물을 알 수가 없다. 다시 같은 곳으로 되돌아와 어딘가 하고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직원이 밖에 나와서 나를 이끌어, 저기라고 가리켰다. 아래에 내리는 장소를 바로 앞에 지나쳤던 것이다.

Today, I have an appointment to meet Keiko-san at 1 PM. I was wondering what to do in the morning and then remembered that there is a sightseeing boat that goes around the island. I went to the ferry terminal and asked where to buy a ticket for the sightseeing boat. I was told to go down there. Sure enough, there was a staircase going down in that direction. Since we couldn't understand each other's languages, both the person asking and the person answering used pointing gestures. So, I went down, but I couldn't find the building that looked like it. I returned to the same place and asked again where it was. This time, an employee came out and guided me, pointing to the place. The location to go down was a bit ahead of where I had initially gone down.

島一周約2時間、料金 W25000。乗船券を購入するときパスポートの提示

を求められた。ここはやっぱり国境の島なのだ。船で島外に出るには必ず身分を確認する。以下、遊覧船からの写真を少しばかり紹介する。

섬 일주 약 2 시간, 요금 W25000. 승선권을 구입할 때 패스पोर्ट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여기는 역시 국경의 섬이다. 배로 섬 밖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신분을 확인한다. 이하, 유람선으로부터의 사진을 조금만 소개한다.

The tour around the island takes about 2 hours and costs W25,000. When purchasing the ticket, I was asked to show my passport. This really is a border island. To leave the island by boat, identification must be verified. Here are a few photos from the sightseeing boat.



道洞港、右側手前にフェリーの発着ターミナルがある。谷間の入り江を港にした道洞である。町は平地ではなく斜面上にある。遊覧船に乗ったのはいいが案内は全て韓国語なのでちんぷんかんぷんであった。

도동항, 우측에 페리의 발착 터미널이 있다. 골짜기의 후미를 항구로 한 도동이다. 마을은 평지는 아니고 경사면상에 있다. 유람선을 탄 것은 좋았지만 안내는 모두 한국어이므로 잘 이해하지 못했다.

Dodong Port, with the ferry terminal located on the near right side. Dodong is a port made from a valley inlet. The town is not on flat land but on a slope. While it was nice to board the sightseeing boat, all the announcements were in Korean, so I couldn't understand at all.



カモメに餌をやるのはこの種の遊覧船の定番のようである。カモメも船とともに島を一周した。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이런 종류의 유람선의 기본인 것 같다. 갈매기도 배와 함께 섬을 일주했다.

Feeding the seagulls seems to be a standard activity on this type of sightseeing boat. The seagulls circled the island along with the boat.



象岩。鬱陵島は火山島らしいがその痕跡が最も明瞭に観察できる岩石（柱状節理）だ。向こうに見える尖った山は錐山。

코끼리바위. 울릉도는 화산도인것 같지만 그 흔적이 매우 명료하게 관찰할 수 있는 암석 (주상 절리)

이다. 저 편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산은 송곳봉.

Elephant Rock. Ulleungdo is apparently a volcanic island, and this rock (columnar joint) is where the volcanic traces can be most clearly observed. The pointed mountain visible in the distance is Seonginbong (the pointed mountain).

錐山 송곳봉  
Seonginbong  
(the pointed mountain)



道洞帰着 도동 귀착  
Return to Dodong

島を一周して 11 時過ぎに道洞港に到着した。下船後、明日の浦項行きの乗船券を予約。乗船前の混雑に巻き込まれたくなかったし、通路側の席を確保したかった。そこまではよかったが、「予約券」のようなものが発行されなかった。明日は大丈夫かと心配だった。

섬을 일주하고 11 시 지나 도동항에 도착했다. 하선 후 내일 포항 행 배표를 예약. 승선 전에 혼잡에 관여 들고 싶지도 않았고, 통로 쪽 좌석을 확보하고 싶었다.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예약 권' 같은 것이 발행되지 않았다. 내일은 팬창을까 걱정이었다.

After circling the island, I arrived back at Dodong Port a little after 11 AM. After disembarking, I reserved a ticket for tomorrow's trip to Pohang. I didn't want to get caught up in the pre-boarding rush and wanted to

secure an aisle seat. That part went well, but I didn't receive anything like a 'reservation ticket.' I was worried about whether things would be okay tomo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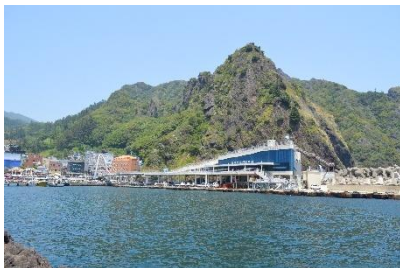
昼食。ここがいいと思って入った食堂が昨夜と同じところだった。がっかり。違うところへ行きたかった。まあ、その程度の記憶力なのだ。出て行くのも気が引けたので、そのまま入って、またビビンパを注文した。

점심. 여기가 좋다고 생각해 들어간 식당이 어젯밤과 같은 곳이었다. 실망. 다른 곳에 가고 싶었다. 뭐, 그 정도의 기억력이다. 나가는 것도 미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 또 비빔밥을 주문했다.

Lunch. I entered a restaurant that I thought looked good, only to realize it was the same place I went to last night. I was disappointed; I wanted to try a different place. Well, that's the extent of my memory. I felt awkward about leaving, so I stayed and ordered bibimbap again.

食事後、ケイコさんに会う 13 時までには少し時間があつた。フェリーターミナルの反対側（入り江の対岸）に行ってみた。そこには海の幸を食べさせる「牡蠣小屋」のような店が二軒あつた。

식사 후, 케이크 씨를 만나는 13 시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었다. 페리 터미널의 반대측 (후미의 건너편)에 가 보았다. 거기에는 해산물을 먹이는 「굴 오두막집」과 같은 가게가 2 채 있었다.



After lunch, I had some time until my meeting with Keiko-san at 1 PM. I decided to check out the opposite side of the ferry terminal (across the inlet). There were two places that seemed like 'oyster shacks,' where they served seafood.

牡蠣小屋からフェリーターミナル  
굴 오두막집으로부터 페리 터미널  
Ferry terminal from the oyster  
shack.



12時50分頃に日本式家屋の鬱陵歴史文化体験センターに行った。昨日会った受付嬢がいた。「ケイコさん来てますか」と声をかけると「もう来てますよ」と返事。ケイコさんは細身の女性だった。

12시 50분 무렵에 일본식 가옥의 「울릉 역사 문화 체험 센터」에 갔다. 어제 만난 접수직원이 있었다. 「케이코 씨 오셨습니까」라고 묻자 「벌써 와 있어요」라고 대답. 케이코 씨는 호리호리한 몸매의 여성이었다.

Around 12:50 PM, I went to the Ulleung Historical and Cultural Experience Center, a Japanese-style house. The receptionist I met yesterday was there. When I asked, 'Is Keiko-san here?' she replied, 'She's already here.' Keiko-san was a slender woman.



ケイコさん、許さん撮影

케이코 씨, 허선생님 촬영

Keiko-san, photographed by Ms. Heo.

センターの応接室のようなところで昨日と同じように呼びかけ文を出し、読んでもらい協力をお願いした。ケイコさんは「いいことですね」と言ってくれた。自分はここでは「自由写真家」を名乗っているが実は、と、まあ、自分の「正体」をさらけ出した。自分を隠しては信頼関係を築けない。そう思う。だって、自分だって、得体の知れない初対面の人から唐突もないことを頼まれると身を引くに決まっている。

센터의 응접실과 같은 곳에서 어제와 같이 기고 호소문을 보내어, 읽어 주고 협력을 부탁했다. 케이코 씨는 「좋은 일이군요」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여기에서는 「자유 사진가」를 자칭하고 있지만 사실은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자신을 숨기고 있어서는 신뢰 관계를 쌓아 올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신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첫 대면의 사람으로부터 뜻밖의 일을 받아도 싫은 것이 틀림없다.

In a room that looked like a reception room at the center, I handed out the same call for cooperation as yesterday and asked her to read it. Keiko-san said, 'That's a good thing.' Here, I call myself a 'free photographer,' but

I actually revealed my true identity. I believe that if I hide myself, I can't build trust. If a stranger suddenly asks me for something, it's natural to be wary.

そして「文集 私の韓国、私の日本」を送ることにした。これは帰国後「西双版納（シーサンパンナ）7日間とその前後」と合わせて4冊ずつ送った。ケイコさん1、許さん1、センター1、そして独島博物館の館長1、とケイコさんをお願いした。後日、許さんから「あなたの本を読んで涙した」というメールが届いた。この「文集」は500部印刷し私が100部日本に持ち帰り、残り400部を寄稿者を中心に主に釜山で配布した。文集を編集してよかったと改めて思った。

그리고 「문집 나의 한국, 나의 일본」을 보내기로 했다. 이것은 귀국후 「西双版納（시산판나）7일간과 그 전후」와 함께 4권씩 보냈다. 케이코씨 1, 허선생님 1, 센터 1, 그리고 독도 박물관의 이 관장 1, 이라고 케이코씨에게 부탁했다. 후 일, 허선생님으로부터 「당신의 책을 읽어 울었다」라고 하는 메일이 도착했다. 이 「문집」은 500부 인쇄해 내가 100부 일본에 가지고 돌아가고, 나머지 400부를 기고자를 중심으로 주로 부산에서 배포했다. 문집을 편집해서 좋았다고 다시금 생각했다.

And then I decided to send them the anthology 'My Korea, My Japan.' After returning to Japan, I sent four copies of this along with 'Xishuangbanna: Seven Days and Beyond.' I asked Keiko-san to give one to herself, one to Ms. Heo, one to the center, and one to the director of the Dokdo Museum. Later, I received an email from Ms. Heo saying, 'I cried while reading your book.' I printed 500 copies of the anthology, took 100 copies back to Japan, and distributed the remaining 400 copies mainly in Busan, focusing on the contributors. I felt glad once again that I had edited the anthology.

ケイコさんとの話が終わったのは2時を過ぎていたと思う。センターを出てまたぶらりと道洞港へ行った。サンフラワー号が停泊していて、しばらくして出港した。浦項行きの出発は14時30分だったのでちょっと時間が合わない。墨湖行きだろうか。

케이코씨와의 이야기가 끝난 것은 2 시를 지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센터를 나와 또 훌쩍 도동항에 갔다. 썬 플라워호가 정박하고 있다가, 잠시 후 출항했다. 포항행의 출발은 14 시 30 분이었으므로 조금 시간이

맞지 않는다. 묵호행일까.

I think the talking with Keiko-san ended after 2 PM. I left the center and wandered back to Dodong Port. The Sunflower ship was docked there and departed after a while. Since the departure for Pohang is at 2:30 PM, it didn't coincide with the Pohang departure. It might have been headed to Mukho.

港の広場はフェリーが着いたときは人と車でごった返していた。夕方になるとそれぞれの宿に落ち着いたのであろう、人気はほとんどなくなった。

항구의 광장은 페리가 도착했을 때는 사람과 차로 붐비고 있었다. 저녁이 되면 각각의 숙소에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인기척은 거의 없어졌다.



The square at the port was crowded with people and cars when the ferry arrived. By evening, it seemed everyone had settled into their accommodations, as the place became almost quiet and empty.

さて、この日はあまり面白そうな被写体は現れてこなかったので夕食に向かった。今日は肉が食べたいと思い、一軒の店に入った。一人ではダメだと断られた。あてもなく次を探してぶらぶら歩いていたら女性が客待ち顔で通りを眺めていた。肉料理の看板もあった。一人だが OK か、と尋ねると OK という身振り。そこに入った。6時半過ぎくらいだったと思うがまだ客はいなかった。

그런데, 이 날은 그다지 재미있을 것 같은 피사체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식사하러 갔다. 오늘은 고기를 먹고 싶어서, 한 가게에 들어갔다. 혼자서는 어렵다고 하며 거절당했다. 정처 없이 다른 곳을 찾아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자니 여성이 손님 기다리는 얼굴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기 요리의 간판도 있었다. 한 명이지만 OK 인가, 라고 물으니 OK 라고 하는 몸짓. 그곳에 들어갔다. 6 시 반 넘을 정도였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손님은 없었다.

Well, since I didn't come across any particularly interesting subjects to photograph that day, I decided to go for dinner. I wanted to eat meat, so I

entered a restaurant. However, I was turned away because I was alone. With no specific destination in mind, I wandered around looking for another place. I saw a woman looking out at the street, seemingly waiting for customers. There was a sign for meat dishes as well. I asked if it was okay for one person, and she gestured that it was. So, I went in. It was a little after 6:30 PM, and there were no customers yet.

注文したのは「오삼불고기」。手前の空の皿はダイコンキムチ。写真を撮る前に食べてしまった。韓国料理は野菜が多い。私はだいたい食べてしまうが、どこの食堂でも食べ残しが結構多い。満腹させるほど沢山出したという韓国文化らしいが、出し過ぎだ。茶碗を持って食べるのは乞食の食べ方と言われたことがある。まあ、これが文化の違いだ。その違いを良い悪いで言っても意味がない。



주문한 것은 「오삼 불고기」。앞에 있는 빈 접시는 무우 김치. 사진 찍기 전에 먹어버렸다. 한국요리는 야채가 많다. 나는 거의 다 먹어버리지만, 어느 식당에서도 남기는 음식이 상당히 많다. 배가 부를 만큼 많이 나온다고 하는 한국 문화인 것 같지만, 양이 많아서 남기는 경우가 많다. 밥공기를 들고 먹는 것은 거지의 먹는 방법이라고 들은 적이 있다. 뭐, 이것이 문화의 차이다. 그 차이를 좋다 나쁘다 말해도 의미가 없다.

주문한 것은 「오삼 불고기」。앞에 있는 빈 접시는 무우 김치. 사진 찍기 전에 먹어버렸다. 한국요리는 야채가 많다. 나는 거의 다 먹어버리지만, 어느 식당에서도 남기는 음식이 상당히 많다. 배가 부를 만큼 많이 나온다고 하는 한국 문화인 것 같지만, 양이 많아서 남기는 경우가 많다. 밥공기를 들고 먹는 것은 거지의 먹는 방법이라고 들은 적이 있다. 뭐, 이것이 문화의 차이다. 그 차이를 좋다 나쁘다 말해도 의미가 없다.

I ordered 'O-Sam Bulgogi' (Squid and pork Bulgogi). The empty plate in front is for daikon kimchi. I had eaten it all before taking the picture. Korean cuisine includes a lot of vegetables. I usually eat most of it, but there's often a lot of leftovers in restaurants. It seems to be part of Korean culture to serve large portions to ensure customers are full, but it's a bit too much. I've been told that holding the rice bowl while eating is considered a beggar's way of eating. Well, that's just a cultural difference. There's no point in judging it as good or bad.

この看板のところに女性が立って通りを眺めていた。



이 간판이 있는 곳에 여성이 서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The woman who was watching the street was standing by this sign.

この日はこれで終わり。

이 날은 이것으로 끝.

That's it for the day.



6月4日(土) 鬱陵島⇒浦項⇒釜山 6월 4일(토) 울릉도⇒포항⇒부산

June 4th (Sat) Ulleungdo⇒Pohang⇒Busan

鬱陵島最終日。今日は11時から独島博物館の館長李承鎮さんとお茶。その前後は乗船までフリー。いつものように港へ行って被写体を探した。明らかに外国人労働者と見える人が働いていた。しばらく眺めて写真を撮らせてくれと頼んだ。

울릉도 마지막 날. 오늘은 11 시부터 독도 박물관의 관장 이승진 선생님과 차. 그 전후는 승선까지 자유. 여느 때처럼 항구에 가서 피사체를 찾았다. 분명하게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한참 바라보다 사진을 찍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The last day of Ulleungdo. Today, I will have tea with Director Lee Seung-jin of the Dokdo Museum at 11 AM. Before and after that, I'm free until the boat departs. As usual, I went to the port to look for subjects to photograph. There were clearly appearing foreign workers working there. After observing for a while, I asked them if I could take their photos.



右の写真の彼が言うにはチモールから来たらしく、韓国に来て4年、鬱陵島に来て2ヶ月という。

오른쪽 사진 속 그가 말하길 치모르로부터 온듯, 한국에 와서 4년, 울릉도에 와서 2개월이라고 한다.



The guy in the photo on the right said he came from Timor. He has been

in Korea for 4 years and on Ulleungdo for 2 months.

夜中に仕事をして港に戻ってきた船員たちの朝食が始まった。9 時くらいである。NHK の「サラメシ (サラリーマンの昼飯)」ではないが、港の市場で皆で食べていた。写真を撮らせてくれと頼むと大きな声で断られた。何と言われたかわからない。しかし、その内の一人は OK を出した。外国人労働者を使っていた船長だ。



한밤중에 일을 하고 항구로 돌아온 선원들의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다. 9 시 정도이다. NHK 의 「사라메시 (샐러리맨의 점심)」는 아니지만, 항구의 시장에서 모두 같이 먹고 있었다. 사진 찍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큰 소리로 거절 당했다. 뭐라고 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중의 한 명은 OK 라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던 선장이다.

The fishing crew members, who had been working through the night, started having breakfast when they returned to the port. It was around 9 AM. It wasn't like NHK's Sarameshi (Salarymen's Lunch), but they were eating together at the port market. When I asked a man if I could take a photo, I was loudly refused. I didn't understand what was said. However, one of them, the captain who employed foreign workers, gave me permission.

港の広場の周辺には飲み物等を売る「屋台」がいくつかある。その内の一軒のマダム、気さくでひょうきんな女性であった。そして男性が二人、港を眺めていた。二人の写真を撮らせてもらって、しばらくしてその内の一人が近づいてきた。日本語が話せた。高判載さん、90 歳。全羅南道の小学校に通





っていたというようなことを懐かしそうに話した。話が終わるとバイクで颯爽とどこかに消えた。

항구의 광장의 주변에는 음료등을 파는 「포장마차」가 몇개인가 있다. 그 중의 한 집 마담은, 상냥하고 익살스러운 여성이었다. 그리고 남성이 두 명, 항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명의 사진을 찍고, 잠시 후 그 중의 한 명이 다가왔다. 일본어를 할 줄 알았다. 고판재 선생님, 90 세. 전라남도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그리운 듯이 회상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오토바이로 멋있게 어딘 가에 사라졌다.

Around the square at the port, there were several stalls selling drinks and such. One of the stall ladies was a friendly and humorous woman. There were two men watching the port. After taking photos of the two, one of them approached me after a while. He could speak Japanese. Mr. Ko Banzai, 90 years old. He nostalgically talked about attending elementary school in Jeollanamdo. When the conversation ended, he vanished into the street with elegance on his motorcycle.

しばしば出かけた釜山でもそうであったが、日韓併合中に日本人と関わりのあった韓国の人々は日本人に対して何かしらの懐かしさを感じているように思う。そのような人ばかりが私に接近してくるのかも知れないが、私の経験では日本との関わりを懐かしがる人ばかりだ。もちろん、これらの人々が日本を懐かしがっていても日本の帝国主義的支配を肯定している訳ではないと思う。私が知っている人で日本帝国主義を肯定した人が一人だけいた。

자주 나간 부산에서도 그랬지만, 한일 합방 중에 일본인과 관계가 있던 한국의 사람들은 일본인에 대해서 뭔가의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 그러한 사람만이 나에게 접근해 오는지도 모르지만, 나의 경험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그리워하는 사람 뿐이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이 일본을 그리워하고 있어도 일본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긍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긍정한 사람이 한 명만 있었다.

It was the same in Busan, where I often went, Koreans who had contact with Japanese people in Korea under colonial rule seem to feel a certain sense of nostalgia for them. Maybe only such people approach me, but in my experience, everyone I've met reminisces about their connections with Japan. Of course, even if these people feel nostalgic about Japan, it doesn't mean they endorse Japan's imperialist rule. Out of the people I know,

there was only one who affirmed Japanese imperialism.

11 時までにはまだ時間がある。少し町を歩いた。やっぱり島は狭い。高低差があり、道いっぱいに車が走る。

11 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조금 마을을 걸었다. 역시 섬은 좁다. 높낮이 차이가 있고, 길 가득 차가 달린다.



There was still time before 11 AM, so I took a walk around town. As expected, the island is small. There are height differences, and cars fill the roads.

10 時 50 分頃にホテルに戻った。ホテルの主人が先生に電話してくれた。もう近くに来ていているという身振り。すぐに来た。先生は日本語ができる。喫茶店にでも行きましょうということになって、ここで唯一かどうか知らないが喫茶店に入った。



10 시 50 분 무렵에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의 주인이 선생님에게 전화해주었다. 이미 근처에 와있다고 하는 몸짓. 곧바로 왔다. 선생님은 일본어를 할 수 있다. 찾집에라도 갑시다 라고 되어, 이곳에서 유일한지 모르지만 찾집에 들어갔다.

Around 10:50 AM, I returned to the hotel. The hotel owner called the teacher for me. He gestured that he was already nearby, and he arrived shortly. He speaks Japanese. We decided to go to a café, and we entered what might be the only café around here.

李先生は気さくな人だ。独島博物館の館長だからそれなりの堅物を想像していたが、そうではなかった。だって、自分と会うために時間を取ること自体がその現れだと思う。もう数十年前のことだが、大阪の吹田市にある国立民族学博物館に2年間留学していたという。それで日本語ができるし、日本人にフレンドリーなのだと思った。人類学博士。専門は「焼畑」。ずいぶんマ

イナーな分野だ。それで独島博物館館長。釜山出身だそうだ。

이 선생님은 상냥한 사람이다. 독도 박물관의 관장이니까 그 나름대로 강직한 사람으로 상상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와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주는 것 자체가 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벌써 수십년 전에 일이지만, 오사카의 스이타시 (吹田市)에 있는 국립 민족학 박물관에 2 년간 유학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어를 할 수 있고, 일본인에게 친절하다고 생각했다. 인류학 박사. 전문 은 「화전」. 대단히 마이너 분야다. 지금은 독도 박물관 관장. 부산 출신이라고 한다.

Teacher Lee is a friendly person. Since he is the director of the Dokdo Museum, I had imagined him to be somewhat strict, but that was not the case. The fact that he took the time to meet with me is a testament to that. It was decades ago, but he said he studied for two years at the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in Suita, Osaka. That's why he can speak Japanese and is friendly towards Japanese people. He has a Ph.D. in anthropology, with a specialization in 'slash-and-burn agriculture,' a lesser known area of study. And now he is the director of the Dokdo Museum. He said he is originally from Busan.

フェリーターミナルでどうして自分に声をかけてきたかも聞いた。先生は「偶然だ」と応えた。浦項で乗船券を購入する際、係員から、あの日本人がどうして鬱陵島に行くのか聞いてほしい、と依頼されたとのこと。私が乗船券を購入した後、たまたま日本語を話せる先生が発券窓口に来て、あの日本人だ、と係員から依頼されたらしい。日本人が鬱陵島に行くことに対して韓国側が神経をとがらしていることの現れだ。それはもちろん独島問題があるからだろう。

페리 터미널에서 어쨌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 왔는지도 물었다. 선생님은 「우연이다」라고 대답했다. 포항에서 승선권을 구입할 때, 터미널 직원에게서, 그 일본인이 어쨌서 울릉도에 가는지 물어 보세요, 라고 부탁 받았다는 것. 내가 승선권을 구입한 후, 우연히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발권 창구에 와서, 그 일본인이다, 라고 직원로부터 부탁 받은 것 같다. 일본인이 울릉도에 가는 것에 대해 한국측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증거다. 그것은 물론 독도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I also asked why he approached me in ferry terminal. He responded, 'It was a coincidence.' After I bought the ferry ticket, the terminal staff asked he to find out why that Japanese person was going to Ulleungdo. He

happened to speak Japanese and came to the ticket window, and the staff asked him about me. This shows how sensitive the Korean side is about Japanese people visiting Ulleungdo. Of course, this is likely due to the Dokdo issue.

先生と独島の話はしなかった。独島の議論をするために鬱陵島に来たわけではないし、話をしても情報の少ない自分が負けるに決まっている。この種の問題は歴史的経過をしっかりと把握しておかないとまともな議論はできない。さもないければ、偏った情報で、ただ自分のものだと言い張るだけで、感情的な疲労感の残る言い争いとなる。いずれにしても、先生と話しをして感情的なものは感じなかった。

선생님과 독도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독도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 울릉도에 온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해도 정보가 적은 내가 지게 마련이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역사적 경과를 확실히 파악해 두지 않으면 제대로 된 논의는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치우친 정보로, 단지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것만으로, 감정적인 피로감이 남는 연쟁이 된다. 어쨌든, 선생님과 이야기해 감정적인 것은 느끼지 않았다.

I didn't discuss Dokdo with the teacher. I didn't come to Ulleungdo to debate Dokdo, and I knew I would lose the argument due to my lack of information. To have a proper debate on such issues, one needs to hav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historical processes. Otherwise, it just turns into an emotionally draining argument where both sides insist on their claims based on biased information. In any case, I didn't feel any emotional tension while talking to the teacher.

11時30分くらいに先生と別れて港に戻った。港は人と車でごった返していた。緑色のユニフォームを来た女性たちが何やら料理を作っていた。そしてそれを待つ列もあった。横断幕には「鬱陵島郷土ナムル試食会 主管：鬱





陵島セマウル婦女会」とあった。ということは、自分もこの列に並べただけで昼飯が食えたわけだ。横断幕の意味は帰国後辞書を引いてわかったことだから、もう手遅れだ。

11 시 30 분정도 선생님과 헤어지고 항구로 되돌아갔다.

항구는 사람과 차로 붐비고 있었다. 녹색의 유니폼을 온 여성들이 무엇인가 요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행렬도 있었다. 횡단막에는 「울릉도 향토나물 시식회 주관 : 울릉도 새마을 부녀회」라고 있었다. 즉, 자신도 이 열에 줄서면 공짜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횡단막의 의미는 귀국후 사전을 찾아서 알았기 때문에 이미 늦어버렸다.

I parted ways with the teacher around 11:30 and returned to the port. The port was bustling with people and cars. Women in green uniforms were cooking something, and there was a line waiting for it. The banner read, "Ulleungdo Local Namul Tasting Event, Sponsored by: Ulleungdo Saemaul Women's Association." This meant that if I had joined the line, I could have had lunch for free. However, I only understood the meaning of the banner after looking it up in a dictionary upon returning to my country, so it was too late.



船から下りたお客を町が吸い込んでゆく。

배로부터 나온 손님을 마을이 빨아들여 간다.

The town absorbs the passengers disembarking from the ferry.

さあ、昼飯にしよう。道洞の港から坂道を登って入りやすい食堂を探した。ハングルが読めないから、食堂を探す基準は美味そうなものがあるかどうかというよりは、むしろ、店先に料理の写真を掲示しているとか、客が少ないとか、店の人から声を掛けられたとか、店の中が見えるとか、そんなものだ。それで客の少ない店があった。

자, 점심을 먹자. 도동의 항구에서 비탈길을 올라 들어가기 쉬운 식당을 찾았다. 한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식당을 찾는 기준은 맛있을 것 같은 것이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점포 앞에 요리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든가, 손님이 적다든가, 가게의 사람이 말을 걸어왔는가 듣다, 가게 안이 보인다든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손님이 적은 가게가 있었다.

Now, it's time for lunch. From the Dodong port, I walked up the hill looking for a restaurant that was easy to enter. Since I can't read Hangul, my criteria for choosing a restaurant were not so much about whether the food looked good, but rather things like whether there were pictures of the dishes displayed outside, whether there were few customers, whether the staff called out to me, or whether I could see inside the restaurant. So, I found a place that had few customers.

入って、よく読めないが壁に貼られたメニュー見ていたら、女性従業員が、これはどうですかと言ったかどうか、話しかけてきた。よく分からなく、ちょっとやりとりしていたら横から「さしみどんぶり」と声が入った。その店の主人のようだ。회덮밥だった。日本語を聞いて安心して、中身は分からないけどそれを注文した。



들어가서, 잘 읽을 수 없지만 벽에 붙여진 메뉴 보고 있으니, 여성 종업원이, 이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는지, 말을 건네 왔다. 잘 몰라서, 조금 이야기를 주 받고 있자니 옆에서 「사시미 돈부리」이라는 일본어로 소리가 들렸다. 그 가게의 주인 같다. 회 덮밥 이었다. 일본어를 들어 안심하고, 내용은 모르지만 그것을 주문했다.

When I entered and was looking at the menu on the wall, which I couldn't really read, a female employee approached me and said something like 'How about this?' I couldn't understand well, and while we were speaking a bit, a voice from the side said 'sashimi donburi.' It seemed to be the owner of the restaurant. It was 회덮밥 (Hoe Deopbap). Hearing Japanese reassured me, so even though I didn't know what it was, I ordered it.

日本の海鮮どんぶりと違って、ご飯と海鮮は別の器だ。多分ご飯をどんぶりに入れてぐるぐる混ぜてビビンパのようにして食べるのかも知れない。自分は混ぜ混ぜしたくなかったのでご飯はご飯、海鮮は海鮮で混ぜずに食べた。魚の名前は分からないが、白身の刺身でおいしかった。

일본의 해산물 덮밥과 달리, 밥과 해산물은 다른 그릇이다. 아마 밥을 덮밥에 넣어 빙빙 섞어서 비빔밥처럼 해서 먹을지도 모르다. 나는 섞어서 먹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밥은 밥, 해산물을 해산물로 비비지 않고 먹었다. 물고기의 이름은 모르지만, 흰 살 생선회로 맛있었다.

Unlike Japanese seafood bowls, the rice and seafood were in separate bowls. Maybe it's supposed to put the rice in the bowl and mix it all up like bibimbap. Since I didn't want to mix it, I ate the rice and seafood separately. I don't know the name of the fish, but the white fish sashimi was delicious.

食べ終わって、お金を払って、ご主人に向かって「タンシネ サジヌル チゴド チョウスムニカ」と言うと、OKが出た。その時、横にいた客がハッ、ハッ、ハッと声を出して笑った。きっと私の韓国語の発音がおかしかったのだろう。ついでにその客の写真も撮った。彼の帽子のフロントロゴには「DOKDO」とあった。やっぱりここは「独島」の最前線なのだ。

다 먹고, 돈을 지불하고, 주인을 향해 「당신의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까」라고 말하자, OK 가 나왔다. 그 때, 옆에 있던 손님이 헉, 헉, 헉 소리를 내며 웃었다. 틀림없이 나의 한국어의 발음이 이상했을 것이다. 하는 김에 그 손님의 사진도 찍었다. 그의 모자 앞 로고에는 DOKDO 라고 적혀 있었다. 역시 여기는 「독도」의 최전선이다.

After finishing my meal and paying, I asked the owner, 'Can I take a



店の主人 가게의 주인 The store owner.  
「DOKDO」の帽子をかぶった青年。「DOKDO」의 모자를 쓴 청년.  
The young man wearing a 'DOKDO' cap



picture of you?' and he said OK. At that moment, a customer next to me laughed, 'Ha, ha, ha.' I must have pronounced my Korean poorly. I also took a picture of him. The front logo of his cap was 'DOKDO'. This really is the frontline of Dokdo.

昼食後、預けていたリュックを取りにホテルに戻った。経営者夫妻の写真を撮り、再び 10 数 kg の荷物を担いでフェリーターミナルへ向かった。リュックをターミナルの待合室の椅子において、乗船までしばしの間付近の写真を撮った。フェリーに乗るとまたあの開かずの間だ。



점심 식사 후, 말기고 있던 배낭을 찾으려고 호텔로 돌아왔다. 경영자 부부의 사진을 찍고, 다시 10 수 kg 의 짐을 메고 페리 터미널로 향했다. 배낭을 터미널의 대합실 의자에 놓고, 승선까지 잠깐 사이 부근 사진을 찍었다. 페리를 타면 또 그 폐쇄 공간이다.



After lunch, I went back to the hotel to retrieve my backpack. I took a photo of the owner couple and then, once again, carried my more-than-10-kilogram backpack to the ferry terminal. I left it on a chair in the terminal's waiting room and took some photos nearby while waiting to board. Once I got on the ferry, that closed room is waiting.



今回滞在したのは道洞だけだったが、反日感情に触れることもなく平和であった。インターネット上には嫌韓的な鬱陵島訪問記があったが、

思うに、嫌韓感情と反日感情は作用と反作用の関係ではないか。嫌韓感情の強い人はその人が感じる反日感情もきっと強いことだろう。逆も同じだろうと思う。



이번 체재한 것은 도동 뿐이었지만, 반일 감정에 접할 것도 없고 평화로웠다. 인터넷상에는 혐한적인 울릉도 방문기가 있었지만, 생각컨대, 혐한감과 반일 감정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가 아닌가. 혐한감정의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이 느끼는 반일 감정도 아마 강할 거야. 반대로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During this stay, I only visited Dodong, but I didn't encounter any anti-Japanese sentiment and it was peaceful. There are anti-Korean travelogues about Ulleungdo on the internet, but I think anti-Korean and anti-Japanese sentiments are like action and reaction. People with strong anti-Korean feelings probably also tend to perceive strong anti-Japanese feelings. I believe the reverse is also true.

フェリーの中では何やら「喧嘩」のような女性の大声。まだ出港前である。座席を巡るトラブルのようだった。座席にはもちろん番号が打ってあるが、座ると前の席の番号が目前にある。乗船券の番号と目の前に見える番号が同じであれば、それは一つ後ろの席に座っていることになる。そんなトラブルではなかったかと思う。船員が来て何か言っていた。

페리 안에서는 무엇인가 「싸움」과 같은 여성의 큰 소리. 아직 출항전이다. 좌석을 둘러싼 트러블 같았다. 좌석에는 물론 번호가 붙어 있지만, 앉으면 앞 자리의 번호가 바로 앞에 있다. 승선권의 번호와 눈앞에 보이는 번호가 같으면, 그것은 하나 뒤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 그런 트러블은 아니었는가 하고 생각한다. 선원이 와서 무엇인가 말하고 있었다.

On the ferry, there was a woman loudly shouting, sounding like an argument. This was still before departure. It seemed to be a dispute over seats. While the seats do have numbers on them, when you sit down, the number of the seat in front of you is right in front of your eyes. If the ticket number matches the number on the seat in front of you, you are likely sitting one row too far back. I think that was the issue. A crew member came and said something.

もう一つ、出港後、通路に座り込んで花札をやっていたグループがあった。これも女性。脇にお金があったから掛けているのかも知れない。中国ではしばしばこのような光景を見たが韓国では見たことがなかった。賭博は許されているのかしら。若い人はスマホをいじっている人が多かった。窓のない「一

般席」の我々は3時間と少しの時間をもてあます。

하나 더, 출항 후, 통로에 눌러 앉아 화투를 치고 있던 그룹이 있었다. 이것도 여성. 옆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내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다. 중국에서는 자주 이러한 광경을 보았지만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었다. 도박은 허락되고 있는 것일까. 젊은 사람은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창이 없는「일반석」의 우리는 3 시간과 조금의 시간을 주체 못하다.

Another thing: after departure, there was a group of women sitting in the aisle playing hanafuda. There was money beside them, so they might have been gambling. I often saw this kind of scene in China, but I had never seen it in Korea. I wonder if gambling is allowed. Many young people were fiddling with their smartphones. Those of us in the 'general seats' without windows had to kill more than three hours.

浦項には6時頃到着した。フェリーを下りると出口の方からテグ、テグ、と言うような声が聞こえてきた。乗り合いタクシーの呼び込みだ。この種のタクシーは安くならないことがある。料金が日本のように割り勘にならないのだ。運転手だけが効率的に儲ける。だから呼び込みをやっているのだと思う。私はターミナルに客を送ってきた一般タクシーをつかまえてバスターミナルまで行った。W7400。

포항에는 6 시경 도착했다. 페리에서 내리자 출구 쪽에서 대구, 대구 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합승 택시의 호객이다. 이런 종류의 택시는 싸지지 않다. 요금이 일본과 같이 와리짱이 되지 않는 것이다. 운전기사만이 효율적으로 돈을 번다. 그러니까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터미널에 손님을 배웅하고 온 일반 택시를 잡아 버스 터미널까지 갔다. W7400.

We arrived in Pohang around 6 PM. As we got off the ferry, I heard voices like "Daegu, Daegu" from the exit. They were trying to get people to share a taxi. These shared taxis do not become cheaper. The fare isn't split like in Japan; the driver just makes more money efficiently. That's why they do it. I grabbed a regular taxi that had brought someone to the terminal and went to the bus terminal. It cost W7400.

浦項發 6 時 37 分。釜山の老圃についたのは 8 時。約 1 時間 20 分のバス移動。バスに乗るとき「プサン？」と運転手に聞いたが運転手は見向きもせず黙

ってスマホで将棋ゲームをしていた。私は一番前の席に座ったが、他の韓国人の客が私と同様なことを聞いてもやはり返事をせず、出発直前まで運転席で将棋をしていた。

포항발 6 시 37 분. 부산의 노포에 도착 한것은 8 시. 약 1 시간 20 분의 버스 이동. 버스를 탈 때 「부산?」 이라고 운전기사에 물었지만 운전기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입다물고 스마트폰으로 장기게임을 하고 있었다. 나는 제일 앞 자리에 앉았지만, 다른 한국인 손님이 나와 같은 말을 물어도 역시 대답을 하지 않고, 출발 직전까지 운전석에서 장기게임을 하고 있었다.

Departed from Pohang at 6:37 PM. Arrived at Busan's Nopo at 8 PM. About 1 hour and 20 minutes by bus. When I got on the bus, I asked the driver 'Busan?' but he ignored me and kept playing a shogi game on his smartphone. I sat in the front seat, and even when other Korean passengers asked similar questions, he remained silent, immersed in a shogi game on his smartphone until departure.

釜山駅近くの釜山インモテルにチェックインしたのは夜の 9 時頃。部屋はまあまあだったがバスタブがなくシャワーだけだった。寒くはなかったのでまあいいとした。

부산역 가까이의 부산 인 모텔에 체크인 한 것은 밤 9 시경. 방은 그저 그랬지만 욕조가 없고 샤워 뿐이었다. 출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팬찮다고 했다.

I checked in at the Busan Inn Motel near Busan Station around 9 PM. The room was okay, but it only had a shower, no bathtub. Since it wasn't cold, I didn't mind.

夕食のために外に出た。モテルの近くに「浦項料理」と書いてあったと思うが、一軒の食堂があった。特に行く当てはなかったのでそこに入った。そしたらまた「刺身どんぶり」のメニューがあったのでそれを注文した。ここのは鬱陵島のに比べて甘かった。この店は伝票にも値段が書いてあって明朗会計だった。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밖에



나왔다. 모텔의 근처에 「포항 요리」라고 써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한 채의 식당이 있었다. 특별히 갈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또 「생선회 덮밥」의 메뉴가 있었으므로 그것을 주문했다. 여기의 것은 울릉도의 것에 비해 달았다. 이 가게는 전표에도 가격이 써 있어 명랑 회계였다.

I went out for dinner. Near the motel, there was a restaurant that I think had 'Pohang Cuisine' written on it. I didn't have any particular destination in mind, so I went in. They also had sashimi bowls on the menu, so I ordered one. Compared to the one on Ulleungdo, this one was sweeter. The bill in this restaurant clearly displayed the prices, so the accounting was transparent.

翌 6 月 5 日 (日) 6 日 (月) 7 日 (火) は凡一の平和市場に行ったり知人と会って過ごした。7 日の午後帰国した。

다음 6 월 5 일(일) 6 일(월) 7 일(화)은 범일 평화시장에 가거나 지인들도 만나며 지냈다. 7 일 오후 귀국했다.

On June 5th (Sunday), 6th (Monday), and 7th (Tuesday), I spent time visiting the Beomil Peace Market and meeting acquaintances. I returned home in the afternoon on the 7th.

**6月5日(日) 遊覧船乗り場、凡一自由市場**  
**6월 5일(일) 유람선 선착장, 범일 자유 시장**  
**June 5th (Sun) Sightseeing ship terminal, Beom il free market**

この日は一日中フリー。誰とも約束がなかった。朝、金永大さんに電話した。3回目くらいにやっと出た。えらく咳き込んでゆっくり話ができる状態ではなかった。それで、また後で電話しますと言って取りあえず電話を切った。その後、朴相祚さんに電話し、永大さんを見舞いたいがどこに行けばよいかと尋ねた。相祚さんが永大さんと相談してくれ、明日 12 時に地下鉄の温泉場で会うことになった。

이날은 하루 종일 자유시간. 아무런 약속이 없었다. 아침에 김영대씨에게 전화했더니 세 번째 벨에 받았다. 기침이 심하여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다. 박상조씨에게 전화해서 영대씨 문병을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을지 물었다. 상조씨가 영대씨와 의논해서 내일 12 시에 지하철 온천장에서 만나기로 했다.

This day I was free all day long. I had no schedule. In the morning I called Mr. Kim Yeongdae. He finally answered around the third ring. He coughed very heavily, and so I could not take time to talk with him, saying that I called you later and put off for the time being. After that, I called Mr. Park Sangjo to consult that I would like to inquire after Mr. Yeongdae and where I should go. Mr. Sangjo talked with Mr. Yeongdae, and it became that we were going to meet at the Oncheonjang station on the subway at 12 o'clock.

次は何をしよう。地図を見る。前から場所を確かめたいと思っていた遊覧船乗り場に行ってみることにした。地下鉄南浦で下りて地下街をそれらしい方向に歩き、そろそろ遊覧船乗り場近くかなというような場所で地下街の店の人に遊覧船乗り場はどこかと尋ねた。その人はよく知らなかったようで隣の店の人に何か話していた。二人でボソボソ話していたが、黙って首を横に振るだけ。仕方ない、上に上がった。それらしい方向へ歩いて行くとそれらしい建物があった。でも、乗船客らしい人は一人もいなく、ターミナルの入り口も施錠されていた。ターミナルの周辺は閑散としていて人影はなかった。遊覧船は営業していないと思った。

다음은 무엇을 할까 하고 지도를 보다가 전부터 장소를 확인하고 싶었던 유람선 승선장에 가 보기로 했다. 지하철 남포역에서 내려 승선장으로 추정되는 방향으로 지하상가를 건다가 그 근처일 것 같은 곳에서 지하상가의 점원에게 유람선 타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 사람은 잘 모르는 듯 옆 가게 사람에게 뭔가 얘기를 했다. 둘이서 얘기를 나누더니 말없이 머리를 흔들었다.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갔다. 승선장 방향일 것 같은 쪽으로 건다 보니 그럴싸한 건물이 있었다. 그런데 승선객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터미널 입구도 잠겨 있었다. 터미널 주변은 한산했고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유람선은 영업하지 않는 것 같았다.

Well, what should I do next? I saw a map, and I decided to go to a sightseeing ship harbor where I wanted to confirm its location from before. I got out at the subway Nampo station and walked to look like such direction in the underground shopping area, and asked a shop person where the harbor was. He seemed not to know and he spoke something with the person at the next shop. They whispered to each other, and only shook their head right and left silently to me. I had no way, I went up on the ground. I walked to such a like direction, and found a building that looked like it. But there were no persons that looked like passengers, and also the entrance door was locked. Around the terminal was quiet and no person. I thought the sightseeing ship was not in service.



沿岸旅客ターミナル

연안 여객 터미널

Coastal passenger terminal

さて次はどこへ行こうと地図をまた広げた。地下鉄凡一駅近くに自由市場というのがあった。ここも前から行ってみようと思っていたところだった。そこに行くことにした。

이제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 하고 다시 지도를 펼쳤다. 지하철 범일역 근처에 자유시장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 그곳에 가기로 했다.

Well and, thinking where I would go next, I opened a map. There was a place named “Free market” near the subway Beomil station. Also here was a place I wanted to go. I decided to go there.

ターミナルから地下鉄中央駅 10 番入り口に行く途中、朝鮮通信使の行列が描かれた（釜山税関の）塀がある。この塀画を見ると思い出すことがある。2011 年 4 月 29 日、一枚のビラを手に釜山港に降り立ち、地下鉄中央駅を目指した。右も左も分からずこの塀沿いに不安げに歩いていた。向こうから中年男性が歩いてきた。チハ Chol? とやったかどうか覚えていないが、地下鉄の入り口を尋ねた。あっち。反対方向に歩いていた。その後二年近く経過して「文集 私の韓国、私の日本」が日の目を見た。

터미널에서 지하철 중앙역 10 번 입구로 가는 도중에 조선통신사 행렬이 그려진 (부산 세관의) 담장이 있다. 이 담장의 그림을 보면 생각나는 일이 있다. 2011 년 4 월 29 일, 한 장의 전단지를 손에 들고 부산항에서 내려 지하철 중앙역으로 향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 담장을 따라서 불안스럽게 걷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중년 남성이 걸어왔다. 지하철? 이라고 했는지 어쨌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하철 입구를 물었더니 ‘저쪽’이라고 했다.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2 년 정도 지나서 「문집 나의 한국, 나의 일본」이 햇빛을 보게 되었다.

On the way to the subway 10th entrance from the terminal, there is a (custom house) wall painted with a cavalcade of the Korean Emissary. I remind a scene to see this. On the 29th of April, 2011, having a circular I reached to Busan Harbor, and I walked toward the subway 10th entrance of Jungang station. Not knowing around this area at all, I was walking anxiously beside this wall. A middle aged man came from the front. I did not remember to say “Subway?” or not, but I asked him the entrance of the subway. That way. I was walking the opposite direction. About two years later from this “The collection of compositions ; My Korea, My Japan” was published.



塀に描かれた朝鮮通信使の絵  
담장에 그려진 조선 통신사의 그림  
The picture of the Korean Emissary  
on the wall.



文集 私の韓国、私の日本  
문집 나의 한국, 나의 일본

The collection of composition ;My Korea, My Japan

日本の旅行ガイドブックに依れば、釜山の地下鉄 1 号線凡一駅の上に平和市場と自由市場がある。「自由」だとか「平和」だとかいう名前の由来は、戦後日本の支配から解放されて自由になった人々が平和な国家の復興を目指してこの地域に集まったことによるのだろうか。それとも、考え過ぎか。

日本の 여행 가이드북에 의하면 부산 지하철 1 호선 범일역의 위에 평화시장과 자유시장이 있다. "자유"나 "평화"라는 이름은 전후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평화로운 국가의 부흥을 지향하며 이곳에 모였던 것에서 유래한 것은 아닐까. 지나친 생각 일까?

According to a Japanese travel guide book, there are Free Market and Peace Market on the subway Beomil station, in Busan. Might the words named "Free" or "Peace" originate from that people "freed" from Japanese rule after the Second War had gathered this area and aimed to establish "peaceful" nation? Or was this an over thinking?





露店ではなく店先でうまそうな豚の足や鶏肉を売っているところがあった。このような風景は日本人の私には珍しかった。ともあれ、昼飯は露店街の一角で豚の肉が入ったものを食べた。名前は知らない、別の客が食べているのを見て、あれ、と指さして注文。

노점이 아닌 점포 앞에서 먹음직스러운 족발과 닭고기를 파는 곳이 있었다. 이런 풍경은 일본인인 내게는 신기했다. 어쨌든 점심은 노점거리에서 돼지고기가 들어간 것을 먹었다. 이름은 모르지만 다른 손님이 먹는 것을 보고 따라서 주문했다.

There were places selling savory pork legs and chicken meat at shops rather than stalls. Such a scenery was rare for me of Japanese. Anyhow, I had a dish with pork in it for lunch at a restaurant on the stall street. I did not know what name it was. I saw another customer eating, and ordered it pointing like "that".

これまで韓国を何度も旅したが、人の集まるところには大体こんな感じの屋台がある。旨そうなものがいっぱい並んでいる。食べたいものばかりだ。でも、七十歳近くになった自分には少しきつい感じのものも多い。

지금까지 한국을 여러 번 여행했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대체로 이런 느낌의 포장마차가 있다. 먹음직스러운 것이 가득 진열되어 있다. 먹고 싶은 것뿐이지만 칠십이 가까운 내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많다.

I have already been to Korea many times, I found like this street stalls that tend to gather people. They serve many delicious things to eat. I would like to eat them all, but many of them are a bit too rich for someone nearly 70 like me.

歩き疲れて帰ろうと思ったが地下鉄の入り口が分からなくなった。それで通りがかりのご婦人に尋ねた。親切に教えてくれたが、これがまた日本語が通じ、大阪で生まれたという人だった。ブサンでちょっと年配の人に話しかけると日本で生まれたとか仕事をしたとかいう人にしばしば出会う。そして、大体決まってその経験を懐かしそうに話す。



걸다가 지쳐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지하철 입구를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연히 지나가던 아주머니께 여쭙었더니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오사카에서 태어났다는 사람인데 일본어로 통했다. 부산에서는 조금 연배가 되는 사람에게 말을 걸면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일을 했다는 사람을 종종 만난다. 그리고 대부분 그 경험을 그리운 듯이 얘기한다.

I was tired for walking and wanted to go back, but did not know the entrance of the subway. So I asked a lady walking toward me about it. She kindly showed me the way, and to my surprise, she spoke Japanese and told me she was born in Osaka. In Busan I have often met Koreans who were born or had experiences of work in Japan. And they talk almost always their experiences longingly.

KR釜山駅前に戻ってきた。駅前広場には噴水がある。水と戯れる人も多い。

KR 부산역으로 돌아왔다. 역광장에는 분수가 있는데 분수에서 놀며 물장난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I returned to the front of the KR Busan station. There is a jet of



water in the square of the station. Many people were playing with the fountain water.

さて、この日はどこで夕食したか思い出せない。写真がない。

이날은 어디에서 저녁을 먹었는지 사진이 없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By the way, I cannot remember where I took a supper. I don't have any photos to remind me.



6月6日(月) 釜山の友人 6월 6일(월) 부산 친구  
June 6th (Mon) Friends in Busan

朝の8時半頃崔貞美さんから電話が入った。昨日連絡を待っていたよ、今日の予定はと聞くので12時から朴相祚さんと金永大さんに温泉場で会うことになっていると伝える。友達が来ているから来ないかという。12時まで時間はあるし行くことにした。

아침 8 시반경 최정미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제 연락을 기다렸다면 오늘 일정을 물었다. 12 시부터 박상조씨, 김영대씨와 온천장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더니 친구가 와있는데 오지 않겠냐고 해서 12 시까지 시간이 있어서 가기로 했다.

I received a call from Ms. Choi Jeong-mi at about 8 o'clock in the morning. She said that she was waiting for me yesterday, and asked if I had scheduled this day. I answered that I was going to meet Mr. Bagsangjo and Mr. Geumyeongdae at 12 o'clock in Oncheonjang. I had a time till 12 o'clock, and so I decided to go.

地下鉄釜山駅で乗り場を間違えた。逆方向の乗り場に入った。たまたま近くにいた案内ボランティアの人に間違えたと伝えると、「非常」ゲートを明けて出してくれた。

지하철 부산역에서 승강장을 잘못 찾아 반대 쪽 승강장으로 들어갔다. 마침 근처에 있던 안내 자원봉사자에게 잘못 들어왔다고 말하자 "비상문"을 열어서 내보내 주었다.

I entered into a wrong platform at the subway Busan station. It was an opposite direction. I gestured for mistake to a guide volunteer who was accidentally near me. She kindly opened the "emergency" gate to let me out.

南浦洞で下り光復路を通って交番のある三叉路を山手の方へ歩いた。釜山近代歴史館の前の大庁路を渡って左に歩き、この辺りかな思っていたところへ雨傘をさした金哲宇さんと会った。迎えに出てくれていたのだ。崔さんのお宅はもう少し先だった。

남포동에서 내려 광복로를 지나 파출소 삼거리에서 산 쪽으로 걸었다. 부산근대역사관 앞에서 대청로를 건너 왼쪽으로 가다가 이 근처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우산을 쓰고 마중 나온 김철우씨를 만났다. 최씨 덕은 조금 더 앞에 있었다.

Getting off at NampoDong, and walking through the Gwngbok-ro street, I turned to the uptown on the junction of three roads where there was a police box. In front of the Busan Modern History Museum I crossed the Daecheong-ro road and turned to the left. Thinking it around here, then I met Mr. Kim Cheol U putting up an umbrella. He came out to meet me. Choi's house was a little further ahead.

崔さんの家に行くと見知らぬ男女が二人。光州 KJ クラブの会長회장具書昌 구서창さん 90 歳、総務총무全恵子전혜자さん 81 歳だった。遅れて金仁熙さんが来た。しばらく歓談していると朴相祚さんから電話が入った。金永大さんが出てこれないという。相祚さんも貞美さんの家に来ることになった。

최씨 집에 가니 낯선 남녀 두 사람이 있었다. 광주 KJ 클럽 회장 구서창씨 (90 세), 총무 전혜자씨 (81 세)였다. 조금 늦게 김인희씨가 왔다. 잠시 환담을 나누고 있는데 박상조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영대씨가 못 오게 되어 상조씨도 정미씨 집에 오기로 했다.

There were a man and a woman who I did not know in the Choi's house. They were Mr. Gu Seochang, the president of Gwangju KJ Club, 90 years old and Ms. Jeon hyeja, the director, 81 years old. A little later Mr. Kim Inhee came. After a while we were talking each other, I was called from Mr. Bag Sangjo. He said that Mr. Kim Yeongdae could not come out. As a result, it became Mr. Sangjo came here.



左から；金仁熙、全恵子、朴相祚、具書昌、崔貞美、金哲宇さん  
 왼쪽에서；김인희, 전혜자, 박상조, 구서창, 최정미, 김철우

From the left ; Kim Inhee, Jeon hyeja, Park Sangjo, Gu Seochang, Choe Jeongmi, Gim Cheol-u

皆さんと歓談したあと昼食に出かけた。「元祖 한양족발 (漢陽豚足)」という店だった。この豚足、凡一の自由市場で見て、食べたいと思っていたものだった。内心、嬉しかった。この店は行列ができるほどの店だった。

환담을 나눈 후 점심 먹으러 나갔다. “원조 한양족발” 이라는 가게였다. 범일동 자유시장에서 족발을 보고 먹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내심 기뻐했다. 이 가게는 줄을 설 정도의 가게였다.

After talking to each other, we went out for lunch. It was a restaurant of “The originator Han-yang Jogbal”. I wanted to eat the pig’s feet when I saw them in the Beomil free market. I was quietly delighted at the back of my mind. This restaurant was one of those that had customers lining up.



漢陽豚足 (元祖の家) の女将  
한양족발 (원조의 집) 여주인

The landlady of Hanyang Pig Feet (The originator)





食事後皆さんと別れ、相祚さんと二人で永大さんを見舞った。永大さんは釜山海洋自然史博物館横の別宅にいた。話し方は相変わらずだったが体力はずいぶん落ちたように見えた。永大さんは政治家との関わりの深い方で、別宅には元首相の金鍾泌の揮毫が飾られていた。韓国内政のことはよく分からないが、永大さんは戦後韓国復興の一翼を政治家秘書として担っていたようだ。

식사 후 모두와 헤어지고 상조씨와 둘이서 영대씨 문병을 갔다. 영대씨는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 옆의 별장에 있었다. 말투는 여전했지만 체력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았다. 영대씨는 정치인과 관계가 깊은 분으로 별장에는 전 총리 김종필씨의 휘호가 장식되어 있었다. 한국의 내정은 잘 모르지만 영대씨는 정치가의 비서로서 전후 한국 부흥의 일익을 담당했던 것 같다.

After the lunch I visited Mr. Yeongdae with Mr. Sangjo apart from our friends. Mr. Yeongde was in the another residence beside Busan Ocean Natural History Museum. His speaking way was as strong as ever, but his physical strength seemed to have dropped. He is a person of having deep relations with politicians. The writing of the former prime minister of Korea Gim Jong-pil was in his another residence. I do not know the domestic political matters of Korea, he seemed to have supported a part of the reconstruction of Korean after the postwar.

金鍾泌の揮毫  
김종필의 휘호

The calligraphy of Gim Jong-pil



永大さんを見舞った後、相祚さんと別れ、6時に呉真熙さんと会い釜山駅前の外国人街で夕食。餃子と麺を食べる。外国人街では消毒車輛が走っていたのを目撃。最近話題のジカ熱など蚊が媒介する怖い病気がある。釜山では夏場に何度も安ホテルやモテルに泊まったが蚊が出ることはあまりなかった。

영대씨 문병을 한 후 상조씨와 헤어졌다. 6시에 오진희씨와 만나 부산역 앞 외국인 상가에서 저녁식사로 만두와 국수를 먹었다. 외국인 거리에서 소독차량이 달리는 것을 목격했다. 최근 화제가 된 지카바이러스 등 모기가 매개하는 무서운 병이 있다. 부산에서는



여름철에 몇 번 가격이 싼 호텔이나 모텔에 묵었지만 모기가 나온 적은 별로 없었다.

After visiting Mr. Yeongdae, I said good-bye to Mr. Sangjo and at 6 o'clock I met Ms. O Jinhui at the foreigner town in front of Busan Station. There I witnessed a disinfecting car running. There are fearful diseases such as Zika fever in the news recently mediated by mosquitoes. In Busan I had stayed many times at cheap hotels and motels in the summer. But I almost did not experience mosquitoes.

大声で白煙たてて消毒する  
큰 소리로 흰 연기를 내뿜어  
소독하다

Disinfection with loud speaker and  
white smoke





**6月7日(火) 朴清九日本語教室**  
**6월 7일(화) 박 청구 일본어 교실**  
**June 7th (Tus) Park Cheong-gu Japanese class**

9時40分、いつもの地下鉄大峙で清九さんと待ち合わせ。日本語教室は大峙駅から歩いて数分のところにある、日本でいう公民館のようなところで開かれている。

9시 40분. 지하철 대티역에서 청구선생과 만났다. 일본어 교실은 대티역에서 걸어서 수분 거리에 있는 일본의 공민관 같은 곳에서 열리고 있었다.

At 9:40 in the morning, I met Mr. Cheong-gu at the subway Daeti station. His Japanese class is held at like a community center in Japan, located at a few minutes from Daeti station on foot.

教室は10時始まり。これに参加させてもらい、メモを見ながら韓国語で簡単なあいさつをした。もちろん前夜原稿を作っていた。まだメモを見ないと簡単な挨拶すらできない。そして、印刷していた日本語韓国語併記の文書を配布して鬱陵島渡島の目的も話した。この文書の韓国語は予め清九さんの校正を経ていたものだ。

교실은 10시에 시작되었다. 나도 참여하게 되어 메모를 보면서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했다. 물론 전날 밤에 원고를 작성했다. 메모를 보지 않으면 아직 간단한 인사조차 못한다. 그리고 인쇄한 일본어 한국어 병기문서를 배포하고 울릉도에 간 목적도 말했다. 이 문서의 한국어는 미리 청구선생의 교정을 거친 것이었다.

The class starts at 10 o'clock. I was allowed to participate in this, and seeing memo, I greeted the class members briefly in Korean. Of course I had made a memo in the night before. If I cannot read a memo, I cannot say even a brief greeting. And I spoke about the aim of the visit Ulleungdo, distributing a paper written in Japanese and Korean to the class members. The Korean language in this paper was already checked beforehand by Mr. Cheong.

生徒さんたちは、多分私の言葉よりは韓国語の文書に目を通して理解できたと思う。島に行ってどうだったかと聞かれたので、それは日本語で説明した。生徒さんは私が話す日本語をすぐには理解できないので、通訳を清九さ

んがした。授業が終わって教室の皆さんの写真を撮ったが、半分くらい帰ってしまった。

학생들은 아마 내 말보다는 한국어 문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섬에 가서 어땠냐는 질문에 일본어로 설명했다. 학생들은 내가 말하는 일본어를 바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선생이 통역을 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과 사진을 찍었는데 절반 정도는 돌아간 뒤였다.

The pupils could perhaps understand by Korean written in the distributed paper than my speaking. As they asked me how about I went to the island, I explained it in Japanese. They could not understand my Japanese immediately, Mr. Chong translated into Korean. After the class was over, I took a picture of the member, but the half had gone.

昼食は清九さんたちと何回かいった店。名前は「송원 숯불갈비松原 炭火カルビ」。「松原」が正しい訳かどうか分からない。食べたのは多分「영양돌솥밥 栄養釜飯」生徒さんの一人、金さんのおごりだったらしい。私は金さんにお礼の言葉を言わなかった。帰国後それが気になり、清九さんにメールし、詫びてもらった。金さんのお父さんは日本人らしい。そのような環境が日本語を学ぶ動機の一つにあったらしい。私が日本語を勉強しようと思ったきっかけを聞くと、身の上話になってしまった。

점심은 청구선생 일행과 여러 번 갔던 "송원숯불갈비". "松原"을 정확하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다. 먹은 것은 "栄養釜飯/영양돌솥밥"인 것 같은데 학생들 중의 김씨가 낸 것 같았다. 나는 김씨에게 감사의 말을 못했는데 귀국 후 그것이 마음에 걸려 청구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과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일본인인 듯 했다. 그런 환경이 일본어를 배우는 동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 내가 일본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를 묻자 신상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The lunch was at the restaurant I had visited before with Mr.Cheong-gu and others. Its name was "Songwon charcoal ribs". I do not know "Songwon" is a collect translation or not. The dish we had was perhaps "Nutritional rice cooked in a stone pot". Ms.Kim, one of students of the Japanese class, seemed to have paid money. I did not give thanks to Ms.Kim. After returning to Japan, as I felt uneasy about it, I sent a mail to Mr.Cheong and asked to say thanks to Ms.Kim. I was told that father of Ms.Kim was a Japanese. Such a circumstance



might urge Ms.Kim to learn Japanese. I asked Ms.Kim the motive for learning Japanese, then it became to tell her life story.



前列中央が朴清九さん、左端が金さん

앞줄 중앙이 박청구선생, 왼쪽이 김씨

In the center of the front row is Mr. Park Cheong-gu, and the left end is Ms. Kim

国際結婚と言えば聞こえはいいが、日韓の間には植民地支配という消しがたい歴史がある。その負の側面は未だに癒えていない。

국제결혼이라고 하면 듣기는 좋지만 한일 사이에는 식민지 지배라는 지우기 어려운 역사가 있다. 그 부정적인 측면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A language of “International marriage” sounds good, but between Japan and Korea there is a history of colonial rule that is difficult to erase. The negative side of the history is not cured still now.

昼食後大崎で清九さんと金さんと別れて中央駅で下りた。黄海年さんのことが気になったからだ。思えば、「私の韓国、私の日本」という文集を作ろうと思い立ち、今から約6年前、文集を作りたいから寄稿してくださいと最初に呼びかけた人が地下鉄中央駅で日本語案内ボランティアをしていた黄海年さんだった。

점심식사 후 대티역에서 청구선생, 김씨와 헤어지고 중앙역에서 내렸다. 황해년씨의 일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나의 한국, 나의 일본"이라는 문집을 만들려고 결심하고, 지금부터 약 6년 전 문집을 만들고 싶으니까 기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일 먼저 부탁했던 사람이 지하철 중앙역에서 일본어 안내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황해년씨였다.

After the lunch, being apart from Mr.Cheong and Mr.Kim at Daeti station, I got off at Jungang station. It was because I worried about Ms.Hwang Hae Nyun. Thinking about it, about 6 years ago I decided to publish a book of “My Korea, My Japan”, and at first I called Ms.Hwang to contribute who was volunteering as a Japanese language guide at the subway Jungang station.

ボランティアブースに行くと男性がいた。日本語は OK かと聞くと、あたりめーよ、ベラベラよ、と威勢のいい日本語が返ってきた。金溶尚 김용상さん。日本名金島義夫。日本で数十年不法就労していたそうだ。帰国する時警察に自首したので逮捕されなかったという。元気のいい人だった。

자원봉사 부스에 가니 남자분이 있었다. 일본어가 되느냐고 묻자, 아타리매예요, 배라배라예요, 라는 힘찬 일본어가 되돌아왔다. 김용상. 일본명 金島義夫. 일본에서 수십 년간 불법 취업을 했다고 한다. 귀국할 때 경찰에 자수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았다고 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When I visit the volunteer booth, men were there. I asked one of them if Japanese was OK, then a full of energy answer of "Of course, fluent!" was returned. Mr.Gim-Yongsang. Japanese name is Kaneshima Yoshio. I was told that he had been working illegally in Japan, but when he came back to Korea, as he gave up himself to police, he could escape to be arrested. He was full of energy and animated.



左が金さん왼쪽이 김씨 The left is Mr. Kim.

今回の旅の目的は、まずは鬱陵島に知人を作ることであつた。その最低限の目的は達したと思う。これで今回の「出会いの旅」は終わりだ。後はフェリーに乗るだけだ。

이번 여행의 목적은 우선 울릉도 친구를 사귀는 것이었다. 그 최소한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본다. 이것으로 이번 「만남의 여행」은 끝났다. 이제는 페리를 타는 일만 남았다.

The first purpose of this trip was to make acquaintances on Ulleungdo. I think the minimum purpose has been achieved. My "Journey of encounter" was all in this time. The rest is only boarding the ferry.

武器要らぬ民間外交樂しかり

(buki iranu minkan gaikou tanosi kari)

무기가 필요 없는 민간 외교 즐겁구나

**Without weapons**

**Private diplomacy**

**Great pleasure**





## あとがき 꼬리말 Afterword

今回の旅の目的は、まずは鬱陵島に私の活動を理解してくれる支持者を作ることであった。短い旅だったが知人ができ、鬱陵島訪問の最低限の目的は達したと思う。

이번 여행의 목적은, 우선은 울릉도에 나의 활동을 이해해 주는 지지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지인들이 생겨, 울릉도 방문의 최저한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The purpose of this trip was to first create supporters on Ulleungdo who understand my activities. It was a short journey, but I think I achieved the minimum goal of visiting Ulleungdo because I had acquaintances.

それにしても、韓国語ができない私が誰一人知人のいない鬱陵島に一人で出かけ、まさに「怖いもの知らず」＝「無謀」でもあった。予め私の思いを知らせていた朴清九さんと金仁熙さんは、きっと、天野が突拍子もないことを始めたと思ったに違いない。さらに、李館長、許マネージャーとその娘さん、そしてケイコさんも変な日本人が来たと思ったことだろう。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어를 할 수 없는 내가, 누구하나 아는 사람의 없는 울릉도에 혼자서 나가서 정말로 「겁 없고 무모하게」=「무모」하기도 했다. 미리 나의 생각을 알리고 있었던 박청구 선생님과 김인희 선생님은, 반드시, 아마노가 엉뚱한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한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이 관장, 허 매니저와 그 따님, 그리고 케이크씨도 이상한 일본인이 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Nevertheless, it was quite reckless of me—a person who doesn't speak Korean and has no acquaintances on Ulleungdo—to venture out there alone. I'm sure Mr. Park Cheong-gu and Mr. Kim In-hee, who were informed of my intentions beforehand, thought that Amano had started something outlandish. Moreover, Director Lee, Manager Heo and her daughter, and Ms. Keiko must have thought that a strange Japanese person had come.

日本と韓国で喧嘩しても我々一般人には何の意味もない。日韓の友好を願

ってということに免じて、ご迷惑をおかけした皆さん、平にご容赦を。

일본과 한국에서 싸움을 해도 우리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일 우호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관대히 보아, 폐를 끼친 여러분, 제발 용서를.

National quarrels mean little to ordinary citizens if Japan and Korea quarrel. In the name of wishing for friendship between Japan and Korea, I deeply apologize to everyone I may have inconvenienced.

独島博物館と日本式家屋は初めから行く予定にしていた。そして、知り合いがいないのだから、そこで私を受け付けてくれた人に私の思いをぶつけてみよう計画していた。その後の展開は、上述したとおりである。

독도 박물관과 일본식 가옥은 처음부터 갈 예정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나를 받아들여 준 사람에게 나의 생각을 부딪쳐 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 후의 전개는, 상술했던 대로이다.

I had planned from the beginning to visit the Dokdo Museum and the Japanese-style house. Since I had no acquaintances, I intended to express my thoughts to the people who received me there. The subsequent developments were as described above.

ケイコさんは「神の引き合わせ」だったかそのようなことを言った。「神」以外は予想だに wasn't 皆さんとの巡り合わせであった。ケイコさんとは二回目の渡島計画について調整中である。

케이코씨는 「신의 인도」였는지 그러한 것을 말했다. 「신」 이외는 결코 예상 할 수 없었던 여러분와의 만남이었다. 케이코씨와는 2 회째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해 조정중이다.

Keiko said it was a 'divine intervention' or something like that. Meeting everyone else was also beyond my expectations. I am currently coordinating with Keiko for the second journey to the island.

さて、日本では、今回の参議院選挙で改憲勢力が過半数を獲得した。このことは、第二次世界大戦の教訓を反故にして、日本が再び軍拡路線を歩み始めることを意味する。軍事力では真の平和は確保できない。軍事力は負の連鎖を強化するだけだ。ちょっと付け足しておきたい。日本の嫌韓派には軍拡路線支持派が多いという印象を持っている。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는 제 2 차 세계 대전의 교훈을 무시하고 일본이 다시 군비 확장노선을 걷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력으로는 진정한 평화는 보장 할 수 없다. 군사력은 부의 연쇄를 강화하는 뿐이다. 조금 첨가 해두고 싶다. 일본의 험한 파에게는 군화 노선지지 파가 많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

Now, in Japan, the constitutional reform forces have gained a majority in the recent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This means that Japan is beginning to walk the path of military expansion again, disregarding the lessons of World War II. True peace cannot be secured through military power. Military power only reinforces a negative cycle. I would like to add that I have the impression that many of Japan's anti-Korean factions support the path of military expansion.

戦争で犠牲になるのは一般市民であり、逆に利益を上げるのが武器商人である。今の世界情勢が如実にそのことを示している。私は軍事力に頼らない平和を模索したい。文集を作る活動もその一つと思っている。私の民間外交が日韓友好の一助となれば望外の喜びである。

전쟁에서 희생되는 것은 일반 시민이며, 반대로 이익을 올리는 것이 무기 상인이다. 지금의 세계 정세가 여실히 그 것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를 모색하고 싶다. 문집을 만드는 활동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내 민간 외교가 한일 우호의 일조가 된다면 기대 이상의 기쁨이다.

In war, it is the ordinary citizens who suffer, while the arms dealers profit. The current global situation clearly demonstrates this. I want to seek peace without relying on military power. I believe that creating a collection of essays is one way to achieve this. If my private diplomacy can contribute to Japan-Korea friendship, it would be an unexpected joy.

2016 年 7 月 11 日

天 野 松 男

아마노 마쓰오

Matsuo Amano



地図 지도 Map

[http://www.sekaichizu.jp/atlas/eastern\\_asia/country/img/map800p/a\\_10\\_japan.gif](http://www.sekaichizu.jp/atlas/eastern_asia/country/img/map800p/a_10_japan.gif)

(資料 자료 Appendix)

2016 년 6 월 月

가칭 '울릉도와 일본인'에 당신의 추억담을 보내주세요

仮称「鬱陵島と日本人」にあなたの思い出をお寄せください

**Please share your memories for the tentative title 'Ulleungdo and the Japanese'**

자유 사진가 아마노 마쓰오

自由写真家 天野松男

Free Photographer Matsuo Amano

울릉도와 일본은 옛날부터 주로 어업을 통해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10 년 일본이 한국을 합병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적대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패전에 의해 한국이 해방된 후에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鬱陵島と日本は昔から主に漁業を通じて交流があったと聞いています。しかし 1910 年に日本が韓国を併合したために、その関係は敵対的なものになったと思います。日本の敗戦により韓国が解放された後も韓国と日本の間には種々の問題が残ったままとなっています。

I have heard that Ulleungdo and Japan have had exchanges primarily through fishing for a long time. However, when Japan annexed Korea in 1910, I believe this relationship turned hostile. Even after Korea was liberated following Japan's defeat, various issues have remained between Korea and Japan.

그러나 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치적 갈등과는 별도로, 한사람의 민간인 입장에서, 양 국민의 우호 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시도로, 울릉도의 옛 일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처럼 전후에 태어난 일본인은 전쟁 전, 또는 전쟁 중의 한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대해서는 더욱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 (울릉도민)과 일본인 사이에 다양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교류의 내용을 알아서, 서로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しかし私は、韓国と日本の間の政治的な対立とは別に、ひとりの民間人の立場で両国民の友好的関係を築くことを模索しています。その一つの試みとして鬱陵島におけるかつての日本人の「振る舞い」を調べてみようと考えました。私のように戦後生まれの日本人は戦前、戦中の韓国のことをほとんど知りません。鬱陵島のことはなおさら知りません。いいことも悪いことも含めて韓国の人々（鬱陵島民）と日本人との間でいろいろな交流があったことと思います。その交流の内容を知り、お互いの理解に役立てたいと考えています。

However, apart from the politic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I, as a private citizen, am seeking to build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people of both countries. As one attempt, I decided to investigate the past behavior of Japanese people on Ulleungdo. As a post-war Japanese person, I know very little about Korea before and during the war. I know even less about Ulleungdo. I believe that there were various exchanges, both good and bad, between the Korean people (Ulleungdo residents) and the Japanese. I hope to learn about these exchanges and use that knowledge to foster mutual understanding.

그래서 여러분의 추억의 문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칭 '울릉도와 일본인'에 당신의 일본인에 대한 추억담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억담은 다음 페이지의 양식에 따라 보내주세요. 기고 해 주신 분들에게는 문집 한 권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そこで、皆さんの思い出の文集を作ろうと考えました。仮称「鬱陵島と日本人」にあなたの日本人の思い出を寄せていただきたくお願いいたします。思い出は次ページの様式に沿ってお寄せください。寄稿していただいた方には一冊無料で進呈いたします。

Therefore, I thought of creating a collection of memories. Under the tentative title 'Ulleungdo and the Japanese,' I would like to ask you to contribute your memories of Japanese people. Please submit your memories according to the format on the next page. A free copy will be presented to those who contribute.

출판 부수 : 200 부 (한일 양국어 병기, 아마노마쓰오의 자비 출판)  
원고의 수집, 통역, 번역, PC 입력을 해주실 자원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出版部数 : 200 部 (日韓両国語併記、天野松男の自費出版) 原稿の収集、通  
訳、翻訳、パソコン入力をしていただけるボランティアを募集しています。  
ご協力お願いいたします。

Number of copies: 200 (bilingual in Japanese and Korean, self-published  
by Matsuo Amano) We are looking for volunteers to help with collecting  
manuscripts, interpreting, translating, and data entry. Your cooperation  
would be greatly appreciated.

연락처連絡先 : 天野松男 Matsuo Amano

Contact: Matsuo Amano

TEL/FAX +81-93-701-1245 amanomatsuo@gmail.com

〒808-0103 福岡県北九州市若松区二島4-3-24

Postal Code 808-0103 Futajima 4-3-24, Wakamatsu-ku, Kitakyushu-shi,  
Fukuoka-ken, JAPAN









新たな出会い 二回目の鬱陵島  
새로운 만남 두 번째 울릉도  
New Encounter The Second Visit Ulleungdo



天野松男  
아마노 마쯔오  
Matsuo Amano







新たな出会い 二回目の鬱陵島

새로운 만남 두 번째 울릉도

New Encounter The Second Time Ulleungdo

天 野 松 男

아마노 마쓰오

Matsuo Amano





## 目 次

3 月 16 日 (木)	福岡から大邱經由浦項へ	
3 월 16 일(목)	후쿠오카에서 대구 경유 포항으로	
March 16 (Thu)	From Fukuoka to Pohang via Daegu on	
	. . . . .	II 11
3 月 17 日 (金)	浦項から鬱陵島へ、新しい出会い	
3 월 17 일(금)	포항에서 울릉도로 새로운 만남	
March 17 (Fri)	A new meeting from Pohang to Allende	
	. . . . .	II 17
3 月 18 日 (土)	独島博物館、日本人居住地	
3 월 18 일(토)	독도 박물관, 일본인 거주지	
March 18 (Sat)	Dokdo Museum, Japanese Residence	
	. . . . .	II 41
3 月 19 日 (日)	島の反対側に行ってみる	
3 월 19 일(일)	섬 반대쪽으로 가보기	
March 19 (Sun)	Exploring the other side of the island	
	. . . . .	II 61
3 月 20 日 (月)	鬱陵島最終日の新しい出会い	
3 월 20 일(월)	울릉도 마지막 날의 새로운 만남	
March 20 (Mon)	The last day of Ulleungdo's new meeting	
	. . . . .	II 81
3 月 21 日 (火)	光州に行ってみた	
3 월 21 일(화)	광주에 가보았다	
March 21 (Tus)	I went to Gwangju	
	. . . . .	II 95

3 月 22 日 (水)	帰国 : 大邱から福岡へ	
3 월 22 일(수)	귀국: 대구에서 후쿠오카로	
March 22 (Wed)	Return, From Daegu to Fukuoka	
	. . . . .	II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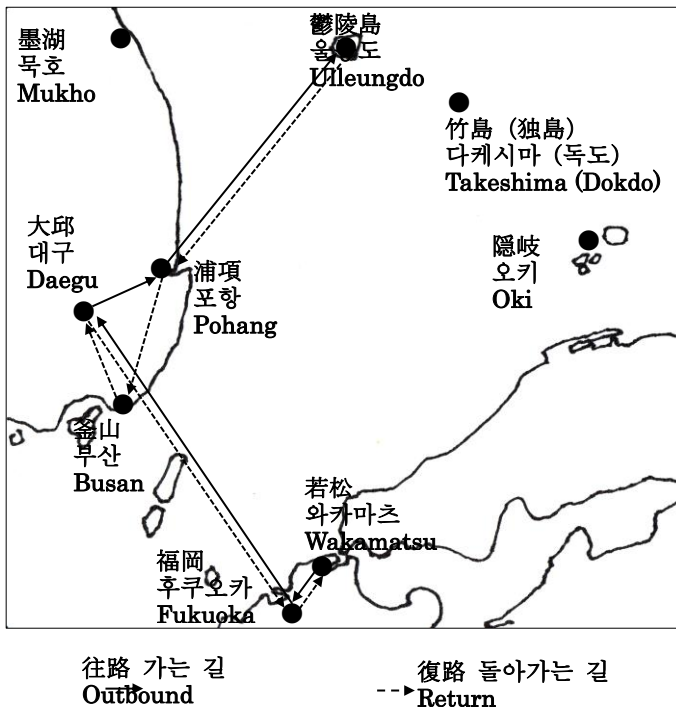


3月16日(木) 福岡から大邱經由浦項へ  
 3월 16일 (목) 후쿠오카에서 대구 경유 포항으로  
 March 16 (Thu) From Fukuoka to Pohang via Daegu

先ず今回の旅の経路を示す。出発地は北九州市若松で、目的地は鬱陵島である。

우선 이번 여행의 경로를 제시한다. 출발지는 기타큐슈시 와카마쓰이며, 목적지는 울릉도이다.

First of all, I will show the route of this journey. The starting point is Wakamatsu, Kitakyushu City, and the destination is Ulleungdo.



鬱陵島行きのフェリーは浦項の他に東海の墨湖からも出ているが、私は浦項の方が近いので浦項から鬱陵島へ向かった。浦項発のフェリーは 9 時 50 分発なので、どうしても前泊しないと間に合わない。帰りは 18 時頃浦項に到着するので、無理をすれば帰国できるかも知れないが、博多で一泊しないと行けないかも知れない。いずれにしても往復でそれぞれ一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が旅行を難しくしている要因の一つでもある。

울릉도로 가는 페리는 포항 외에 동해 묵호에서도 나오는데, 나는 포항이 더 가까우니까 포항에서 울릉도로 가기로 했다. 포항에서 출발하는 페리는 9 시 50 분 출발이므로, 아무래도 전박하지 않으면 시간에 맞출 수 없다. 돌아오는 시간은 18 시쯤 포항에 도착하기 때문에 무리하면 귀국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카타에서 하루 묵어야 갈 수도 있다. 어쨌든 왕복으로 각각 1 박을 해야 한다. 이것이 여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In addition to Pohang, the ferry bound for Ulleungdo starts from Mukho, Donghae, and I headed from Pohang to Ulleungdo Island because Pohang is closer. The ferry departing from Pohang leaves at 9:50, so if I don't stay overnight, I won't be able to make it. I will arrive in Pohang around 18:00 on my way home, so I may be able to return home if I push myself too hard, but I may have to stay overnight in Hakata. In any case, I have to stay overnight for each round trip. This is one of the factors that makes travel difficult.

今回は福岡から大邱まで飛行機で行った。Air Busan の格安航空券の案内が来たのでそれを買ったのだ。しかし、少し時間はかかるがいつものようにビートルで行く方が安かった。早朝のビートルに乗れば浦項には夕方到着できる。

이번에는 후쿠오카(福福岡)에서 대구(大邱)까지 비행기로 갔다. Air Busan 저가 항공권 안내가 와서 그것을 산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리지만 늘 그렇듯 비틀로 가는 게 더 짚다. 이른 아침 비틀을 탈 수 있으면 포항에는 저녁에 도착할 수 있다.

This time, I flew from Fukuoka to Daegu. I bought it because I received an announcement about Air Busan's low-cost flight ticket. However, it would take some time, but it would have been cheaper to go by Beetle as usual. If I take the Beetle early in the morning, I can arrive in Pohang in the evening.

福岡空港まで予定通りだったが、空港で手荷物がうまくいかなかった。釜山の文集と中国旅行記をそれぞれ 10 冊ずつ持って行ったので、機内持ち込みの大きさにうまく整理できず、結局、本、衣類、あの骨だけのキャリーの 3 つに分割し、手荷物として預けることになった。このキャリーがまずかったのだ。そんなに大きな荷物ではなかったが、一辺だけ寸法が合わなかった。最初からキャリーケースを使えばよかったのだ。

후쿠오카(福岡) 공항까지 예정 대로였지만 공항에서 수하물이 잘 안됐다. 부산의 문집과 중국 여행기를 각각 10 권씩 가져왔기 때문에 기내 반입 크기로 잘 정리하지 못했고, 결국 책, 의류, 저 뼈뿐인 캐리 카트 등 3 개로 쪼개 수화물로 맡기게 됐다. 이 캐리 카트가 좋지 않았다. 그렇게 큰 짐은 아니었지만, 한 변만 치수가 맞지 않았다. 아예 캐리 케이스를 사용하면 된 것이다.

It was on schedule to Fukuoka Airport, but my baggage didn't go well at the airport. I took 10 books of Busan literature and Chinese travel, so I couldn't organize them well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arry-on, so I ended up separating them into books, clothes, and a lightweight folding cart, and leaving them as baggage. This carry cart was bad. It wasn't such a big package, but only one side didn't fit. I should have used a carry case from the beginning.

銀行の名前は忘れたが、福岡空港内の両替レートは、

100 万 W=106382 円

であった。以下の文書では 1 万 W=1000 円で計算している。

은행의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후쿠오카 공항 내환전 환율은,

100 만 W=106382 엔

이었다. 이하의 문서에서는 1 만 W=1000 엔으로 계산하고 있다.

I forgot the bank name, but the exchange rate in Fukuoka Airport is,

1 million W=106382 Yen

In the following documents, 10,000 W = 1,000 yen is calculated.

大邱に到着して空港のインフォメーションで浦項までのバスの有無を聞くと、空港からの直通はないとのこと。東大邱のバスターミナルから出ているとのことであった。それで、空港から東大邱までバスで行こうと一旦バス停まで行ったが、待つのが面倒になってタクシーをつかまえた。当初は東大邱までのつもりだったが、浦項までの料金を聞くとメーターを指さした。要す

るにメーター走行するから安心しろという感じ。ハウマッチと改めて聞き直すと 90000W という。約一万円だ。まあ、いいっか。それで浦項までそのタクシーで行った。実際のメーターは十万 W を越えていたが、払ったのは九万 W。1000 円と少し負けてもらったことになる。運転手は浦項の人ではなかったので、目的地のエニーモテルまで行けず、浦項のバスターミナルの近くで下りた。モテルの場所は予め調べておいたのですぐに分かった。

대구에 도착해 공항 인포메이션에서 포항까지의 버스 유무를 묻자 공항에서 직통은 없다고 한다. 동대구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그래서 공항에서 동대구까지 버스로 가려고 일단 버스정류장까지 갔는데 기다리기 귀찮아져서 택시를 잡았다. 처음에는 동대구까지 갈 생각이었지만 포항까지의 요금을 묻자 미터기를 가리켰다. 요컨대 미터 주행하니까 안심하라는 느낌. 하우머치라고 다시 물어보니 90000W 라고 한다. 약 일만엔이다. 뭐, 됐어. 그래서 포항까지 그 택시로 갔어. 실제의 미터는 10 만 W 를 넘고 있었지만, 지불한 것은 9 만 W. 1000 엔으로 조금 깎아 준 것이 된다. 운전자는 포항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적지인 애니모텔까지 가지 못하고 포항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내렸다. 모텔 장소는 미리 알아놔서 금방 알았어.

When I arrived in Daegu and asked the airport information if there was a bus to Pohang, they said there was no direct access from the airport. It was said that it left the bus terminal in Dongdaegu. So I went to the bus stop to take a bus from the airport to Dongdaegu, but it was troublesome to wait, so I caught a taxi. At first, I intended to go to Dongdaegu, but when I asked for the fare to Pohang, the driver pointed to the meter. In short, it's like running a meter, so don't worry. I asked how-much again, it's 90,000W. It's about 10,000 yen. Well, I see. So I took that taxi to Pohang. The actual meter was over 100,000 W, but I paid 90,000 W, which means he gave me a slight discount of about 1,000 yen. The driver was not from Pohang, so he couldn't go to the destination Anymotel, so I went down near the bus terminal in Pohang. I found out the location of the motel right away because I had checked it out in advance.

エニーモテルは多分ラブホテルだ。受付は相手の顔が見えないようにガラスで仕切られていて、お金とキーがやり取りできるくらいのスペースしか空いていなかった。ここには日本語が少し話せる人が働いていた。明朝のタクシーの手配をしようと受付で相談していると、話がなかなか通じず、私が日



本人だと分かり、受付の人が呼んだのだ。崔珉箕 Choi Min Gi さん、36 歳。ここで働きながらアニメの仕事もしているらしい。タクシーを呼ぶ時間を 7 時半という、私はまだ寝ている、私の部屋のブザーを押して起こしてくれと言う。ええっ、いいのと思ったが、構わないと言う。ついでに、夕食のための食堂はどっちの方向に行けばいいか教えてもらった。

애니모텔은 아마 러브호텔일거야. 접수는 상대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유리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돈과 키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밖에 비어 있지 않았다. 여기에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 일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 택시를 잡으려고 접수처에서 상담하고 있는데,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내가 일본인인 것을 알고 접수처 사람이 부른 것이다. 최민기 Choi MinGi 씨, 36 세. 여기서 일하면서 애니메이션 일도 하고 있는 것 같아. 택시를 부르는 시간을 7 시 반이라고 하면, 나는 아직 자고 있다, 내 방의 부저를 눌러 깨워 달라고 한다. 앗, 괜찮은가 했는데, 상관없다고 한다. 겸사겸사 저녁 식사를 위한 식당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줬어.

Anymotel is probably a love hotel. The reception was separated by glass so that the other person's face could not be seen, and there was only enough space for money and keys to exchange. There was a young man working here who could speak Japanese a little. When I was consulting at the reception desk to arrange a taxi for tomorrow morning, It found out that I was Japanese and the receptionist called him, Choi Min-ki, 36. While working here, he seems to be working in animation. When I said that I would like to call a taxi at 7:30, as he is still sleeping, and ask him to wake up by pressing the buzzer in his room. Uh, I thought it would be OK, but he said it doesn't matter. Additionally, I was told which way to go to the restaurant for dinner.

夕食のために外に出た。バスターミナルとは反対方向に食堂が多いらしい。南部市場というのがあった。市場というのは面白い被写体が多い。入ってすぐ左に食堂があったのでそこへ入った。焼酎と豆素麺のようなもの、大きな青唐辛子、辛くはなく中には牛肉のミンチが詰まっていた、イモの天ぷらを頼んだ。実際は食べてか



らその食材が分かったのであって、食べる前に知っていて選んだのではない。ここで市場のおばちゃんたちの写真を撮った。

저녁 식사를 위해 밖에 나왔다. 버스터미널과는 반대 방향으로 식당이 많은 것 같다.



남부시장이라는 게 있었다. 시장이라는 것은 재미있는 피사체가 많다.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식당이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소주와 콩소면 같은 것, 큰 풋고추, 맵지 않고 안에는 쇠고기 다진 것이 가득 들어있었다, 감자튀김을 시켰다. 실제로는 먹고 나서 그 식재료를 알게 된 것이지 먹기 전에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시장 아주머니들 사진을 찍었다.

I went out for dinner. It seems that there are many restaurants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the bus terminal. There was "Southern Market". There are many interesting subjects in the market. There was a dining room on the left right after I entered, so I went in there. I ordered something like shochu and bean noodles, large green peppers, which was not spicy but packed with beef mince inside and potato tempura. Actually, I knew the ingredients after I ate them, but I didn't choose them because I knew them before I ate them. Here I took pictures of lady workers in the market.

3月17日(金) 浦項から鬱陵島へ、新しい出会い

3월 17일(금) 포항에서 울릉도로 새로운 만남

March 17 (Fri) From Pohang to Ulleungdo, New encounters

朝 7 時 40 分頃崔さんの部屋を訪ねた。正直どの部屋だったかあやふやだった  
が、とにかくドアの横の呼び鈴を押した。応答はなかった。仕方ないので、  
受付で、アンネハセヨ、と声をかけたがこれも応答なし。7 時過ぎは「早  
朝」で、皆さん寝ているのだろう。どうしたものかと思っていたら、階下から  
手に缶コーヒーを持った崔さんが現れた。彼は早起きしてくれていたのだ。  
ほっとした。韓国の人はやっぱり優しいと思った。

아침 7 시 40 분경 최 씨의 방을 찾았다. 솔직히 어느 방인지 애매하긴  
했지만 어쨌든 문 옆의 초인종을 눌렀다. 응답은 없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접수처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걸었지만 이것도 응답 없음.  
7 시가 넘어서는 '새벽'을로, 여러분 자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생각해 있었더니, 아래층에서 손에 캔커피를 든 최 씨가 나타났다.  
그는 일찍 일어나 주었던 것이다. 안도했다. 한국사람은 역시 상냥하다고  
생각했다.

I visited Mr. Choi's room around 7:40 a.m. I was not sure which room it  
was, but at any rate I pressed the doorbell. There was no response. I  
couldn't help it, so I said "Annyong haseyo" at the reception desk, but there  
was no response. It's "early morning" after seven o'clock, and I guess  
everyone is sleeping. I was wondering what to do when Mr. Choi appeared  
from downstairs holding a can of coffee in his hand. He was getting up  
early. I'm relieved. I thought Korean people were kind again.

タクシーの予約はしていなく、流しのタクシーでいいとのことだった。ホ  
テル前の道路を横切ってタクシーを待った。4-5 分待ってタクシーが拾えた。  
まだ 8 時少し前だったが、この辺りは流しのタクシーが拾えるような地域な  
のだ。

택시 예약은 하지 않았고, 지나가는 택시라도 좋다는 것이었다. 호텔  
앞 도로를 가로질러 택시를 기다렸다. 4~5 분 기다려서 택시를 잡을 수  
있었다. 아직 8 시 조금 전이었지만, 이 근처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지역인 것이다.

He didn't make a reservation for a taxi, but he said it's okay to take a passing taxi. We crossed the road in front of the hotel and waited for a taxi. Waiting for four to five minutes, I could get a taxi. It was only a little before eight o'clock, but this is the area where we can pick up a taxi.

見覚えのある懐かしいフェリーターミナルに着いた。8時10分くらいだったろうか。フェリーの出発は9時50分だ。時間的余裕があったので少し周辺を歩いてみた。背後は住宅地で沖合は工場、という感じだ。

낮익은 그리운 페리 터미널에 도착했다. 8시 10분 정도였을까. 페리 출발은 9시 50분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조금 주변을 걸어봤다. 배후는 주택지로 앞바다는 공장, 이라고 하는 느낌이다.

I arrived at a familiar and nostalgic ferry terminal. I think it was about 8:10. The ferry leaves at 9:50. I had time to spare, so I walked around for a while. It feels like a residential area behind it and a factory off the coast.

発券窓口では親切にも帰りのフェリーも予約してくれた。今回もパスポートをコピーされたが、老人料金だ。特にトラブルなし。今回は待合室で「日本の方ですか」と聞いてくる人はいなかった。実は待っていたのだが、二回目の渡島の私に対する警戒は解けたのかしら。無害であるのが分かったのか、誰も何も言ってこなかった。

발권 창구에서는 친절하게도 돌아오는 페리도 예약해 주었다. 이번에도 여권을 복사되었지만, 노인 요금이다. 별다른 트러블 없음. 이번에는 대합실에서 「일본 분입니까」라고 물어 오는 사람은 없었다. 실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 번째의 와타리시마의 나에 대한 경계는 풀린 것일까. 무해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The ticket counter kindly booked me a return ferry as well. They copied my passport again this time, but it's the senior citizen's fee. No trouble in particular. This time, no one asked me if I was from Japan in the waiting room. Actually, I've been waiting for it. I wonder if the suspicion against me was cleared. It was second time Ulleungdo journey. Nobody said anything, maybe they sensed I meant no harm.

フェリーターミナルは迎日湾の奥まったところにあるが、対岸には POSCO という製鉄工場がある。迎日湾は北九州の洞海湾よりかなり大きい湾岸に工場があるのは似ている。しかし、迎日湾の海水は洞海湾よりはるかにきれいだ。

페리 터미널은 영일만의 후미진 곳에 있는데, 강 건너에는 포스코라는 제철 공장이 있다. 영일만은 기타큐슈의 도카이만보다 상당히 크지만 만안에 공장이 있기는 비슷하다. 그러나 영일만의 바닷물은 도카이만보다 훨씬 맑다.

The ferry terminal is located deep in Yeongil Bay, but there is a steel mill called POSCO on the other side. Yeongil Bay is much larger than Dokai Bay in Kitakyushu, but it is similar that there is a factory in the Gulf. However, the seawater in Yeongil Bay is much cleaner than Dokai Bay.



開かずの間の約3時間半の辛抱で道洞に到着した。道洞では宿泊先が決まっていなかった。まずはケイコさんに予約をお願いしていた Family Hotel、ここは観光客がまだ少ないので営業していないと知らされてはいたが、を訪ねるつもりでいた。

열리지 않는 방의 약 3 시간 반의 인내으로 도동에 도착했다. 도동에서는 숙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우선은 케이코씨에게 예약을 부탁하고 있던 Family Hotel, 이곳은 관광객이 아직 적어서 영업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기는 했지만, 방문할 생각이었다.

We arrived in Dodong with patience for about three and a half hours in the closed room. In Dodong, the accommodation was not decided. Though I was told that it was not open because there were not many tourists here, first of all, I was going to visit Family Hotel, which I asked Keiko to make a reservation.

フェリーを下り、Hotel の方へ歩いていると、あんた泊まっていきなさいよと一人のおばさんが声をかけてきた。いくらだと聞くと四万 W という。四泊するから三万 W にしてくれと値切った。Family Hotel の Back Packer 用の相部屋(ゲストハウス)がその値段だった。少し押し問答があつて、3 万五千 W になった。ホテルをあれこれ探し歩くのも面倒だったのでそれで OK した。

페리를 내려, Hotel 쪽으로 걸고 있는데, 너 묵고 가시라고 한 사람의 아줌마가 말을 걸어왔다. 얼마냐고 물으면 4 만 W 라고 한다. 4 박 할테니 3 만 W 로 해달라고 가격을 깎았다. Family Hotel 의 Back Packer 용 방(게스트하우스)이 그 가격이었다. 약간의 말을 주고받음이 있어서, 3 만 5 천 W 가 되었다. 호텔을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것도 귀찮아서 그걸로 OK 했다.

I was walking down the ferry and towards the hotel. An old woman invited me to stay at her place. When I asked how much it is, it is said to be 40,000W. "Since I'm staying for four nights, I asked for 30,000W." Family Hotel's shared room (guest house) for Back Packer was that price. There was a bit of a push and answer, and it was 35,000 W. It was troublesome to look around for hotels, so I decided to do so.

おばさんについて行くと港から 5 分も歩かないところであつた。名前は独島ペンション。おととつと、ちょっとやばい名前だ。まあ、独島問題には関わるつもりがないからどうでもいいことだ。部屋は二部屋、ベッドと韓式のベッドなし。ベッドを選んだ。四泊分 14 万 W その場で払った。Wikipedia によると「ペンション」とは、民宿のうち、建物が西洋風の瀟洒な外観・内装で、食事も主に西洋料理を提供する宿泊施設を指す、ということらしい。

でも我が独島ペンションは全くそんな感じではなかった。でも部屋は床暖房だし、ベッドにはヒーターが敷かれていたので暖かった。

아주머니를 따라가다 보니 항구에서 5 분도 안 걸어가는 곳이었다. 이름은 독도펜션. 이런, 좀 위험한 이름이다. 뭐, 독도 문제에는 관여할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다. 방은 두개, 침대와 한식침대 없음. 침대를 골랐다. 4 박분 14 만 W 그 자리에서 지불했다. Wikipedia 에 따르면 '펜션'은 민박 중 건물이 서양식의 산뜻한 외관과 인테리어로 식사도 주로 서양음식을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가리키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독도 펜션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하지만 방은 바닥 난방이고 침대에는 히터가 깔려 있어서 따뜻했다.

I followed the woman and found that it had walked less than five minutes from the harbor. The name is Dokdo Pension. Oops, that's a bit of a troublesome name. Well, as for the Dokdo issue - I am not planning to get involved, so it didn't matter to me. There are two rooms, no beds and no Korean style beds. I chose a bed. I paid 140,000W for 4 nights on the spot. According to Wikipedia, the term "pension" refers to accommodation facilities that provide Western-style and stylish facilities with Western-style buildings and meals. But my Dokdo pension wasn't like that at all. But the room was floor heating and the bed was heated, so it was warm.

荷物を部屋に置いて「協力者」に配る本を入れる封筒を買うために外に出た。外に出て、やっぱり **Family Hotel** が気になって、営業しているかどうか確かめたくて寄ってみた。ホテルのフロントはホテル入り口を入れて横にあった。営業はしているようであったがゲストハウスは営業していなく、10 万 W 以上の私にとっては高い部屋しかなかった。まだ観光客が少なく、バックパッカーも少ないのだろう。実際 3 月下旬の鬱陵島はまだ寒かった。これで、独島ペンションを宿にしたことを自分で納得し、さて、次は封筒だ。私を応対した女性に「문구 (文具)」「봉투 (封筒)」と書いて示すと理解してくれて、この通りのもう一つ向こうの通りを上に行きなさい、という身振り。

짐을 방에 두고 협력자에게 나눠줄 책을 담은 봉투를 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밖에 나가서 역시 패밀리 호텔이 궁금해서 영업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들렀다. 호텔 프런트는 호텔 입구를 들어서 옆에 있었다. 영업은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게스트하우스는 영업을 하지 않았고, 10 만 W 가 넘는 나에게서는 비싼 방밖에 없었다. 아직 관광객이 적고 배낭여행객도

적을 것이다. 실제로 3 월 하순 울릉도는 아직 추웠다. 이로써 독도 펜션을 숙소로 한 것을 스스로 납득하고, 다음은 봉투다. 나를 응대한 여성에게 문구, 봉투라고 써 보이면 이해해 주고, 이 길의 또 다른 길을 위로 가라는 몸짓.

I left my luggage in my room and went outside to buy an envelope for books to be distributed to "cooperators". When I went outside, I was curious about the Family Hotel, so I stopped by to see if it was open. The front desk was there right after I entered hotel. It seemed to be open, but the guest house was not open, and for me over 100,000 W, there were only expensive rooms. There are probably still few tourists and few backpackers. In fact, Ulleungdo in late March was still cold. Now I'm convinced myself that I've made the Dokdo pension an inn, and the next is to buy the envelope. The front lady understood my memo of "문구 (stationary)", "봉투 (envelop)", and by gesture "Go up another street across this street."

言われたとおり通りをキョロキョロしながら上っていくとそれらしい店を左側に見つけた。中に入ると誰もいなかった。アンネハセヨ、と声をかけるとちょっとして外から男性が現れた。店の主人らしい。下手な発音でポンツうーと、理解してくれずやっぱり字を書いて示した。そうするとそれはこう読むとばかり声を出して言ってくれたが、どう発音したか忘れた。次にサイズ、A5。これもなんとか理解してもらって、10 枚、1000W だったかな。

시키는 대로 두리번거리며 올라가다 보니 그럴듯한 가게를 왼쪽에 발견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아무도 없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걸자 잠시 후 밖에서 남성이 나타났다. 가게 주인인 것 같다. 서투른 발음으로 폰츠라고 하면 이해해 주지 않고 역시 글씨를 써서 나타냈다. 그랬더니 그것은 이렇게 읽는다고만 소리 내어 말해 주었는데 어떻게 발음했는지 잊어버렸다. 다음에 사이즈 A5. 이것도 어떻게든 이해해줘서 10 장, 1000W 였나.

As I walked up and down the street as I was told, I found a shop on the left that looked like it. I went inside, there was no one. When I called out "Annehaseyo," a man appeared from outside. He seems to be the owner of the shop. I said "ponzu" in a bad pronunciation, he didn't understand me, so I wrote and showed it to him. Then he read it aloud for me, but I quickly forgot the pronunciation. Next was A5 size, which I also managed to get approval for, 10 sheets, I think for 1000W.



ここからが面白い。日本人かと聞く。そうだと答えると、私はナガオカ テイタクだという。よく理解できなかったの、名刺をもらおうとその人は 이정탁 という名前の人だった。それで「이정탁 = ナガオカ」と書いて尋ねると、そうだという。鬱陵島生まれ、81 歳。81 歳にしては若く見えた。私が探していた文集寄稿の対象者となる人だ。その場では、後でまた来ると言って店を出て、ペンションに戻った。



여기서부터가 재밌어. 일본인이냐고 묻는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나는 나가오카 테이타쿠라고 한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명함을 받자 그 사람은 이정탁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정탁 = 나가오카라고 적어 묻자 그렇다고 한다. 울릉도 출생 81 세. 81 세치고는 젊어 보였다. 내가 찾던 문집 기고의 대상자가 될 사람이다. 그 자리에서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가게를 나와 펜션으로 돌아왔다.

It's fun from here. He ask if I am Japanese. I answered yes, he said that he was Nagaoka Teitaku. I didn't understand well, so I got his business card, he was a person named 이정탁. So I wrote, 이정탁 = Nagaoka, and asked, is this true? He said yes. Born in Ulleungdo, 81 years old. He looked young for 81. He is the target of the literary contribution I was looking for. On the spot, I said I would come back later, so I left the store and went back to the pension.

ペンションに戻って袋詰め作業。釜山の文集と中国旅行記をワンセットにして 9 セット作った。1 セットは浦項のエニーモテルの崔珉箕さんに贈呈していた。今回の旅は 10 セットの自著をどう配るかが課題であった。

펜션으로 돌아가서 봉지 포장 작업. 부산 문집과 중국 여행기를 한 세트로 만들어 9 세트를 만들었다. 1 세트는 포항 애니모텔의 최민기 씨에게 증정했다. 이번 여행은 10 세트의 자신의 저서를 어떻게 나눠줄지가 과제였다.

I returned to the pension to prepare book sets in envelopes. I made nine sets of Busan literature collection and Chinese travel memoir. One set was

presented to Choi Min-min of Anymotel in Pohang. The challenge for this journey was how to distribute 10 sets of my books.

まずは独島ペンションに1冊、「管理人室」にドア越しにアンネハセヨと声をかけると、日本語で言うとかハイだろうか何か聞き取れなかったが返事が聞こえた。それでドアを開けて入るとそこは居間なのか管理人室なのかよく分からない感じの部屋、でも、そこには誰もいず、右側の部屋に一人の男性が座っていた。ペンションのオーナーだろうか。その人に何と挨拶したか覚えていないが、袋詰めの著書を手渡し、そこを辞去して次の行動。

먼저 독도 펜션에 한 권, '관리인실'에 문 너머로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걸자, 일본어로 말하면 하이일까 뭔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대답이 들렸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는 거실인지 관리인실인지 잘 모르는 느낌의 방,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고 오른쪽 방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펜션 주인일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인사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봉지에 담은 저서를 건네고 그곳을 떠나 다음 행동.

First of all, to Dokdo pension one set. I called out "Annyong haseyo" through the door to the Dokdo pension, I couldn't understand if it was hi or something in Japanese, but I heard a reply. So I opened the door and went in and found a room, where I didn't know whether it was a living room or an office room, but there was no one there, and there was a man sitting in the room on the right. I assumed he might be the owner of the pension. I don't remember what I said to him, but I handed him a bagged books, and left there. Next action.

まずは손정남リーダーとラさんを訪ねるつもりでいた。손さんはボランティア活動のリーダーであると紹介されていて、케이코さん、허さんとともに3人同報でメールを送っていたが、손さんだけからは何のレスポンスもなかった。会ったこともないし、今回は訪ねてみようかと最初から考えていた。ラさんは、케이コさんから困ったことがあれば相談してみてはいかがとアドバイスを受けていた。

우선은 손정남리더와 라씨를 방문할 생각이었다. 손씨는 봉사활동의 리더라고 소개되어 있고, 케이코씨, 허씨와 함께 3명 동보로 메일을 보내고 있었지만, 손씨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만난 적도 없고, 이번에는 찾아가 보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라씨는, 케이코씨

로부터 곤란한 일이 있으면 상담해 보는 것은 어떠냐고 어드바이스를 받고 있었다.

I was going to visit the 손정남 leader and Mr. La first. 손 was introduced as a volunteer leader, and Keiko and 허 sent e-mails to each, but there was no response from 손 alone. I've never met her, and I've been thinking about visiting her this time. La was advised by Keiko to consult with him if I had any trouble.

歴史文化体験センターの허さんを訪ね、손さんに会う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尋ねた。すると、허さんが連絡を取ってくれ、議会の一階にいたとのことだった。議会の場所も教えてくれた。それで議회를訪ねた。おそろおそろ建物の中に入るとなんと殺風景なところでフロアーには誰もいず両サイドにドアがあった。ドアは閉まっていてその向こうに人がいるのかどうかさえも分からなかった。

역사문화체험센터의 허 씨를 찾아가 손 씨를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허씨가 연락을 취해줘 의회 1 층에 있다는 것이었다. 의회 장소도 알려줬다. 그래서 의회를 찾았다. 조심조심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살풍경한 곳으로 플로어에는 아무도 없이 양옆에 문이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그 너머에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다.

I visited Ms. 허 of the Experience Center for History and Culture and asked her if I could meet Ms. 손. Ms. 허 contacted her and told me that she was on the first floor of the Congress. She also told me the location of the Congress. So I visited there. As I entered the building cautiously, there was so dreary, and doors were on both sides of the floor. The doors were closed, and I didn't even know if there was anyone beyond them.

右側のドアが近かったのでそちらに行くと呼び鈴らしいスイッチがあったので押してみた。するとドアが開き若い女性が出てきたので、손정남씨 있습니까?と言ったかどうか覚えていないが、私が손정남...というようなことを言うと女性は反対側のドアへ私を連れて行き、ノックし中に入った。部屋は横長で、右側の奥に손さん、手前に二人の男性が座っていた。正面は応対用か作業用の机、左奥に多分湯茶用の流しがあった。女性は손さんに私を引き合わせると帰った。

오른쪽 문이 가까워서 그쪽으로 가니 초인종다운 스위치가 있어서 눌러봤다. 그랬더니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나와서 손정남씨 있습니까? 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손정남...라고 말하자 여성은 반대편 문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가로가 길어서 오른쪽 안쪽에 손씨, 앞에 두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정면은 응대용이나 작업용 책상, 왼쪽 안쪽에 아마 찻물의 개수대가 있었다. 여성은 손씨에게 나를 맞추겠다고 돌아갔다.

Since the door on the right was close, there was a bell-like switch when I went there, so I pressed it. Then the door opened and a young woman came out, I don't remember if I said 손정남씨 있습니까? But when I said 손정남... the woman took me to the another door, knocked it, and went inside. The room was horizontal, with 손 sitting in the back of the right side and two men sitting in front of her. There was a desk for reception or work in front, and a sink for tea, probably, in the back left. The woman introduced me to 손 and left.

ワタシハアmanoマツオデスと自己紹介して、名刺と著書とチラシを渡した。こちらから準備した韓国語は話せるが相手からの応答は全く理解できなかった。それからの会話が大変だったが、なんとか私の目的を直接伝え、손さんのボランティア活動の内容を示すリーフレットをもらった。

나는 아마노 마쓰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명함과 저서와 전단지들을 건넸다. 제가 준비한 한국어는 말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후 대화가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나의 목적을 직접 전달하고 손씨의 봉사활동 내용을 전하는 리플릿을 받았다.

I introduced myself as 'Watashi wa Amano Matsuo desu' and handed her a set of my books, my business card and flyers. I can speak Korean that I prepared, but I couldn't understand the response at all. The conversation after that was difficult, but I managed to convey my purpose directly and received a leaflet showing the contents of Ms. 손's volunteer activities.

손さんはボランティアのリーダーと聞いていたが、リーフレットを見て思うに、島民の自主的活動を支援する行政部門の責任者のようだ。公務員とは思わなかった。仕事の内容は「老人 care」らしい。それでケイコさんが私に

손さんを紹介したのだ。一公務員が私の私的な活動に協力するのは難しいかも知れないが、さて、今後どう손さんにアプローチしたらいいだろうか悩む。

손씨는자원봉사의 리더라고 들었는데, 리플릿을 보고 생각하면, 도민의 자주적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 부문의 책임자인 것 같다. 공무원인 줄은 몰랐다. 일의 내용은 「노인 care」라고 한다. 그래서 케이코씨가 나에게 손씨를 소개한 것이다. 한 사람의 공무원이 나의 사적인 활동에 협력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손씨에게 접근하면 좋을지 고민한다.

I heard that she was a volunteer leader, but looking at the leaflet, she seems to be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 that supports the islanders' voluntary activities. I didn't know she was a civil servant. The job seems to be "care for the elderly." That's why Keiko introduced 손 to me. It may be difficult for a public official to cooperate with my private activities, but I wonder how to approach Ms. 손 in the future.

最後に三人の記念写真を撮らせてくれと言うと、男性職員の一人が何に使うかと英語で聞いてきた。記念写真だと答えると、インターネット上では使ってくれると言う。写真を撮る時今までこんな要望を受けたことはなかったが、さすが役場の公務員は細かいと思った。それにしても独島博物館の館長は何も言わなかったし、博物館の受付嬢も何も言わなかったので、この人が神経質なのかも知れない。とにかく、インターネット上で使わないことを約束して記念写真を撮らせてもらった。そもそも私が写真を撮るのは記録のためだ。人の写真は誰に会ったか忘れないためだ。

마지막으로 세 사람의 기념사진을 찍어도 될지 물어보자 남자 직원 중 한 명이 무엇에 쓰겠느냐고 영어로 물어왔다. 기념사진이라고 대답하면 인터넷상에서는 사용해 주지 말라고 한다. 사진을 찍을 때 지금까지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역시 동사무소 공무원은 세심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치더라도 독도 박물관 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박물관 접수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이 사람이 신경질적인지 모른다. 아무튼 인터넷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기념사진을 찍게 되었다. 애초에 내가 사진을 찍는 것은 기록 때문이다. 사람 사진은 누구를 만났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다.

Finally, when I asked to take a commemorative photo of the three of them, one of the male staff members asked me in English what I would

use it for. When I answered that it was a commemorative photo, he told me not to use it on the Internet. I had never received such a request before when I took a picture, but I thought the government officials at the government office were quite meticulous. Even so, the director of the Dokdo museum said nothing, and the receptionist of the museum said nothing, so this person may be nervous. Anyway, I promised not to use it on the Internet, so I took a commemorative photo. The reason I take pictures in the first place is for the record. People's photos are to remember who I met.

次はラさんだ。

다음은 라씨다.

Next is Mr. Ra.

ラさんの電話番号も教会の場所もケイコさんから聞いていたが、アポを取らずに訪問した。それらしい建物に行くと十字架が掲げられていて、名前は「독도교회」(独島教会)となっていた。よく分からないから建物へ近づいて道路から中をのぞき込んだがよく見えず、人がいる感じでもなかった。

라 씨의 전화번호도 교회 장소도 케이코 씨에게 듣고 있었는데 약속을 잡지 않고 방문했다. 그럴듯한 건물에 가면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이름은 독도교회로 돼 있었다. 잘 모르니 건물로 다가가 도로에서 안을 들여다봤지만 잘 보이지 않았고, 사람이 있는 느낌도 아니었다.

As I have heard from Keiko about La's phone number and the location of the church, but I didn't make an appointment and visited him. When I went to the building that looks like it, I found a cross, named "독도교회" (Dokdo Church). As I was not sure, I approached the building and looked inside from the road, but I couldn't see well and didn't feel like there were people.

建物を覗きながら歩いていると向こうから女性が出てきて、何かご用ですか、と言ったのだらうと思うが、韓国語だから分からなかった。それで、ラッシイスマニカと尋ねると、それはこっちですよ、とばかりにとなりの建物に案内してくれた。(右奥の茶色の建物が独島教会で、手前の白い建物が統一教会)



건물을 들여다보면서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여자가 나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어이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라씨있습니까라고 묻자, 그건 이쪽이에요, 라고 말하는 듯이 옆 건물로 안내해 주었다. (오른쪽 안쪽 갈색건물이 독도교회이고, 앞쪽 흰색건물이 통일교회)

While I was looking into the building, A woman came out from over there and said, "What can I do for you?", I thought so, but I didn't understand because it was in Korean. So I asked "Is Mr. Ra there?", and she showed me to the next building, saying, "This way." (The brown building at the back of the right is the Dokdo church, and the white building at the front is the United Church.)

その白い建物には十字架が掲げられていなかった。女性がドアをノックすると中から老人が現れて、女性が、日本人の方が...とか何とかいったと思うが、老人は中へ入りなさいと手招きした。女性はちょっとためらったが、私たちは言われるままに中へ入った。

그 하얀 건물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지 않았다. 여자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노인이 나타나, 여성이, 일본인 쪽이...라든가 뭐라고 했겠지만, 노인은 손짓으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여자는 조금 망설였지만, 우리는 시키는 대로 안으로 들어갔다.

There was no cross in the white building. When she knocked on the door, an old man appeared from inside, and I think she, the Japanese, said something like that, but he beckoned to come in. She hesitated a little, but we went in as we were told.

そこは教会のお祈りをする場ではなく、ラさんの居室のようであった。新聞を切り抜いていたようで、新聞が広げられ、切り抜きが沢山あった。

그곳은 교회 기도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라 씨의 거실 같았다. 신문을  
오려내고 있었던 것 같고, 신문이 펼쳐지고, 오려낸 것이 많이 있었다.

The room was not a place of church to pray, but like a room for Mr. La.  
He seemed to have been cutting out newspapers, newspapers were spread  
out, and there were a lot of clippings.

私は、ケイコさんから紹介されてきましたと日本語で言った。ラさんは日  
本に数年間住んでいたこともあり日本語が上手だ。私はラさんに二冊の本と  
チラシを手渡しして協力を依頼した。女性にもチラシを手渡した。チラシは日  
韓両国語併記なので女性は多分私が考えていることは理解できたと思う。

나는, 케이코씨로부터 소개받아 왔다고 일본어로 말했다. 라씨는  
일본에 몇년간 살기도 해서 일본어를 잘한다. 나는 라 씨에게 책 두 권과  
전단지지를 건네며 협조를 부탁했다. 여성에게도 전단지를 건넸다.  
짜라시는 한일 양국어 병기이기 때문에 여성은 아마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I said in Japanese that I came here after being introduced by Ms.Keiko.  
As Mr. La has lived in Japan for several years, he speaks Japanese well. I  
handed over two books and leaflets to Mr. La and asked for his cooperation.  
I also handed a leaflet to the woman. The leaflet is written in both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so I think the woman probably understood what  
I was thinking.

ラさんは何のために文集を作るのかといぶかしそうだった。私は日韓友好  
のためだと単純に答えた。そのために日本人と鬱陵島民の交流の内容を「思  
い出」として語ってもらい、それを文集として整理しようと思ったのだ。そ  
のような趣旨をチラシに書いていた。

라씨는 무엇 때문에 문집을 만드느냐고 의아한 듯했다. 나는 한일  
우호를 위해서라고 단순하게 대답했다. 그 때문에 일본인과 울릉도  
도민의 교류 내용을 「추억」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문집으로서  
정리하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취지를 전단지에 쓰고 있었다.

La seemed to wonder what I was going to make a collection of literature  
for. I simply answered that it was for the sake of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Japan, so I wanted them to talk about the contents of the exchange  
between the Japanese and Ulleungdo people as "memories" and organize  
them into a collection of literature. I wrote that purpose in the leaflet.



この文集は日本人が鬱陵島民に何をしたのかの「証言」を集めるようなものだ。日本人の私としては何かいいことも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期待したいが、植民地支配という関係からネガティブな証言が出てきても当たり前だ。いずれにしても、出てきた証言は無条件で文集に載せるつもりでいる。残念ながら、ラさんからは、それはいい活動だとは言ってもらえなかった。

이 문집은 일본인들이 울릉도 주민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증언'을 모으는 것과 같다. 일본인인 나로서는 뭔가 좋은 일도 있지 않았을까 기대하고 싶지만 식민지 지배라는 관계에서 부정적인 증언이 나와도 당연하다. 어쨌든 나온 증언은 무조건 문집에 실을 생각이다. 유감스럽게도 라씨로부터, 그것은 좋은 활동이라고는 말해주지 않았다.

This collection is like collecting "testimonies" about what the Japanese did to Ulleungdo people. As a Japanese, I hope that something good may have happened, but it's only natural that negative testimony comes out of the relationship of colonial rule. In any case, I intend to include the testimony that came out unconditionally in the collection. Unfortunately, Mr. La didn't tell me that it was a good activity.

ラさんは月曜日にあなたを「接待」したいから 11 時にここへ来て下さい、と言われた。自分がここへ赴任して人を接待するのは初めてだとも言った。私は嬉しく受け止め、その時本の感想もお聞かせ下さいと頼んだ。

라씨는 월요일에 당신을 접대하고 싶으니 11 시에 여기로 와 달라고 하셨다. 자신이 이곳에 부임해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처음이라고도 했다. 나는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때 책의 감상도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Mr. La invited me to come here at 11 o'clock on Monday He also said that it was his first time to entertain people from he came here. I was happy to accept it and asked him to tell me his thoughts about my books at that time.

独島教会の女性は教会幼稚園の園長先生らしい。ラさんが通訳してくれた。女性は、独島問題があるのになぜ来たのかというようなことを聞いた。誰しも思う疑問だ。鬱陵島が独島問題の前線であることは十分承知していたので、次のようなメモを予め作っていて、それを示した。

독도 교회 여자는 교회 유치원 원장 선생님인 것 같다. 라씨가 통역해줬다. 여성은 독도 문제가 있는데 왜 왔는지 같은 것을 물어봤다.

누구나 생각하는 의문이다. 울릉도가 독도 문제의 전선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미리 만들고 있었서 그것을 보였다.

The Dokdo church woman seems to be the director of the church kindergarten. Mr. La interpreted it for me. The woman asked me why I came here because there was a Dokdo problem. It's a question that everybody thinks of. As I was fully aware that Ulleungdo was the front line of the Dokdo problem, I had made the following notes in advance. I showed it to her.

\*\*\*\*\*

私は日本人だから、竹島は日本のものだと思う。

あなたは韓国人だから、独島は韓国のものだと思う。

ここでは、その議論は止めましょう。

私は領土問題を話すためにここに来たのではありません。

나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것이라고 생각해.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독도는 한국 것 같아.

여기서는 그 논의를 그만둡시다.

저는 영토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Since I am a Japanese, I think Takeshima belongs to Japan.

Since you are a Korean, you think Dokdo belongs to Korea.

Let's stop that discussion here.

I didn't come here to talk about territorial issues.

\*\*\*\*\*

私は独島問題については立ち入らないことにしていた。この問題について、部分的な情報だけしか知らない我々のような素人が議論しても、我が国のものだとただ主張するだけの疲労感の残る一方的な議論にしかならないと思うからである。

나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끼어들지 않기로 했었다. 이 문제에 대해 부분적인 정보만 아는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논의해도 우리 것이라고 그저 주장만 하는 피로감이 남는 일방적인 논의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I had made it a rule to stay out of the Dokdo matter. This is because I think that even if laypeople like us, who know only partial information,

discuss this issue, it will only be a one-sided argument with a sense of fatigue that merely claims to belong to our country.

女性に本を進呈したいと申し出ると夜8時に彼女がペンションに来るということになった。ちょっと遅過ぎると思いつつも了解した。

여성에게 책을 전달하고 싶다고 하자 저녁 8 시에 그녀가 펜션으로 오게 되었다. 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양해했다.

I offered to present books to her, and she came to the pension at 8 p.m. I thought it was a little too late, but I agreed.

ラさん宅でいろいろ話をしたが、印象に残っているのが上述のことだ。そこを辞去して坂道を下っていると、손さんに会ってちょっと会釈した。さらに下しているとかの園長先生に出会った。ちょうどよかった、何と声をかけたか覚えていないが、本を渡すためにペンションまで一緒に行った。

라씨 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인상에 남아 있는 것이 위에서 말한 것이다. 그곳을 떠나 언덕길을 내려가는데 손씨를 만나 잠깐 인사를 했다. 다시 내려가던 저 원장 선생님을 만났다. 마침 잘 됐다, 뭐라고 말을 걸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책을 전달하기 위해 펜션까지 함께 갔다.

I talked about a lot of things at La's house, but what impressed me was the above. As I left there and was going down the road, I met Ms. 손 and bowed a little. I was going down further, and met the director of kindergarten. It was just right. I don't remember what I said to her, but I went with her to the pension to give her the book.

彼女はペンション前の道路で待っていて、私は部屋に戻り袋詰めした二冊の本を持ってきて手渡した。彼女はそこから誰かに電話した。結構長い間話していた。本を渡したので私の目的は果たしたのだが、彼女の電話がなかなか終わらないので、その場を離れるわけにも行かなかった。電話の相手はラさんだった。彼女が電話を私に手渡してそれが分かった。ラさんが言うには、1) 独島の名前と幼稚園は関係がなく、近々名前を変えたいと思っている、2) 私に飲み物を贈りたいが何が好きか、この二つを言いたかったようだ。

그녀는 펜션 앞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방으로 돌아와 봉지에 담은 책 두 권을 가져와 건넸다. 그녀는 거기서 누군가에게 전화했다. 꽤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었다. 책을 건네서 제 목적은 다했지만 그녀의

전화가 좀처럼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었다. 전화 상대는 라 씨였다. 그녀가 스마트폰을 나에게 건네서 그것을 알았다. 라씨의 말로는, 1) 독도의 이름과 유치원은 관계가 없고, 조만간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2) 나에게 음료를 선물하고 싶지만, 무엇이 좋은지,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She was waiting on the road in front of the pension, and I went back to my room and brought two books packed in paper bags and handed them to her. She called someone from there. She had been talking for quite a long time. Having given her the books, I had fulfilled my intention, but I couldn't leave the place because her phone call didn't end easily. The person on the phone was Mr. La. She handed me the phone and I found out it. Mr. La says 1) Dokdo's name and kindergarten have nothing to do with each other, and she wants to change the name soon. 2) She wants to give me a drink. I thought she had seemed to want to say these two points.

1)については、ああ、そうですかと思っただけだ。Googleの地図上で、独島教会は「ヤンムン教会」となっている。この教会にしても私のペンションにしても「独島」と言う名前が付いている。他にも「独島」何とかというのがあっても知れない。しかし、私は独島問題に関わるつもりはないから、独島についてとやかく言うつもりもない。

1)에 대해서는, 아, 그런가 생각했을 뿐이다. 구글 지도상에서 독도 교회는 양문교회로 돼 있다. 이 교회 하더라도 내 펜션 하더라도 '독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그 밖에도 독도라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독도 문제에 관여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독도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

Regarding point 1), oh, I just thought so. On Google's map, the Dokdo church has become the "Yangmun Church." Both this church and my pension have the name Dokdo. There may be other things called "Dokdo." But I have no intention of involving in the Dokdo issue, and so I have no intention of discussing about Dokdo, too.

後で思ったことだが、政治的そして何か経済的な思惑が働いてそのような名前を付けたのかも知れない。独島の名前を冠すると特定の人々に対して受けるだろうし、結果、経済的にもプラスになるのではないか。率直に言って、この島で独島の名前を聞くとちょっと身を引きたくなるが、しかし、私が韓

国語が分からないからかも知れないが、独島と日本の関係で変な議論を吹きかけられたことはない。

나중에 생각한 일이지만 정치적 그리고 뭔가 경제적인 의도가 작용해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른다. 독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특정인에 대해 받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이 섬에서 독도의 이름을 들으면 좀 물러나고 싶어지는데, 하지만 내가 한국어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독도와 일본의 관계에서 이상한 의론을 퍼부은 사람은 없다.

What I thought later was that political and economic intentions might have worked to give such a name. If they give a name of Dokdo, they will receive evaluation from certain people, and as a result, it will be economically beneficial. Frankly speaking, hearing the name of Dokdo on this island makes me want to withdraw a little, but maybe it's because I can't understand Korean, I've never been bombarded any strange discussion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Dokdo and Japan.

2) については、私は何もいらないと断ったが、どうしても言うのなら酒がいいとラさんに伝えた。すると、教会の人だから酒はダメだとのこと。結局何ももらなかったが、それでいいのだ。それにしても、教会の人は酒を飲まないのかしら。ワインはキリストの血、パンは肉と聞いたことがあるが。

2)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거절했지만, 꼭 원한다면 술이 좋다고 라씨에게 전했다. 그랬더니 교회 사람이니까 술은 안 된다는 거. 결국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그건 그렇고, 교회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을까? 와인은 그리스도의 피, 빵은 고기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Regarding point 2), I declined her proposal, saying that I didn't want anything. However, I hesitantly mentioned to Mr. La that alcohol would be fine if she was really insistent. He explained that, as a member of the church, she refrains from drinking alcohol. In the end, I didn't receive anything, but that's all right. Even so, I wonder if church members really refrain from drinking. I've heard that wine represents the blood of Christ, and bread symbolizes His body."

さて、次は夕食。入ったところが三度目の正直。そんなつもりではなかったのだけど、去年 6 月間違って二回も行った食堂と同じ所だった。入って、あれっと思ったけど手遅れ。またビビンパと焼酎を注文。他の客はいなかった。一人の男性がいたが客ではなさそうだった。

자, 다음은 저녁 식사. 들어간 게 세 번째 정직.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작년 6 월에 실수로 두 번이나 갔던 식당과 같은 곳이었어. 들어가서 아차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또 비빔밥과 소주를 시켰다. 다른 손님은 없었다. 한 남자가 있었지만 손님은 아닌 것 같았다.

Well, next is dinner. It was third time's a charm. I didn't mean it, but it was the same place as the restaurant I went to twice by mistake last June. It was too late. I ordered bibimbap and sochu again. There were no other customers. There was a man, but he didn't seem to be a customer.

女性従業員に「去年の 6 月に来ましたが、私のこと覚えていますか」と予め用意していたメモを示した。そしたら、覚えているわ、とか何とか言ったのだろうが、手帳を開き去年の 6 月に撮った写真を取り出して見せてくれた。いつでも取り出せる手帳にしまっておいてくれたのだ。嬉しいではないか。そこでまた写真を取って渡した。

여종업원에게 「작년 6 월에 왔는데, 저를 기억하고 있습니까」라고 미리 준비해 둔 메모를 나타냈다. 그랬더니, 기억하고 있어, 라고 뭐라고 말했겠지만, 수첩을 열고 작년 6 월에 찍은 사진을 꺼내 보여 주었다.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수첩에 넣어두었던 것이다. 반가운 것이다. 그래서 다시 사진을 찍어서 건넸다.

I showed a memo to a female employee that I had prepared in advance, saying, "I came here last June. Do you remember me?" Then she might have said something like, "I remember," then she opened her notebook and took out a picture I took last June and showed it to me. She kept it in her notebook, which she could take out at any time. I'm glad to see that. So I took a picture again and gave it to her.

ビビンパを食べていると、さっきの男の人も加えて店の人が何やら料理を始めた。焼肉のようだ。うまそうな感じ。そんなものが食べたかった。それで、店の壁に貼ってあるメニューを指さして、その料理はこのメニューのどれかと聞くと、そこにはないと返事。賄い料理だ。ああ、残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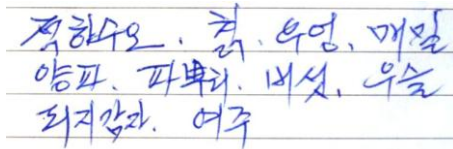
비빔밥을 먹고 있는데 아까 남자도 그렇고 가게 사람이 뭔가 요리를 시작했다. 불고기 같다. 맛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먹고싶었어. 그래서 가게 벽에 붙어 있는 메뉴를 가리키고, 그 요리는 이 메뉴 중 어느 것이냐고 물으면 거기에는 없다는 대답. 가게 사람들을 위한 식사다. 아이고, 아쉽다.

When I was eating bibimbap, the man and the staff of the restaurant started cooking something. It's like grilled meat. It looks delicious. I wanted to eat something like that. So I pointed to the menu on the wall of the restaurant and asked which one of the dishes was on this menu, and they replied that it was not there. It's a dish for restaurant workers. Oh, it was a bit disappointing.

藥草茶をご馳走してくれた。どんな藥草が入っているのかと聞くと、聞いても分からないから書いてもらったが、10種類の藥草の名前を書いた。

약초차를 대접해 주었다. 어떤 약초가 들어 있는냐고 물으면, 물어도 모르니 써달라고 했는데 10 가지 약초 이름을 썼다.

They treated me to herbal tea. I asked what kind of herbs were in it, but I couldn't understand to hear, I asked to write. They wrote 10 different herb names.



적하수오, 쑥, 우엉, 매실  
양파, 파뿌리, 배춧, 우슬  
외지향과, 여주

以前、大邱の藥令市という漢方藥市場に行ったことがある。その一角にある「藥令市展示館」を見学した時に「우리약초꽃 408 (私たちの藥草の花 408種)」という小冊子を買っていた。これと辞書で調べて分かるものもあったが、手書きのハングルが読めないものがあり、最終的には釜山の朴清九さんに教えてもらった。藥草の種類は次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

예전에 대구 약령시라는 한약시장에 간 적이 있다. 그 일각에 있는 약령시장 전시관을 견학했을 때 “우리 약 초꽃 408”이라는 소책자를 사고 있었다. 이것과 사전으로 조사해 알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손으로 쓴 한글을 읽을 수 없는 것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부산의 박청구씨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약초의 종류는 다음과 같았다.

I have been to a traditional herbal medicine market called Yakryeong Market in Daegu before. When I visited the Market Exhibition Hall in the market, I bought a booklet called “our herb flower 408”. There were some that I could find out the name by looking the book or dictionary, but there were some that I couldn't read handwritten Hangul, so I was eventually taught by Mr. Park Cheong-gu of Busan. The names of medicinal herbs were as follows.

적하수오	Red Fo-ti, Chinese Knotweed	赤何首烏 (つるドクダミ)
쑥	Kudzu	(갈근) 葛根
우엉	Burdock	(우방자) 牛蒡子 (ゴボウの種)
메밀	Buckwheat	(교맥) 蕎麦 (ソバ)
양파	Onion	玉葱 (タマネギ)
파뿌리	Green Onion Root	ねぎの根
버섯	Mushroom	きのこ
우슬	Achyranthes, Ox Knee	(쇠무릎) 牛膝 (いのこずち)
돼지감자	Jerusalem Artichoke	きくいも
여주	Bitter Melon	(고과) 苦瓜

何でも薬草になるという感じである。正直言ってこの種の物は苦手だ。あまりおいしいとは思わない。良薬口に苦しというところだろうか。

무엇이든 약초가 된다는 느낌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종류의 것은 질색이다. 별로 맛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양약 고구 (良藥苦口)”라고 하는 것일까.

Everything is like a medicinal herb. To be honest, I don't like this kind of thing. I don't think it tastes very good. Is that is “Good medicine tastes bitter”?

多分この日だったと思うが、夕食後ペンションの部屋でくつろいでいると、誰かがドアをノックする。ペンションのおばさんだった。このペンションのオーナーという人を連れてきた。50 歳前後のがっしりとした感じの男性だ。日本語が少しできた。名刺をくれというところに置いているといってくれなかった。日本人が泊まっているというのが珍しかったのだろうか。それは珍しいだろうと思う。だって、ここは日韓の政治的な接点の前線基地だ。



아마 이날이었던 것 같은데, 저녁 식사 후 펜션 방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펜션 주인 아주머니였다. 이 펜션 주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 50세 전후의 건장한 느낌의 남성이다.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았다. 명함을 달라고 하면 차에 두고 있다고 말해 주지 않았다. 일본인이 묵고 있다는 것이 드물었던 것일까. 그건 드물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여기는 한일의 정치적인 접점의 전선 기지이다.

I think it was probably this day, but someone knocks on the door while relaxing in the pension room after dinner. It was the mistress. She brought a man called the owner of this pension. He appeared to be a solidly built man around 50. He could speak Japanese a little. I asked for his business card, but he didn't give because it was in his car. I wonder if it was unusual for a Japanese to stay. I think that's unusual. Because here is the front base of the political contact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まあ、いずれにしても、今日は文具屋のご主人の 이정탁さん、独島教会幼稚園の園長さん、ペンションの「オーナー」など予想外の巡り合せがあった。손さんとラさんは予定していた人であった。独島ペンションも予想外の巡り合わせと言うべきかも知れない。文具屋のいさんにあった時、どこに泊まっているかと聞くので独島ペンションというと（実際は独島ペンションのキーを見せたのだが）、あそこの主人と自分はチングだという。旅は観光もさることながら、未知の人々との出会いも嬉しい。

아무튼 오늘은 문구점 주인 이정탁씨, 독도교회 유치원 원장, 펜션 주인 등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다. 손씨와 라씨는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었다. 독도 펜션도 뜻밖의 만남이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문구점의 이씨를 만났을 때, 어디에 묵고 있냐고 묻기 때문에 독도펜션이라고 하면(실제로는 독도펜션의 키를 보여줬는데), 그곳의 주인과 자신은 친구라고 한다. 여행은 관광뿐만 아니라, 미지의 사람들과의 만남도 반갑다.

Well, in any case, today, there were unexpected encounters such as 이정탁, the owner of a stationery store, President of Dokdo church kindergarten, and "owner" of a pension. Ms. 손 and Mr. La were the people I had planned. Dokdo Pensions may also be an unexpected encounter. When I was at the stationery store, Mr. 이 asked me where I was staying, so I said Dokdo pension (actually, I showed him the key of Dokdo pension),

he said he was a friend with the owner of the pension owner. Traveling is not only a sightseeing trip, but also meeting new and unexpected people in the travel is one of the joys+.

釜山のように人のつながりがスムーズに行かないが、年一回の訪島では時間がかかる。今日はこれで終わり。

부산처럼 사람의 제휴이 원활하지 않지만, 연 1 회 방문으로는 시간이 걸린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

People's connections are not as smooth as Busan, but it takes time to visit the island once a year. That's all for today.

3月18日(土) 独島博物館、日本人居住地  
 3월 18일(토) 독도 박물관, 일본인 거주지  
 March 18 (Sat) Dokdo Museum, Japanese Residence

当初予定は昨日終わっていたのでこの日は特に予定はなかった。新しい出会いを求めてただらうろするだけだ。

당초 예정은 어제 끝났기 때문에 이날은 특별한 예정이 없었다. 새로운 만남을 찾아 그저 어슬렁어슬렁 길을 뿐이다.

I didn't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is day because the original schedule was over yesterday. I just wander around looking for new encounters.



午前中は港へ行き被写体を探した。海を見ると何か落ち着く。3月はまだ観光はオフのようで、港は活気がなく、あの刺身センターは工事中であった。一隻の漁船が帰って来た。あまり大きくなかったが魚、そして大きなサザエ、巻き貝がざくざく水揚げされた。

오전중은 항구에 가서 피사체를 찾았다. 바다를 보면 뭔가 차분해진다. 3월은 아직 관광은 시즌오프 같고, 항구는 활기가 없어, 그 회센터는 공사중이었다. 어선 한 척이 돌아왔다. 별로 크지 않았지만 물고기, 그리고 큰 소라, 고둥이 다음부터 다음으로 어획되었다.

I went to the harbor in the morning and looked for the subjects. The sea calms me down. The sightseeing was still off in March, the harbor was lifeless, and that sashimi center was under construction. A fishing boat returned. It wasn't very big, but the fish, the big "sazae" and the maki-gai were landed one after another

刺身センターが工事中なので港の広場で調理が始まった。観光客が今水揚げされたばかりのイカやサザエ



の刺身を買っていた。また、食堂の経営者だろうか、18リットル缶山盛り一杯のサザエを買っていった。サザエの値段は 1kg 当たり 20000W とのことだった。

회센터가 공사 중이어서 항구 광장에서 조리가 시작되었다. 관광객들이 방금 잡힌 오징어나 소라 회를 사고 있었다. 또 식당 주인일까, 18L 캔으로 가득 찬 소라를 사갔다. 소라 값은 kg 당 20000W 라고 했다.

As the sashimi center is under construction, seafood preparation began right in the harbor square. Tourists were buying squid and "sazae" sashimi that had just been landed. Also, perhaps the owner of the restaurant, bought a pile of 18-liter cans of "sazae." The price of "Sazae" was 20,000W per kg.

さて、食事の場所にいつも困るのだが、今日は歴史文化体験センターの隣の食堂に入ってみた。お薦めは何かと聞くと、これだというのでそれにした。いつものことだが、それが何だか分からなかったが、それにした。食べてみると何とチャーハンだった。それにカレーライスのように上にハヤシライスのような茶色のルーがかかっていたので食べる前はそれが何だか分からなかった。まあ、日本流に言えばハヤシチャーハンという感じ。ここまではこんな食べ方もあるなというところ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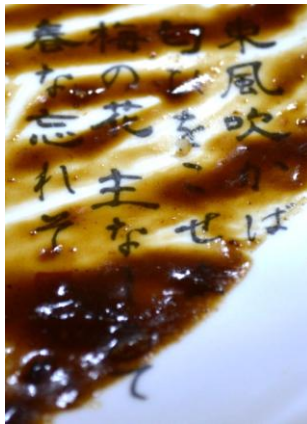
그런데 식사 장소가 늘 난감한데, 오늘은 역사문화체험센터 옆 식당에 들어가 보았다. 추천하는 게 뭐냐고 물으니 이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했다. 늘 하는 일이지만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걸로 했다. 먹어보니 무려 볶음밥이더라. 게다가 카레라이스처럼 위에 하야시라이스 같은 갈색 루가 걸려 있어서 먹기 전에는 그게 뭔지 몰랐다. 뭐, 일본식으로 말하면 하야시 볶음밥 같은 느낌. 여기까지는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점이다.

Well, I'm always having trouble with the place to eat, but today I went into the restaurant next to the History and Culture Experience Center. When I asked a waiter what he recommended, he said this was it, so I chose it. As always, I didn't know what it was, but I chose it. I tried it and found that it was fried rice. And there was a brown roux like hashed rice on top like curry and rice, so I didn't know what it was before I ate it. Well, in Japanese style, it's like Hayashi fried rice. Till here, I simply thought that there's a way to eat it like this.

さらに驚くことがあった。食べ終わると皿の底からあの菅原道真が出てきたのだ。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다. 다 먹고 나니 접시 바닥에서 저스가와라노 미치자네가 나온 것이다.

There was a thing even more surprising. When I finished eating, Michizane Sugawara appeared at the bottom of the plate.



東風吹かは  
kochi fukaba  
匂ひをこそよ  
nioi okoseyo  
梅の花主なしとて  
umeno hana aruji nasitote  
春な忘れそ  
haruna wasureso

現代語訳 현대어 역 modern language translation

(<https://ja.wikipedia.org/wiki/飛梅>)

\*\*\*\*\*

東風が吹いたら（春が来たら）芳しい花を咲かせておくれ、梅の木よ。大宰府に行ってしまった主人（私）がもう都にはいないからといって、春の到来を忘れてはならないよ。

동풍이 불면 (봄이 오면) 향기로운 꽃을 피워다오, 매화나무여. 다자이후에 가버린 주인(나)이 이제 도읍에 없다고 해서, 봄의 도래를 잊어서는 안돼.

When the east wind blows (when spring comes), let the fragrant flowers bloom, plum-tree. Just because your husband (I) who has gone to Dazaifu is no longer in the capital, you must not forget the arrival of spring.

\*\*\*\*\*

私が日本人だと分かってこの皿を使ったのかしら。後からいろんな疑問が生じたが、何も聞かずに食堂を出たのが残念。次回行ったときは聞いてみよう。

내가 일본인인 걸 알고 이 접시를 사용했을까? 나중에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식당을 나온 것이 아쉽다. 다음에 갔을 때는 물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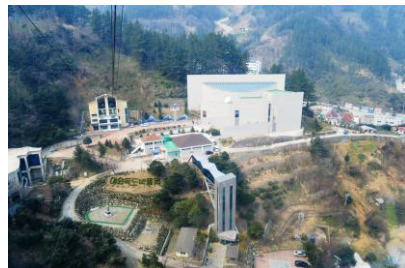
I wonder if they used this plate when they found out I was a Japanese. There were many questions later, but it was unfortunate that I left the restaurant without asking anything. Let's ask the next time I go.

次は、昨年は工事中で入館できなかった独島博物館。博物館は港から10分くらい坂を上ったところにあるが、その少し手前に土産物屋がある。乾物屋さんで女性が店番をしていた。買い物はしなかったが写真を撮らせて下さいと頼むと、すぐにいいよとのポーズ。色白の可愛らしいお母さんだった。



다음은 지난해 공사 중이라 입장하지 못했던 독도 박물관. 박물관은 항구에서 10 분 정도 언덕을 올라간 곳에 있는데, 그 도중에 기념품 가게가 있다. 건어물 가게에서 여성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쇼핑은 하지 않았지만 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바로 좋다는 포즈. 살갗이 희고 사랑스러운 사람였다.

Next is the Dokdo Museum, which was under construction and could not be admitted last year. The museum is about 10 minutes uphill from the harbor, but there is a souvenir shop just before it. A woman was on the watch at a dry foods store. I didn't shop, but I asked her to let me take a picture, she immediately showed a pause of OK. She was a lovely fair-skinned lady.



独島博物館は山の斜面に建っている。鬱陵島の建築物はだいたいそん

な感じだ。入館は無料だったと思うが忘れた。この時の見学者は私意外に誰かいたかしら。

もともと観光客が少ない時期だったからそんなもんだろう。

독도 박물관은 산비탈에 서 있다. 울릉도의 건축물은 대체로 그런 느낌이다. 입관은 무료였다고 생각하지만 잊었다. 이때의 견학자는 나 말고 누가 있었을까? 원래 관광객이 적은 시기여서 그런 것이다.

The Dokdo museum stands on the slope of the mountain. Most of Ulleungdo's buildings look like that. I think the admission was free, but I forgot. I wonder if there were any visitors at this time. Because originally it was a season off time, there was few visitors.

日本語 Wikipedia の「独島博物館」の項によるとによると「独島博物館の八道総図のレリーフで、本来の地図とは逆に于山島の位置が鬱陵島の西から東（竹島の位置）に移動してあり、于山島を竹島とする韓国の主張に合うように捏造されていることが下條正男によって指摘された。（『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藝春秋〈文春新書〉、2004年4月）」とのこと。

일본어 Wikipedia 의 '독도 박물관' 항에 의하면 "독도 박물관의 팔도총도의 릴리프로, 본래의 지도와는 반대로 우산도의 위치가 울릉도의 서쪽에서 동쪽(다케시마의 위치)으로 이동하고 있어 우산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는 한국의 주장에 맞도록 조작되고 있다는 것이 시모조 마사오에 의해 지적되었다.("다케시마는 한일 어느 쪽인가" 문예춘추(문춘신서, 2004년 4월)"라고 한다.

According to the Dokdo Museum section of Wikipedia in Japanese, "In contrast to the original map of the Dokdo Museum, the location of Usando moved from west to east (Jukdo location) of Ulleungdo, which was fabricated to match Korea's claim that Usando Island was Jukdo." "Bungei Shunju (New Book of Bunshun, April 2004)"

リニューアルされた独島博物館はそんなことも修正されたとは思いますが、詳しくは見なかった。説明がハングルだし、この地に来て独島問題に立ち入るつもりがないからだ。日韓両国の主張が異なるのだから仲裁裁判所のようなところで議論すれば良いと思う。韓国の人々にもそう呼びかけたい。我々素人が「偏狭な民族意識」で自分のものだと言い張っても空虚だ。

새로 단장한 독도 박물관은 그런 것도 수정됐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지는 않았다. 설명이 한글이고, 이 땅에 와서 독도 문제에 끼어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의 주장이 다르니 중재재판소 같은 곳에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호소하고 싶다. 우리 소인들이 편협한 민족의식으로 자기 것이라고 우겨도 공허하다.

I think the renewed Dokdo museum has also been modified, but I didn't look at it in detail. This is because the explanation is Hangul, and I have no intention of coming to this place and entering the Dokdo problem. Since the arguments of the two countries are different, I think it would be good to discuss the problem in a place like the arbitration court. I would also like to call on the Korean people to do so. It is hollow for us laymen to claim that it belong to us with "narrow-minded racial consciousness".

私は日本の博物館でもだいたいあまり細かく見ない。さっと見てすぐ出てしまう。本当に知りたいことはインターネットか本で調べる。ガラス越しに展示されたものを根を詰めて見るのは疲れる。

나는 일본 박물관에서도 대체로 너무 자세히 보지 않다. 쓱 보고 끝나가 버린다. 정말로 알고 싶은 것 인터넷이나 책으로 알아본다. 유리 너머로 전시된 것을 골똘히 들여다보는 것은 피곤하다.

I don't usually look at Japanese museums in detail. I go out as soon as I quickly look at it. I study on the Internet or in books what I really want to know. It's tiring to look precisely at things displayed through glass.

受付嬢に李承鎮館長はいるかと聞くと、今日は土曜日で勤務日ではないのでいないという返事。アポなしだったし、まあ、仕方ないことだ。昨年、初めて鬱陵島を訪問した時、誰も知人がいないので、この独島博物館にまずは行って私を受け付けてくれた人に私の思いを伝えるつもりでいた。そしてこの時は博物館がリニューアル工事中でこれが叶わなかった。結果として、次に行こうと思っていた「일본식 가옥 (日本式家屋)」で許さん、케이코さんに会うことになった。偶然とは面白いものだと思う。今年の訪問では少し状況が変わったが、この受付嬢にチラシを渡して帰った。





접수양에게 이승진 관장은 있냐고 물더니 오늘은 토요일이고 근무일이 아니어서 없다는 대답. 약속이 없었고,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지난해 처음 울릉도를 방문했을 때 아무도 지인이 없기 때문에 이 독도 박물관에 우선 가서 나를 받아준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때는 박물관이 리뉴얼 공사 중이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다음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던 「일본식 가옥」에서 허씨, 케이코씨를 만나게 되었다. 우연이란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방문에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지만, 이 접수양에게 전단지를 건네고 돌아왔다.

When I asked the receptionist if there was a director Lee Seung-jin, she replied that today was Saturday and it was not his working day, so, he was not here. I did not make an appointment, so it could not be helped. When I first visited Ulleungdo last year, I had no acquaintances, so I was going to go to this Dokdo museum first and express my thoughts to the person who accepted me. And at that time, the museum was under renewal construction and this was not realized. As a result, I met Ms. Heo and Ms. Keiko at the Japanese style house where I was thinking of going next. I think chance is interesting. Things changed a little during this year's visit, but I handed this receptionist a leaflet and got out there.

写真上の英文は「Real-time Filming of Video on Dokdo」と書いてあり、画面右下には「KBS LIVE Dokdo」とある。独島の様子をリアルタイムで中継しているようだ。

사진상 영문은 Real-time Filming of Video on Dokdo 라고 쓰여 있고 화면 오른쪽 하단에는 KBS LIVE Dokdo 라고 되어 있다. 독도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 같다.

The English text on the photo says "Real-time Filming of Video on Dokdo" and "KBS LIVE Dokdo" is on the lower right corner of the screen. It seems they are broadcasting live footage of Dokdo.

博物館の手前は「독도야외박물관」(独島野外博物館)になっている。植木がそのような文字に刈り込まれている。この野外博物館にいくつか碑が立っているが、その一つが「대마도는 본시 우리 나라 땅 對馬島本是我國之地 世宗實錄卷四世宗元年」というものだ。對馬は元々われわれの領土だという主張だ。台座には次のように書かれている。

박물관 바로 앞은 독도 야외 박물관으로 꾸며졌다. 식목이 그런 글자로 다듬어져 있다. 이 야외 박물관에 몇 개의 비가 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대마도는 본시 우리 나라 땅 對馬島本是我國之地 世宗實錄 卷四 世宗元年」이라는 것이다. 대마도는 원래 우리 땅이라는 주장이다. 대좌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In front of the museum is the 독 박물관 ( Dokdo Outdoor Museum). Plants are cut into such letters. There are several monuments standing in this outdoor museum, one of which is called 대마도는 본시 우리 나라 땅 (Tsushima is originally belong to our territory) King Sejong's Real Records the 4th volume, The Sejong 's first year. They claim that Tsushima was originally our territory. The pedestal is inscribed as follows.



이 지도는 1952 년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豊臣秀吉) 의 명령으로 구끼 (九鬼喜隆) 등이 제작한 것으로서 조선의 영토를 나타낸 것인데, 대마도가 우리의 땅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지도의 원본은 현재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この地図は、1952 年 壬辰倭乱当時豊臣(豊臣秀吉)の命令で九鬼(九鬼喜隆)などが制作し朝鮮の領土を示したもので、対馬が私たちの領土として表記されている。この地図の原文は、現在の日本の国立公文書館に所蔵されている。

This map was produced by Yoshitaka Kuki and others under the orders of Hideyoshi Toyotomi during Jinshin wa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952 and shows the territory of Korea, and Tsushima is marked on our land. The original text of this map is now in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日本人が描いた朝鮮の地図に対馬が含まれているので、対馬はもともと韓国のものだという論法である。小倉紀蔵(「歴史認識を乗り越える 日中韓の対話を阻むものは何か」講談社現代新書 1819 2005 年 講談社)は次のように指摘している。

일본인이 그린 조선지도에 대마도가 포함 되어있으므로 대마도는 원래 한국의 것이라는 논법이다. 오구라 키조(「역사 인식을 뛰어넘다. 일·중·한의 대화를 저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단샤 현대신서 1819 2005 년 고단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Since Tsushima is included in the map of Korea drawn by the Japanese, it is a logic of that Tsushima originally belong to Korea. Kizo Ogura ("What stops Japan, China, and South Korea from talking to each other, Overcoming the perception of history" Kodansha Modern New Book 1819, 2005 Kodansha) pointed out as follows.

\*\*\*\*\*

たとえば、竹島（韓国名。独島）の領有権問題に対して、韓国ではこれを『学問的な検証の結果、日本の領土と考えられる』とする学者はひとりもないが、日本にはこれを『韓国の領土である』とする有力な学者が多くいる。そして韓国の学者が『独島は韓国領』と主張する際の強力な論拠を、これら日本人学者は実証的で緻密な研究により提供しているのであり、『梶村秀樹、堀和生、内藤正中らが主張しているように』という形で韓国人学者の論文に引用されるのである。

純粹に学問的見地からいって、日本の学者の見解に複数の論が存在しうる問題に関して、韓国の学者においてはただひとつの論しか存在しえないということは、そこに何らかの政治性が介在していると考えるのが妥当であろう。事は竹島問題に留まらない。従軍慰安婦問題にせよ、植民地近代化論にせよ、すべての歴史問題・領土問題においてこのような構造が見て取れるのである。

\*\*\*\*\*

예를 들어 다케시마(한국명.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는 이를 학문적 검증 결과 일본의 영토로 생각할 수 있다는 학자가 한 명도 없지만 일본에는 이를 한국의 영토라고 보는 유력한 학자가 많다. 그리고 한국 학자들이 『독도는 한국령』이라고 주장할 때의 강력한 논거를, 이들 일본인 학자들은 실증적이고 치밀한 연구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가치무라 히데키, 호리 가즈오, 나이토 세이추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라는 형태로 한국인 학자들의 논문에 인용되는 것이다.

순수하게 학문적 견지에서 일본 학자의 견해에 복수의 논이 존재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 한국 학자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논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거기에 어떠한 정치성이 개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다케시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종군 위안부 문제든, 식민지 근대화론이든, 모든 역사문제·영토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를 알 수 있다.

\*\*\*\*\*

For example, in relation to the territorial dispute of Takeshima (Korean name: Dokdo), there is not a single scholar in Korea who asserts it as Japan's territory after academic verification, but there are many influential scholars in Japan who consider it as Korea's territory. When Korean scholars claim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these Japanese scholars provide strong grounds for arguments through demonstrative and precise research to them. Korean scholars cite the arguments in their paper in the form of 'As Hideki Kajimura, Kazuo Hori, and Seichu Naito claim'.

From a purely academic point of view, regarding the issue where multiple theories can exist in Japanese scholar views, but there can be only one theory in Korean scholars. It would be reasonable to think that there is some kind of political intention involved. Takeshima issue is not the only on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or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are also like this. In all historical and territorial issues, like this structure can be seen.

\*\*\*\*\*

これは、自由であるべき学問の世界でも、韓国では政治的圧力で異論を唱えることが難し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指摘である。異論を弾圧し「一枚岩」を保とうとしている国はいろいろあるが、韓国もその国の一つだとすれば残念である。

이는 자유로워야 할 학문의 세계에서도 한국에서는 정치적 압력으로 이론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론을 탄압하고 '일매암'을 유지하려는 나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도 그 나라 중 하나라면 안타깝다.

This is pointed out that even in the academic world, which should be free, academic dissent may be stifled by political pressure in Korea. There are many countries that are trying to suppress dissent and maintain "monolithic", but it would be disappointing if Korea was one of them.

ついでながら、私の率直な思いを書いておこう。日本語の「わっしょい」というかけ声は韓国語が語源だという人がいた。「わっしょい」というかけ声は、広辞苑第六版によると、例えば、夏祭りの神輿を担ぐ時など、重いものを大勢で一緒に担ぐ時のかけ声だ。広辞苑は語源に言及していないが、韓国語がその語源であっても私には何の問題もない。ハングルが言語学的に世界で一番優れているという話しも聞いたことがある。

검사검사하면서 나의 솔직한 생각을 적어두자. 일본어의 '와쇼이'라는 구호는 한국어가 어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와쇼이"라는 구호는 코지엔 제 6 판에 따르면 예를 들어 여름 축제의 신여를 짊어질 때 등 무거운 물건을 여럿이 함께 짊어질 때의 구호다. 코지엔은 어원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어가 그 어원이라고 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글이 언어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다.

Incidentally, I would like to write down my honest thoughts. Some people said that the Japanese word "washoi" originated from Korean. According to the sixth edition of Kojien, "Washoi" is a shout when many people carry heavy things together, such as carrying a portable shrine at a summer festival. Kojien does not mention the etymology, but I have no problem even if Korean is its etymology. I've heard that Hangul is the best linguistically in the world.

いろいろなことについて「韓国発祥」「韓国一番」という言葉を聞くと、他の日本人は知らないが、私は、またまた、という気分になる。それが事実かどうかではなく、その上から視線が鬱陶しい。このようなことは欧米人にも言っているのであろうか。それとも日本人にだけ言っているのだろうか。

여러 가지에 대해 '한국 발상', '한국 제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른 일본인은 모르지만, 나는 또, 라는 기분이 든다. 그게 사실이나 아니냐가 아니라 그 위로부터의 시선이 울적하다. 이러한 것은 구미인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일본인에게만 말하는 것일까.

When I hear the words "Korea is origin" or "Korea is number one" about various things, I feel like it again, though I don't know other Japanese think so. It's not whether it's true or not, but the sense of superiority feels oppressive. I wonder if they are saying this to Westerners, too. Or are they only telling the Japanese?

田中明(「物語韓国人」文春新書 188、2001 年 (株)文藝春秋)は「優越意識と裏腹な自信のなさ」と指摘している。優越意識という心理的補償は朱子学に起源がありそうだ。「朱子学は、妥協を許さぬ方向へ人を駆り立てる思想」だとも言っている。かつて韓国では朱子学のイデオロギーで武装した人々がリーダーであった。

다나카 아키라(이야기 한국인 문춘신서 188, 2001 년 문예춘추)는 “우월의식과 상반된 자신감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우월의식이라는 심리적 보상은 주자학에 기원이 있을 듯하다. “주자학은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사상”이라고도 했다. 과거 한국에서는 주자학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지도자였다.

Akira Tanaka ("Story Korean" Bunshun New Book 188, 2001 Bungei Shunju) pointed out that "a sense of superiority and a reverse lack of confidence." The psychological compensation of superiority consciousness seems to have originated in Zhuziology. It is also said that "Zhuziology is an idea that drives people in a direction that does not allow them to compromise." In the past, in Korea, people armed with the ideology of Zhuziology were the leaders.

また、韓国文化に関連して小倉紀蔵は「日本や中国や西欧の多様性を否定して一面化し、そしてその否定の姿として韓国の多様性をも否定してしまう」(小倉紀蔵「韓国は一個の哲学である <理>と<氣>の社会システム」講談社現代新書 1430 1998 年 講談社)とも指摘している。

또한 한국문화와 관련하여 오구라 기조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서구의 다양성을 부정하여 일면화하고, 그리고 그 부정의 모습으로서 한국의 다양성도 부정해 버린다"(오구라 기조 "한국은 하나의 철학인 <이>와 <기>의 사회시스템" 고단샤 현대신서 1430, 1998 년 고단샤)라고도 지적하고 있다.

In relation to Korean culture, Kizo Ogura states, "They deny the diversity of Japan, China, and the West, reducing them to a single perspective, and as a consequence of this denial, they also negate the diversity of Korea itself. (Kodansha Modern New Book 1430 1998 Kodansha).

以上のような指摘は、いわゆる「嫌韓派」の言葉ではなく、韓国で暮らし韓国で研究し、韓国を理解しようとしている人々の学問的な指摘である。日本では韓国人の著者が韓国を批判的に描写している本も売られている。

이상 같은 지적은 이른바 혐한파의 말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며 한국에서 연구하고 한국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학문적인 지적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인 저자가 한국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도 팔리고 있다.

The above points are not the so-called "anti-Korean" words, but the academic points of those who live in Korea and study in Korea and try to understand Korea. In Japan, books that Korean authors describe Korea critically are also being sold.

このようなことを書くと韓国の人々は面白くないであろう。しかし、このような考えもあることを知り、「多様性」に目を向け、それを批判的に検討してほしいと思う。それが日韓友好の前進につながると信じる。

이런 것을 쓰면 한국 사람들은 재미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있음을 알고 다양성에 눈을 돌려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그것이 한일 우호의 전진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Comments like these may be unwelcome to Korean readers. However, I would like them to know that there are also such an ideas, and I would like them to look at "diversity" and examine it critically. I believe that this will lead to the advancement of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Japan.

さて、話がずいぶんそれたが、次は  
 独島展望台。博物館の隣にケーブル  
 カー乗り場がある。7500W、約 750 円  
 だ。ケーブルカーで望郷峰 (317.3m)  
 という山の頂上に行き、着いた所が  
 展望台だ。展望台には売店があり、い  
 ろいろな土産物も売っている。展望  
 台から独島方面を眺めるも霞んでい  
 て、海と空の境界の水平線も判然と



しなかった。昨年訪ねた時はもう少し良かったが、それでもやっぱり独島は見えなかった。展望台の左下には道洞港が少し見える。フェリーが接岸していた。

자, 이야기가 한참 어긋났는데, 다음은 독도 전망대. 박물관 옆에 케이블카 타는 곳이 있어. 7500W, 약 750 엔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망향봉(317.3m)이라는 산 정상에 올라 닿은 곳이 전망대다. 전망대에는 매점이 있고 다양한 기념품도 팔고 있다. 전망대에서 독도 방향을 바라보는 것도 흐릿했고, 바다와 하늘의 경계 수평선도 분명치 않았다. 작년에 방문했을 때는 조금 더 좋았지만, 그래도 역시 독도는 보이지 않았다. 전망대 왼쪽 아래로는 도동항이 조금 보인다. 페리가 접안하고 있었다.

By the way, next is the Dokdo Observatory. There is a cable car stand next to the museum. It costs 7500W, about 750 yen. The observatory is where I reached the top of the mountain called Manghyangbong (317.3m) by cable car. There is a shop at the observatory and they sell a variety of souvenirs. Looking at the Dokdo direction from the observatory, it was hazy, and the horizon between the sea and the sky was not clear. It was a little better when I visited last year, but I still couldn't see Dokdo. Dodong Port is slightly visible in the lower left corner of the observatory. The ferry docked.

次は苧洞に行った。歴史文化体験センターに寄り、許さんにバスの時間と乗り方を教えてもらい、バス停に向かった。昨年は道洞だけに滞在したが、今回は島内を周遊するつもりでいた。なぜ苧洞かというと、道洞から近いし、かつて日本人が多く住んでいた所だからだ。

다음에 저동에 갔다. 역사문화체험센터에 들러 허 씨에게 버스 시간과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버스정류장으로 향했다. 지난해에는 도동에만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섬 안을 주유할 생각이었다. 왜 저동이나면 도동에서 가깝고 과거 일본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기 때문이다.

Next, I went to Jeodong. I stopped by at the History and Culture Experience Center and asked Huh to tell me the bus time and how to get on the bus, and headed for the bus stop. Last year, I stayed only in Dodong, but this time I planned to travel around the island. The reason why Jeodong is because it is close to Dodong, and it is a place where many Japanese lived in the past.



明治 40 年 (1907 年) に発行された「竹島及鬱陵島」(奥原碧雲 復刻版ハーベスト出版 松江市 2005 年)によると当時の鬱陵島における日本人居住地と日本人の数は次のようになっていた。明治 39 年 2 月の時点で 303 人の日本人が鬱陵島にいた。

페이지 40 년(1907 년)에 발행된 「다케시마 및 울릉도」(오쿠하라 벅운 북각판 하베스트 출판 마츠에시 2005 년)에 의하면 당시 울릉도의 일본인 거주지와 일본인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페이지(明治) 39 년 2 월 시점에서 303 명의 일본인이 울릉도에 있었다.

According to "Takeshima and Ulleungdo" (Reproduced by Okuhara Heikun, Harvest Publishing, Matsue City 2005), the Japanese residence and number of Japanese on Ulleungdo at that time were as follows. As of February 1909, 303 Japanese were on Ulleungdo.

また、「たけしまに暮らした日本人たち 韓国鬱陵島の近代史」(福島裕二 風響社 東京 2013)によると、1917 年 9 月 30 日現在の 540 戸、1670 人をピークに終戦の 1945 年までほぼ単調に減少している。この年の朝鮮人の戸数と人口のデータは記載されていないが、翌年の 1918 年および終戦直前の 1944 年は次のようになっている

또한 '다케시마에 살았던 일본인들 한국 울릉도의 근대사'(후쿠시마 유지 후교사 도쿄 2013)에 따르면 1917 년 9 월 30 일 현재 540 호, 1670 명을 정점으로 종전인 1945 년까지 거의 단조롭게 감소하고 있다. 이 해의 조선인 호수와 인구 데이터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듬해인 1918 년 및 종전 직전인 1944 년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Japanese Who Lived in Takeshima: The Modern History of Korea's Ulleungdo' (Yuji Fukushima, Fukyosha, Tokyo, 2013),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population peaked at 540 households and 1,670 people as of September 30, 1917, and then decreased almost monotonically until the end of the war in 1945. The data for the number of Korean households and population in that year is not recorded, but the figures for the following year, 1918, as well as right before the end of the war in 1944, are as follows.

鬱陵島部落別日本人在島者数 (明治 39 年 2 月末日調)  
 울릉도 부락별 일본인 재도자수 (1896 년 2 월 말일조)  
 Number of Japanese residents on Ulleungdo by district  
 (The end of Feb. 1899)

地名지명 District	戸数호수 Houses	男남자 Male	女여자 Female	計계 Total
道洞 도동 Dodong	51	113	68	181
苧洞 저동 Jeodong	6	12	9	21
苧洞ノ内 臥達里 저동의내 와달리 Wadal-ri	1	3	0	3
天府洞ノ内竹岩洞 천부동의내 죽암동 Jukamdong	5	7	5	12
新村洞 신촌동 Sinchondong	1	1	1	2
玄浦 겐포 Genpo	2	3	2	5
天府洞ノ内昌浦 천부동의내 창포 Changpo	1	2	1	3
臺霞洞 대하동 Daehadong	4	8	5	13
南陽洞 남양동 Namyang-dong	12	15	11	26
通九味 통구미 Tonggumi	9	17	8	25
長興洞 장흥동 Jangheungdong	1	1	1	2
玉泉洞 옥천동 Okcheondong	1	3	—	3
沙洞 사동 Sadong	2	4	3	7
合計 합계 Total	96	189	114	303

調査年月日 조사 연월일 Date of Investigation	朝鮮人戸数 조선인 호수 Korean households	朝鮮人人口 조선인 인구 Korean population	日本人戸数 일본인 호수 Japanese households	日本人人口 일본인 인구 Japanese population
1918.9.30	1,445	8,513	430	1,503
1944.9.30	2,466	15,651	109	479

出典：福島裕二著「たけしまに暮らした日本人たち 韓国鬱陵島の近代史」  
 (風響社 東京 2013 表 2 鬱陵島における朝鮮人／日本人の戸数・人口

の変化 (1910-1945))

출처 : 후쿠시마 유지 저 「다케시마에 살았던 일본인들, 한국 울릉도의 근대사」(후쿄사 도쿄 2013, 표 2 울릉도 조선인/일본인 호수・인구의 변화(1910-1945))

Source: "The Modern History of Ulleungdo, South Korea" by Yuji Fukushima (1910-1945) (Fukyoha Tokyo 2013 Table 2 Changes in the number of houses and population of Koreans/Japanese in Ulleungdo)

日本の朝鮮支配が終わる 1945 年までかなりの日本人が鬱陵島で生活していた。日本の植民地支配という関係の中で、日本人が鬱陵島の島民にどんな影響を与えたのか知りたいと思ったので、昨年から調査のために島訪問を始めた。しかし、私が韓国語を話せないので思うように進んでいない。

일본의 조선 지배가 끝나는

1945 년까지 상당한 일본인이 울릉도에서 생활하였다. 일제강점기라는 관계 속에서 일본인들이 울릉도 섬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고 싶어 지난해부터 조사를 위해 섬 방문을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한국어를 못해서 뜻대로 되고 있지 않아.

Until 1945, when Japan's rule of Korea ended, a considerable number of Japanese lived on Ulleungdo. In the relationship of Japanese colonial rule, I wanted to know how the Japanese affected the islanders of Ulleungdo, so I started visiting the island last year for research. However, since I can't speak Korean, it hasn't progressed as much as I want.

初めて乗り合いバスに乗った。道洞から峠を一つ越えると苧洞の町がある。左の写真はその峠辺りで撮ったもので、窓越しに苧洞の港が見えた。

처음으로 합승 버스를 탔다. 도동에서 고개 하나를 넘으면 저동 마을이 있다. 오른쪽 사진은 그 고개 근처에서 찍은 것으로 창문 너머로 저동 항구가 보였다.



道洞のバス発着場  
도동 버스 발착장  
Bus stop in Dodong



I got on the bus for the first time. If you cross one pass from Dodong, you will find Jeodong Village. The picture on the right was taken around the pass, and I could see the port of Jeodong through the window.

苧洞は集落としては道洞より小さいようだが、その漁港はかなり大きい。  
저동은 취락으로는 도동보다 작은 것 같지만 그 어항은 상당히 크다.

Jeodong seems to be smaller than Dodong as a village, but its fishing port is quite large.



苧洞の漁港。全長 100m くらいはあるだろうか  
저동어항. 길이가 100m 쯤 될까

A fishing port in Jeodong. It's about 100 meters long.



漁港に面した道路（上の写真の黄色いバスが写っている道路）から一つ左側の路地に入ると、これがメイン商店街のようであったが、まだ閑散としていた。

어항에 접한 도로(위 사진의 노란 버스가 찍혀 있는 도로)에서 하나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니 이것이 메인 상가 같았지만 아직은 한산했다.

From the road facing the fishing port (the road with the yellow bus in the picture above), I entered the alley on the left, and this looked like the main shopping district, but it was still quiet.

漁港は閑散としていたが、それでもいくつか露店が出ていた。紅色の蟹を売っていた。名前を聞くと「홍게」と書いてくれた。辞書を引くとそのまま「紅蟹」であった。この蟹屋さん、翌日道洞で会った。石昌熙さん。後でメモ帳を見てみると住所も書いてくれていた。道洞の人だった。下の帽子のお

ばさん、社長さんらしい。石さんがそう言っていた。あの店だという所に行ってみたが、工事中であった。本格的な観光シーズンを迎えるために工事中の所が多か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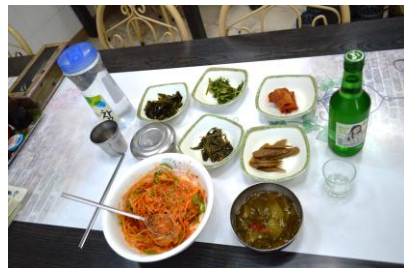
어항은 한산했지만 그래도 몇 개의 노점이 나와 있었다. 다홍색 게를 팔고 있었다. 이름을 물으니 '홍게'라고 써 주었다. 사진을 찾아보니 그대로 홍색 게였다. 이 게집 다음 날 도동에서 만났어. 석창희씨. 나중에 메모장을 보니 주소도 써주고 있었다. 도동 사람이었다. 밑에 모자 아주머니, 사장님인 것 같아. 석씨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 가게라는 곳에 가봤는데 공사 중이었어.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이하기 위해 공사 중인 곳이 많았다.



The fishing port was quiet, but there were still several stalls. A stall was selling red crabs. When I heard the name, the owner wrote 홍게. I looked up the dictionary, it was just "red crab." I met this crab shop owner next day in Dodong. Mr. Seok Changhee, later I looked at my note memo, he wrote down his address, too. He was from Dodong. The lady put on hat below seems to be the boss. Mr. Seok said so. I went to the store of her, but it was under construction. Many places were under construction for the full-fledged tourist season.

夕食をどの店で食べたか忘れたが、写真を見るとまた刺身どんぶりを食べたようだ。店主の写真も撮っているので、次回行ってみよう。

저녁을 어느 가게에서 먹었는지 까먹었는데, 사진을 보니 또 회덮밥을 먹은 것 같다. 가게 주인 사진도 찍고 있으니 다음에 가보자.



I forgot which restaurant I had dinner at, but looking at the picture, I think I ate sashimi bowl again. I'm also taking pictures of the owner of the shop, so let's go there next time.



3月19日(日)島の反対側に行ってみる

3월 19일(일) 섬 반대쪽으로 가보기

March 19 (Sun) Exploring the other side of the island

この日は以前から思っていたバスでの「島一周」を試みた。観音島と之守田の間はバス路線が開通していないので、完全に一周ではないがそれに近いものだ。昨日、苧洞に乗り合いバスで行ったのでバスの乗り方は分かっていた。

이날은 예전부터 생각했던 버스로 섬 일주를 시도했다. 관음도와 대수전 사이는 버스 노선이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한 바퀴는 아니지만 그에 가까운 것이다. 어제 버스를 타고 저동에게 갔기 때문에 버스 타는 방법은 알고 있었다.

On this day, I tried to "go around the island" by bus that I had always thought of. Since there is no bus route between Gwaneumdo and Naesujeon, it is not completely a round, but it is close to it. I knew how to get on the bus because I went to Jeodong by bus yesterday.

道洞を8時30分に出発、途中海岸線を通り、峠を越え、そんなに快適ではなかったが、初めてのこともあり退屈しない景色であった。

도동에서 8시 30분에 출발, 중간에 해안선을 지나 고개를 넘어 그리 쾌적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인 것도 있고 지루하지 않은 경치이었다.

I left Dodong at 8:30 AM, passing along the coastline and crossing several mountain passes. Though the ride wasn't comfortable, it was the first time, the novelty kept it interesting.

道洞を出て最初にバスを降りたのは天府である。天府にもかつて日本人が住んでいた、当初から行ってみたいと思っていた。そして、その痕跡も探したかつ



た。もちろん文集成成のよびかけと釜山の文集も持参して、誰でもよい、たまたま出会った人にでも手渡そうと考えていた。

도동을 나와 가장 먼저 버스를 내린 곳은 천부이다. 천부에도 일찍이 일본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적도 찾고 싶었다. 물론 문집 작성의 호소문과 부산의 문집도 지참하여, 누구라도 좋다,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라도 전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Cheonbu was the first place to get off the bus after leaving Dodong. There used to be a Japanese living in Cheonbu, so I wanted to go there from the beginning. And I wanted to find traces of it. Of course, I was thinking of bringing a call for writing a collection of literature and a collection of literature from Busan, and handing it to anyone I happened to meet.

写真は西面と北面の境界の峠。右下の白い石碑には「태고의 신비를 담은 북면 (太古の神秘が宿る北面)」とあった。これ以降太古の火山島の痕跡がいろいろなところで見られるようになる。



사진은 서면과 북면의 경계 고개. 오른쪽 아래 흰 비석에는 '태고의 신비를 담은 북면이라고 했다. 이후 태고의 화산섬의 흔적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This picture shows a pass on the border between Seomyeon and Bukmyeon. The white stone monument in the lower right corner says "고의 신비를 담은 북면 (Bukmyeon where ancient mysteries dwell)" From now on, traces of ancient volcanic islands will be seen in many places.

遠目に目立つのは尖った岩や山だ。Wikipediaによると「岩頸(がんけい)あるいは岩栓(がんせん)、突岩(とつがん)とは、火道内のマグマが硬化してできた形成物である。火山が侵食によって削られて、火道内の岩栓が地表に現れた地形を岩頸または突岩と呼ぶ。活火山においてはこれらの下にマグマ溜まりが存在することがあり、その圧力によって火山爆発が起こることがある。」という。これではないかと思う。



멀리서 눈에 띄는 것은 뾰족한 바위나 산이다. Wikipedia 에 따르면, “암경 또는 암전, 돌출암은 화도 내부의 마그마가 굳어 형성된 구조물이다. 화산이 침식되어 화도 내의 암전이 지표에 드러난 지형을 암경 또는 돌출암이라고 한다. 활화산의 경우, 이들 아래에 마그마 저장소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압력으로 인해 화산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한다. 이것이 아닌가 싶다.

The sharp rocks and mountains stand out from a distance. According to Wikipedia, “a volcanic neck (gankei) or volcanic plug (gansen), as well as protruding rock (totsugan), are formations created when magma within a volcanic conduit hardens. As a volcano erodes, the hardened magma within the conduit becomes exposed at the surface, forming what is known as a volcanic neck or protruding rock. In the case of an active volcano, a magma reservoir may exist beneath these formations, and the pressure from this magma can sometimes lead to volcanic eruptions.” I wonder if this could be the case.

バスは峠越えもあるが、だいたいこのような海岸線を走る。海岸線では落石防護用のトンネルもある。

버스는 고개를 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런 해안선을 달린다. 해안선에서는 낙석 방호용의 터널도 있다.



Buses cross the pass, but they usually run along these coastlines. On the coastline, there is also protection tunnels from rockfall.



次ページ、写真右、前方中央の車の先の建物が天府バス停。天府に着いたのは 9 時 30 分頃であった。バスを降りると、通りには人っ子一人いなかった。

다음 페이지 사진 오른쪽, 앞쪽 중앙의 차 앞 건물이 천부 버스 정류장. 천부에 도착한 것은 9 시 30 분경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거리에는 사람

하나 없었다.

Next page picture. The building at the center front of the car window is Cheonbu bus stop. I arrived there at about 9:30. When I got off the bus, there was not any person on the street.



さて、バスを降りてどうしようかと考えた。集落は山の斜面に広がっていたので、集落の中心当たりの道路を海岸線から山手の方に上っていった。あまり大きな集落ではなく、100m くらい歩いたろうか、学校らしき建物があり、その辺りが集落の終りのようだった。そこまで歩いて誰にも会わなかった。まあ、日曜日だからみなさん家でくつろいでいたのかも知れない。

자, 버스에서 내려서 어떻게 할까 생각했다. 취락은 산의 경사면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취락의 중심 당의 도로를 해안선으로부터 산 쪽으로 올라갔다. 그다지 큰 마을은 아니고, 100m 정도 걸었을까, 학교다운 건물이 있고, 그 근처가 마을의 끝인 것 같았다. 그곳까지 걸었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뭐, 일요일이니까 다들 집에서 쉬고 있었을지도 몰라.

Now, I thought about what to do after getting off the bus. The village was spread out on the slope of the mountain, so I went up the road around the center of the village from the coastline to mountain. It was not a very large village, but there was a building that looked like a school at the place of about 100 meters walk, and the place looked like the end of the village. I didn't meet anyone walking. Well, maybe everyone was relaxing at home because it was Sunday.

学校辺りまで上り、それ以上行ってもあまり家はなさそうだったからそこから写真を撮りながら引き返した。

학교 근처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가도 별로 집은 없을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사진을 찍으면서 되돌아왔다.



I went up to the school area, and even after going further, I didn't seem to have much of a house, so I took a picture from there and turned back.

写真の家は日本の家に似てないかしら。こんな感じの家が幾つもあった。この辺りで一人の男性に出会ったので声を掛けたが、返事をしてもらえなかった。右の写真には教会の十字架が三本写っている。どれも道路の右側だったが、これをさらに下っていくと左側にもう一つ教会があった。この狭い地域に何と四つも教会の十字架が立っていた。これが韓国の文化の象徴なのだろうか。それにしてもなんとものだかな日曜日の朝だ。



사진의 집은 일본 집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의 집이 여러 채 있었다. 이 근처에서 한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말을 걸었지만, 대답을 받지 못했다. 오른쪽 사진에는 교회 십자가가 세 개가 찍혀 있다. 모두 도로 오른쪽이었는데, 이를 더 내려가면 왼쪽에 하나 더 교회가 있었다. 이 좁은 지역에 무려 네 개의 교회 십자가가 서 있었다. 이것이 한국 문화의 상징일까.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화창한 일요일 아침이다.

I wonder if the house on the photo looks like a Japanese house. There were some houses that looked like this. I met a man around here, so I talked to him, but he didn't answer me. The right picture shows three church crosses. They were all on the right side of the road, but further down this, there was another church on the left. There were four church crosses standing in this narrow area. Is this the symbol of Korean culture? Anyway, it was a really peaceful Sunday morning.

最後に見つけた教会に行ってみた。教会の入り口でたまたま一人の女性に出会い、一方的に「私の韓国、私の日本」と「西双版纳 7日間とその前後」、そして私の言いたいことをメモったチラシを手渡した。先方の女性はびっくりしたが、誰かに電話をかけ私に取り次いだ。英語で話をしたのだが、私が自由に英語を話せなかった。電話で何を話したか覚えていない。ちょっと一方的すぎた。

마지막으로 찾은 교회에 가봤다. 교회 입구에서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나서 일방적으로 “나의 한국, 나의 일본”과 “서쌍관납 7 일간과 그 전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은 전단지를 건넸다. 상대방 여자는 깜짝 놀랐지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댔다. 영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자유롭게 영어를 할 수 없었다. 전화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좀 너무 일방적이었다.

I went to the church I found last. I happened to meet a woman at the entrance of the church and unilaterally handed her "My Korea, My Japan", "Xishuangbanna for 7 days and the before and after" and a leaflet that notes what I say. The woman was surprised, but she called someone and handed it to me. We talked in English, but I could not speak English freely. I don't remember what I said on the phone. I think it was a little too one-sided.



その教会を出て海岸線から一つ入った道を歩いていると、黒っぽい服を着た女性に出会った。教会にお祈りに行くのかなと思った。10時15分くらいだった。日曜日のお祈り時間は何時からか知らないが、そんな時間だろう。さらに歩いて行くと展望台の上り口があった。看板には

「천부마을안내도天府村案内図」と書いてあって、この上り口は「일몰전망대日没展望台」であった。

그 교회를 나와 해안선에서 하나 들어간 길을 걷다가 거무스름한 옷을 입은 여자를 만났다. 교회에 기도하러 가는 줄 알았다. 10 시 15 분 정도였다. 일요일 기도시간은 몇 시부터가 모르겠지만, 그럴 시간이겠지. 조금 더 걷다 보니 전망대 입구가 있었다. 간판에는 '천부마을 안내도'라고 쓰여 있는데, 이 상행구는 '일몰 전망대'였다.

I left the church and was walking along an inner road from the coastline. I met a woman in dark clothes. I thought she was going to church to pray. It was about a quarter to ten. I don't know what time the prayer time on Sunday is, but I guess that's the time. As I walked further, I found the entrance to the observatory. On the signboard, "천부마을안내도 Cheonbu

Village Guide Map" was written, and this entrance was "일몰전망대 Sunset Observation Deck."

次の予定が特になかったので登ってみることにした。上まで結構な高低差で、へとへとになったがやつの事で上まで登った。

다음 예정이 따로 없어서 올라가 보기로 했다. 위까지 상당한 고저차로 녹초가 되었지만 간신히 위까지 올라갔다.

I didn't have any particular plans next, so I decided to climb it. There was a great height difference to the top, and I was exhausted, but I managed to climb to the top.

途中、松の落ち葉でふわふわのところがあった。私の靴は安全靴で靴底はごわごわしているが、その靴底からさえ柔らかな感触が伝わってきた。

도중에 소나무 낙엽으로 폭신평신했던 곳이 있었다. 내 신발은 안전화로 밑창은 뻣뻣하지만 그 밑창에서조차 부드러운 감촉이 전해져 왔다.

Along the way, there was a fluffy spot with fallen pine leaves. My shoes are safety shoes, and the soles are stiff, but I could still feel their softness through the soles.

展望台から見た天府の写真には小さいが十字架が四本写っている。

전망대에서 본 천부의 사진에는 작지만 십자가 네 개가 찍혀 있다.

From the observatory, there were four small crosses in the photo of Cheonbu.

天府に行くこと、遠く(行けるところ)まで行くことが今回のバスの旅の目的であった。天府の先は何も決



めていなかった。幸いバスの時刻表を天府行きのバスの中で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た。その時刻表によると天府から「석포」行きというのがあった。석포というところがどんなところか全く知らなかったがそこへ行ってみようと思った。

천부에 가는 것, 멀리(갈 수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이 이번 버스 여행의 목적이었다. 천부의 다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다행히 버스 시간표를 천부행 버스 안에서 구할 수 있었다. 그 시간표에 의하면 천부에서 「석포」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석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지만 그곳에 가보려고 했다.

The purpose of this bus trip was to go to Cheonbu and to go far. There was no next plan for Cheonbu. Fortunately, I was able to get a bus timetable on the bus bound for Cheonbu. According to the timetable, there was a bus bound for Seokpo from Cheonbu. I had no information about Seokpo, but I thought I'd go there.

석포는海岸沿いの道路を右に入り 幾つものヘアピンカーブを上り詰めた山の上にあった。そこには平の写真のようなモダンな建物があった。これが何なのか知らない。バスの中から見る限り誰も歩いていないし、下車しても何だか困りそうな感じがしたので、バスを降りなかった。この建物は何だろうか。地図を見るとこの辺りには教会があったが、教会のような感じでもなかった。



석포는 해안가의 도로를 오른쪽으로 들어가 여러 개의 헤어핀 커브를 잔뜩 올라간 산 위에 있었다. 그곳에는 사진과 같은 현대적인 건물이 있었다. 이게 뭔지 몰라. 버스 안에서 보면 아무도 걸지 않았고, 하차해도 웬지 곤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 건물은 무엇일까. 지도를 보니 이 근처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같은 느낌도 아니었다.

Seokpo was located atop a mountain, after turning right from the coastal road and ascending through multiple hairpin curves. There was a modern building like the one shown in the picture. I don't know what this is. As far as I can see from inside the bus, no one is walking, and I decided not to



get off, sensing it might be inconvenient or confusing. I wonder what this building is. The map shows that there was a church around here, but it wasn't even like a church.

このバスは、私が석포と言わなければ、観音島直通だったのかも知れない。バスは석포のバス停を通り過ぎ、また元来た道に戻って観音島まで行った。観音島は終点だった。私を含めて 5 人くらいの客がそこで降りた。



이 버스는 내가 석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관음도 직통이었을지도 모른다. 버스는 석포의 버스정류장을 지나 다시 원래 가던 길을 돌아와 관음도까지 갔다. 관음도는 종점이었다. 나를 포함해서 5명 정도의 손님이 거기서 내렸다.

If I hadn't said Seokpo, this bus might have gone directly to Kannondo. The bus passed through the Seokpo bus stop and went back to Kannondo. Kannondo was the last stop. About five passengers, including myself, got off there.

実は私はそこに何があるのか知らなかった。前に書いたが、行けるところまで行ってみる、ただそれだけだった。バスを降りると、高い塔が立っていて、その上に何かありそうだった。先客が受付みたいなのところでお金を払って塔を登っていた。有料なのだ。

실은 나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몰랐다. 전에 썼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본다, 단지 그 것뿐이었다. 버스에서 내리니 높은 탑이 서 있었고, 그 위에 뭔가 있을 것 같았다. 선객이 접수처 같은 곳에서 돈을 내고 탑을 올라갔다. 유료인 것이다.

Actually, I didn't know what was there. As I wrote before, I tried to go as far as I could, and that was all. When I got off the bus,



there was a tall tower standing, and there seemed to be something on top of it. Someone paid money to climb the tower at the reception. It costs money.

受付で 4000W 払って私も塔を登った。エレベーターがあったが稼働していなかった。上にあったのは「観音島地質探訪路」であった。トレッキングコースが整備されていて、地質も学ぼうということのようだ。(これも帰国後写真を見て確認したことだ。)いつものことだが、よくも分からず道があったので歩いた。

접수처에서 4000 원을 내고 나도 탑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가동하고 있지 않았다. 위에 있던 곳은 '관음도 지질탐방로'였다. 트레킹 코스가 정비되어 있어서 지질도 배우자는 것 같다. (이것도 귀국후 사진을 보고 확인한 것이다.) 언제나의 일이지만, 잘도 모르고 길이 있었기 때문에 걸었다.

I paid 4,000W at the reception and climbed the tower. There was an elevator, but it was not working. Above was the Geological Trail of Gwaneumdo. The trekking course is in place, and it seems that we can learn the geology. (This was also confirmed by looking the pictures after returning home.) As usual, though I didn't know well, but I walked because there was a road.

大変暑かったが、天気もよかったし景色もよかった。それはよかったが、途中で、どこまでどれだけ歩けば元のバス停へ戻れるのか心配になってきた。不安を持ちつつ歩いていると、50 歳前後の男女が小休止していたのに出会った。それで彼らに Finish?、ここで終わりか?というつもりで尋ねた。そして、違う、という。ここのコースは周遊で Long と Short があり、Long を歩いても Enough time for bus、バスには十分間に合う、と女性が教えてくれ





た。それを聞いて安心、写真を撮りながらポチポチ周遊した。バス停に戻って 30 分くらいの余裕があった。それにしても「Finish?」の一言でずいぶん情報が得られた。韓国は英語を話す人が結構多い。

매우 더웠지만, 날씨도 좋았고 경치도 좋았다. 그것은 다행이지만, 도중에 어디까지 얼마나 걸으면 원래의 버스 정류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불안을 가지고 걷고 있으면, 50 세 전후의 남녀가 잠깐 쉬고 있던 것을 만났다. 그래서 그들에게 Finish?, 여기서 끝인가? 하는 생각으로 물었다. 그랬더니 아니다, 라고했다. 이곳의 코스는 주유로 Long 과 Short 가 있어서 Long 을 걸어도 Enough time for bus, 버스에는 충분히 시간에 델 수 있다고 여성이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듣고 안심, 사진을 찍으면서 떠엄떠엄 걸며 되돌아갔다.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와 30 분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 그렇다 치더라도 「Finish?」의 한마디로 꽤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한국은 영어를 하는 사람이 꽤 많다.

It was very hot, but the weather was nice and the scenery was also nice. That's good, but on the way, I started to worry about how far I could walk to get back to the original bus stop. While I was walking with anxiety, I met a man and a woman around 50 years old who were resting for a while. So I asked them, "Finish?" and "Is this the end?" Then, she said no. This course has Long and Short for a tour, and she told me that even if I walk along Long, I can make it in time for the bus. As I heard that, I felt relieved and taking pictures, I went around little by little. I had about half an hour after I got back to the bus stop. Even so, I got a lot of information from the word "Finish?" There are quite a few people who speak English in Korea.

最初から看板をよく見ておけばよかったのだ。看板には、地理学的な観察ができるスポットが示され、A コース 350m、B コース 500m と案内されていた。両方歩いても 1km 未滿だから、平地ならば 20 分もかからない距離だ。おまけに地理学的なスポットの写真も撮らずに島を出てしまった。

처음 부터 간판을 잘 봐 둘 걸 그랬다. 간판에는 지리학적인 관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표시되어, A 코스 350m, B 코스 500m 로 안내되어 있었다. 둘 다



걸어도 1km 미만이니까 평지라면 20 분도 안 걸리는 거리다. 게다가 지리학적인 장소의 사진도 찍지 않고 섬을 떠나 버렸다.

I should have looked at the signboard from the beginning. The signboard showed a spot for geographical observation, and it was guided to 350m course A and 500m course B. It is less than 1km even if I walk both ways, so it takes less than 20 minutes for flatland. In addition, I left the island without taking pictures of geographical spots.

觀音島のバス停と之守田との間はバス道路が開通していない。多分工事をしているのであろう、觀音島入り口の白い塔の横に大きなトンネルがあり、工事車両が出入りしていた。



관음도 버스 정류장과 내수전과의 사이는 버스 도로가 개통되어 있지 않다. 아마 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관음도 입구의 하얀 탑 옆에 큰 터널이 있어서 공사 차량이 드나들고 있었다.

A bus road is not open between the Gwaneumdo and Naesujeon. There was a large tunnel next to the white tower at the entrance of Gwaneumdo, which was probably under 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vehicles were coming and going.

バス停の周辺をぶらぶら写真を撮っているとバスが来た。さっき降りたバスと同じバスだった。運転手も同じ人。この運転手さん、行きは少しばかり観光案内してくれたが、帰りは無言だった。写真は天府のバス停で。



버스 정류장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사진을 찍고 있는데 버스가 왔다. 아까 내린 버스랑 같은 버스였다. 운전자도 같은 사람. 이 운전 기사님, 가는 길은 조금만 관광 안내해 주었지만, 돌아오는 길은 말이 없었다. 사진은 천부의 버스 정류장에서.

When I was strolling and taking pictures around the bus stop, the bus came. It was the same bus that I got off earlier. The driver is also the same person. This driver gave us a little sightseeing information, but he was silent on back way. This photo is at the bus stop of Cheonbu.

天府⇄観音島のバス料金は 2000W だったが、実は、行き、小銭が 1000W しかなく 10000W 出したら釣り銭がなかった。それで行きは 1000W で来た。帰りは、観音島に入る時に釣り銭をもらっていたので小銭があった。行きに払わなかった 1000W を払えばよかったとこの文書を書いている最中に思ったがもう遅い。

천부 ⇄ 관음도의 버스 요금은 2000W 였지만, 실은, 가는 길, 잔돈이 1000W 밖에 없어 10000W 냈더니 거스름돈이 없었다. 그래서 가는 길은 1000W 로 왔다. 돌아올 때는 관음도에 들어갈 때 거스름돈을 받았기 때문에 잔돈이 있었다. 가는 길에 지불하지 않은 1000W 를 지불할 걸, 이 문서를 쓰는 중에, 생각했는데 이미 늦었다.

The bus fare was 2,000W, but on the way there, I only had 1,000W in small change. When I tried to pay with 10,000W, there was no change available, so I ended up paying just 1,000W for the trip. On the way back, when entering Gwaneumdo, I received change, so I had small bills. As I write this, I realize I should have paid the remaining 1,000W from the outward journey, but it's too late now.

天府から乗り換えなしで道洞まで帰った。道洞の港はシーズン前でも人はそこそこいて写真を撮るにはいい場所だ。前も書いたが市場の建物は工事中で、浜の女たちはこの日も港の広場で商売をしていた。この二人、去年も写真を撮らせてもらったが、私のことを覚えていた。嬉しいこ



とだ。やはり、写真を撮ってその場で印刷して手渡すという行為が印象的なのだと思う。そんなこともあるので、「私はあなたを覚えています。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あなたは私を覚えていますか? 당신은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까?」というようなメモを予め作っておいた。このメモは役に立った。

천부에서 환승 없이 도동까지 돌아갔다. 도동의 항구는 시즌 전이라도 사람들은 조금 있어서 사진을 찍기에 좋은 곳이다. 전에도 썼지만 시장의 건물은 공사 중이었고, 항구의 여인들은 이날도 항구의 광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이 두 사람, 작년에도 사진을 찍었지만,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반가운 일이다. 역시, 사진을 찍어 그 자리에서 인쇄해 건네주는 행위가 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까?”라는 메모를 미리 만들어서 놓았다. 이 메모는 도움이 되었다.

I went back to Dodong without changing bus from Cheonbu. Dodong Port is a good place for me to take pictures even before the season. As I mentioned before, the market building was under construction, and the women of the market were still doing business in the harbor square. These two were allowed to take pictures last year, but they remembered me. I'm glad to hear that. After all, I think the act of taking pictures and printing them on the spot and handing them over is impressive. As that can happen, I made a note of "I remember you.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Do you remember me? 당신은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in advance. This note was helpful.

写真を撮ってその場で印刷機でガシャガシャと打ち出すと、珍しいものを見るという感じでたいがいギャラリーができる。その中の一人の男性が面白がって、すごい!と言ったのかどうか分からないが、奇声を上げた。そんな人がいると私はたいがいあなたも一枚いかがですかと声をかける。それがこの人だ。大変フレンドリーな人で、スマホの翻訳ソフトを使っていろいろ話をした。電話以外でスマホが初めて役に立った。彼はバスの運転手で陸地から島にお客さんを連れてきたらしい。しかし、名刺をよく見ると「라온여행사 박종철(ラオン旅行社 朴鐘哲)」とあった。もしかして旅行代理店の社長さんかしら。お客さんは観光バスで島巡りをしているのだろうか。

사진을 찍어 즉석에서 인쇄기로 바스락-바스락 거리면 진귀한 것을 본다는 느낌으로 대개 갤러리가 생긴다. 그중 한 남성이



재미있어하며, 대박!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성을 질렀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대개 당신도 한 장 어떠냐고 말을 건다. 그것이 이 사람이다. 매우 친절한 사람으로, 스마트폰의 번역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 전화 이외에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도움이 되었다. 그는 버스 운전사로 육지에서 섬으로 손님을 데려온 것 같다. 하지만 명함을 자세히 보면 "라온여행사 박종철(朴鍾哲)"이라고 했다. 혹시 여행사 사장님 이신가? 손님은 관광버스로 섬순회를 하고 있는 것일까.

Taking a picture and print it out, I surrounded with the gallery on the spot who want to look something unusual. A man in the gallery raised a weird cry, I don't know if he said "Wow". When such a person is around, I usually ask him/her if how about a picture. That's this person. He was a very friendly person and talked about many things using the translation software of our smartphone. Smartphones were useful for the first time outside of a phone. Apparently, he was a bus driver and brought customers from the land to the island. However, if I looked closely at his business card, and found "라온 여행사 박종철 (Laon Travel Agency, Park Jong Chul)". I wonder if he is the president of a travel agency. I wonder if the guests are traveling around the island on a sightseeing bus.

もう一つ。私が会った韓国の人々によくある傾向だ。それは、写真を印刷して手渡した後、写真をもらえることが意外だったのであろう、何らかの「謝礼」をする人がいる。多くの場合缶やペットボトルのジュースのようなものが多かったような気がする。それを私はだいたい断るが、この運転手さんの時も断った。でも、冗談半分に酒ならいいよと言った。そしたら、OK と私を屋台に手招きし、出てきたのがこれ。緑色の瓶が韓国でよく見る焼酎。平皿は日本でいうお好み焼きのようなもの、チジミとっていいのだろうか。



또 하나. 내가 만난 한국 사람들에게 흔한 경향이다. 그것은, 사진을 인쇄해 건넨 후, 사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의외였던 것일까, 어떤

“사례”하는 사람이 있다. 많은 경우 캔이나 페트병 주스 같은 것이 많았던 것 같다. 그것을 나는 대체로 거절하지만 이 기사님 때도 거절했다. 하지만 농담 반으로 술이면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OK 하고 나를 포장마차로 손짓해서 나온 게 이거. 초록색 병이 한국에서 많이 보는 소주. 납작한 접시는 일본에서 말하는 오코노미야키 같은 것, 지짐이라고 해도 좋은 것일까.

One more thing. It's a something I've noticed consistently among the Korean people I've met. After printing and handing over the photos, there were people who have been surprised to receive them and want to give me some thanks. In many cases, I think, it was like cans and plastic bottle juice. I usually refuse it, and also refused for this driver. But I said it's okay if it's alcoholic drinks as a joke, then he said OK and beckoned me to the stall. This is what came out. The green bottle is Shochu common in Korea. The flat plate is like okonomiyaki in Japan, is it okay to call chijimi.

港広場でおしゃべりしていたら泥水がどどどと流れてきた。消防用のホースで路面の土ぼこりを洗い流していたのだ。鬱陵島の道路はコンクリートで舗装されている。車は斜面を走るのでコンクリートを削って粉じんが出やすいのかも知れない。



항구 광장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흙탕물이 대량으로 흘러왔다. 소방용 호스로 노면의 흙먼지를 씻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울릉도의 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다. 차는 경사면을 달리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깎아서 분진이 나오기 쉬운 것일지도 모른다.

When we were chatting in the harbor square, muddy water poured down. They were washing down the pavement with a fire hose to clear away dust. The roads on Ulleungdo are paved with concrete. Cars run on slopes, so it may be easy to cut concrete and raise dust.

夕食は오삼불고기 (イカ入りサムギョプサルのプル고기)。この店、どこだったかなあ。入った時、誰もいなくしばらく待っていたら店の人が現れた。



저녁은 오삼불고기. 이 가게 어디였더라?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이 한참 기다리는데 가게 사람이 나타났다.

Dinner was 오삼불고기. I wonder where this store was. When I entered, there was no one and I waited for a while before the shop staff appeared.



韓国にはキリスト教を示す十字架が大変多いと感じていたので韓国のキリスト教について調べてみた。といっても一冊の本しか読んでいないが。浅見雅一、安廷苑(「韓国とキリスト教」 中公新書 2173 2012年 中央公論新社)によると、キリスト教浸透の要因として次の四点挙げている。

한국에는 기독교를 나타내는 십자가가 매우 많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 알아봤다. 그렇다고 해도 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았지만. 아사미 마사카즈, 안정원(“한국과 기독교” 중공신서 2173, 2012년 중앙공론신사)에 따르면 기독교 침투의 요인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로 들고 있었다.

I have been feeling that there were so many crosses showing Christianity in Korea, so I looked into Christianity in Korea. Though I have only read one book. According to Masakazu Asami and Anjoen ("Korea and Christianity" Chuokoron Shinsha 2173, 2012), the following four factors are cited for the penetration of Christianity.

- (1) 韓国の原信仰が一神教的要素を持っていたので、一神教であるキリスト教を受容する下地となった。
- (2) 朝鮮王朝の朱子学の理氣二元論には、キリスト教の世界観に類似する点があった。
- (3) 儒教の倫理を重視する姿勢が、キリスト教の倫理への接近を容易にした。
- (4) 植民地時代にキリスト教が抗日独立運動の精神的支柱となっていた。

- 1) 한국의 원신앙이 일신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신교인 기독교를 수용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 (2) 조선왕조 주자학의 이기이원론에는 기독교의 세계관과 유사한 점이 있었다.
- (3) 유교 윤리를 중시하는 자세가 기독교 윤리에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
- (4) 식민지 시대에 기독교가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 (1) Since Korea's indigenous faith contained monotheistic elements, it laid the groundwork for accepting Christianity, a monotheistic religion.
- (2) The dualistic theory of principle and material force in Neo-Confucianism during the Joseon Dynasty had aspects similar to the Christian worldview.
- (3) The emphasis on Confucian ethics made it easier to approach Christian ethics.
- (4) During the colonial period, Christianity served as a spiritual pillar for the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

このうち (4) については「キリスト教が『独立』という政治目標、そして『民族的苦難』から救われる選民思想に結びついたことによって、民族意識を覚醒させることが可能になったのである。そこから、キリスト教が韓国の民俗宗教としての色彩を帯びていったのである」といっている。

이 중 (4)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독립」이라고 하는 정치 목표, 그리고 「민족적 고난」 으로부터 구원되는 선민 사상에 결부됨으로써, 민족 의식을 각성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서 기독교가 한국의 민속 종교로서의 색채를 띠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As for (4), the author says "Christianity's connection with the political goal of 'independence' and elitism of being saved from 'ethnic hardship' made it possible to awaken national consciousness. From there, Christianity took on the color of Korean folk religion."

韓国の各宗派の割合と信者数は次のように推定される。

한국의 각 종파 비율과 신자 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The proportion and number of believers of each sect in Korea are estimated as follows.

宗派別信者数の推定 종파별 신자수 추정  
Estimation of the number of believers by sect

宗派 종파 Sect <sup>1)</sup>	割合 비율 Percentage (%) <sup>1)</sup>	信者数 신자수 Number of believers (10,000) <sup>2)</sup>
無宗教 무종교 Religionless	46.7	2250.5
仏教 불교 Buddhism	22.8	1098.7
プロテスタント 개신교 Protestant	18.3	881.9
カトリック 가톨릭 Catholicism	10.9	525.3
儒教 유교 Confucianism	0.5	24.1
園仏教 원불교 garden Buddhism	0.2	9.6
その他 기타 Other	0.5	24.1

1) 韓国統計庁 2005 年 (「Konest 韓国の宗教」から引用)

한국 통계청 2005 년 ('Konest 한국의 종교'에서 인용)

Statistics Korea 2005 (quoted from "Konest Korean Religion")

<https://www.konest.com/ contents/korean life detail.html?id=2531>

2) 2005 年の韓国人口 4819 万人に割合をかけた数値。韓国人口は「世界経済のネタ帳」から得た。

2005 년 한국인구 4819 만명에 비율을 곱한 수치. 한국인구는 '세계경제 네타칩'에서 얻었다.

These numbers were gotten from multiplying South Korea's population of 48.19 million in 2005 by percentage. The Korean population was from "The Neta Book of World Economy".

[http://ecodb.net/exec/trans\\_country.php?d=LP&c1=KR&c2=JP](http://ecodb.net/exec/trans_country.php?d=LP&c1=KR&c2=JP))

上述の浅見雅一、安廷苑によれば、韓国内の日本の宗教団体数は 18 教団 192 万人で、うち韓国創価学会 148 万人、天理教 27 万人という。これらの人々は上の表のどれに属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創価学会は仏教であるから、多分仏教の項、天理教は仏教ではないのでその他の項に入れると数値の整合性があやふやになる。

위에서 언급한 아사미 마사카즈, 안정원에 의하면 한국 내 일본의 종교단체 수는 18 개 교단 192 만 명이며, 그 중 한국창가학회 148 만 명, 천리교 27 만 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위의 표 중 어느 것에 속해 있는 것일까. 창가학회는 불교이기 때문에 아마도 불교의 항, 천리교는 불교가 아니므로 기타의 항에 넣으면 수치의 정합성이 모호해진다.

According to Masakazu ASAMI and Anjoen mentioned above, the number of Japanese religious organizations in Korea are 18 groups, 1.92 million, of which 1.48 million are from the Korean Society of Soka Gakkai and 270,000 from Tenri Kyo. Which of the above tables do these people belong to? Since Soka Gakkai is Buddhism, perhaps it belongs to Buddhism. As Tenri Kyo is not Buddhism, if Other contains it, number of reasonability is not understandable.

3 月 20 日 (月) 鬱陵島最終日の新しい出会い  
 3 월 20 일(월) 울릉도 마지막 날의 새로운 만남  
 March 20 (Mon) The last day of Ulleungdo, new encounters

鬱陵島最終日。浦項行きのフェリーは 15 時 30 分発。11 時からラさんが私を昼食に招待してくれていた。それ以外は特に予定は無かった。

울릉도 마지막 날. 포항행 페리는 15 시 30 분 출발. 11 시부터 라 씨가 나를 점심식사에 초대해 주고 있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예정이 없었다.

The last day of Ulleungdo. The ferry to Pohang leaves at 15:30. Mr. La invited me to lunch from eleven o'clock. Other than that, I had no particular plans.

朝トイレに座っていると誰かがドアをドンドンと叩いた。あわてて切り上げてパンツ一枚のままドアを開けると、そこに民宿の女将さんと文具屋の 이정탁さんがいた。何事かと驚いたが、いさんが誰かに電話して私に取り次いだ。相手はパクさんという人で日本語を話した。確か日本の船に乗っていたようなことを話していたと思う。いずれにしても電話では込み入った話ができないので、10 時にいさんの店で会うことにした。

아침에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문을 쿵쿵 두드렸다. 황급히 잘라서 팬티 한 닢을 입은 채 문을 열자 그곳에 민박집 여주인과 문구점 이정탁씨가 있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놀랐지만, 이씨가 누군가에게 전화해 나에게 전화를 연결했다. 상대는 박 씨라는 사람으로 일본어를 했다. 아마 일본 배에 타고 있었던 것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전화로는 복잡한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0 시에 이 씨의 가게에서 만나기로 했다.

I was sitting in the bathroom in the morning, at that time someone pounded on the door. I quickly wrapped things up and opened the door wearing only my underwear. There was the landlady of the minshuku and Mr. Lee Jung-tak of the stationery shop. I was surprised, but Mr. Lee called someone and handed me the phone. The person of the phone named Park and he spoke Japanese. If I remember correctly, I think that he said he was working on a Japanese ship. In any case, we couldn't talk subtly on the phone, so we decided to meet at Mr. Lee's shop at 10 o'clock.

独島ペンションをチェックアウト。あまり物は詰まっていないが、大きなリュックは前日教えてもらったとおりフェリーターミナルのコインロッカーに預け、李さんの店へ行った。

독도 펜션 체크아웃. 그다지 물건은 차지 않았지만, 큰 배낭은 전날 알려준 대로 페리터미널 코인 로커에 맡기고 이 씨의 가게로 갔다.

Dokdo pension check out. Although there were not many things packed in my big backpack, I left it in a coin locker at the ferry terminal as I was told the day before and went to Lee's shop.

店に現れたのは박용수朴龍洙さん。名刺を見ると향우촌郷牛村代表とあった。レストランのようだ。予め用意していた釜山の文集とチラシを手渡し、日本のことを知っている人がいたら紹介してほしい、とお願いした。

가게에 나타난 사람은 박용수 씨. 명함을 보니 향우촌 대표와 있었다. 레스토랑인가 보다. 미리 준비했던 부산 문집과 전단지들 건네고 일본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A person of Mr. Park Yongsoo came at the store. On his business card, he was a representative of "Hyangwoo Village" (향우촌). It's like a restaurant. I handed him the Busan collection of writings and flyers those I had prepared in advance, and asked him to introduce me to anyone who knew about Japan.

朴さんと李さんは私を「옛 울릉군수 관사 旧鬱陵郡主官舎」に連れて行ってくれた。ここは前を通ったことはあったが入っていいのかどうか分からなかったので外から写真を撮って通り過ぎた。今回は中に入ることができた。

박씨와 이씨는 나를 “옛 울릉군수 관사”에 데리고 가주었다. 이곳은 앞을 지나간 적은 있었지만 들어가도 될지 몰라서 밖에서 사진을 찍고 지나갔다.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Mr. Park and Mr. Lee took me to “Former Ulleung County Lord official residence”. I had passed here before, but I didn't know if I could go in, so I took a picture from outside and passed by. I was able to go inside this time.



入口の門の上部の白い文字は「鬱陵島で会う朴正熙 1962 年—旧郡主官舎—」というようなことが書いている。この門をくぐるとすぐ左に朴元大統領がこの官舎を訪問した時の写真が展示されている。上部のハングルは「増産 | 農漁村の開発は私たちの力で | 再建」と書いている。建物は展示場になっていて、主に朴正熙元大統領、当時は議長だったのか肩書きは議長と表現されていたが、その訪島の記録が展示されていた。



입구 문 위의 하얀 글씨는 '울릉도에서 만나는 박정희 1962 —옛 군주관사—'라는 것이 쓰여 있다. 이 문을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 박 전 대통령이 이 관사를 방문했을 때의 사진이 전시돼 있다. 상부의 한글은 '증산 | 농어촌 개발은 우리 힘으로 | 재건'이라고 쓰고 있다. 건물은 전시장으로 되어 있었고, 주로 박정희 원·대통령, 당시에는 의장이었는지 직함은 의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 방도의 기록이 전시되어 있었다.

The white letters of the upper part of the entrance gate say "Park Chung-hee in Ulleungdo 1962 —Former Ulleung County Lord official residence—". As soon as we pass through the gate, on the left side there was a photo which showed the former president Park's visit of this old resident. The upper hangul of this photo says "Production increase |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by ourselves | Reconstruction". This residence is used as an exhibition hall, mainly the record of the president visit to the island was on display. His title was listed as 'Chairman'— perhaps that was his official position at the time.

展示場解説者のイソミンさん。彼女は当初写真を撮らせてくれなかったが、この日本人は問題ないよ、といったかどうか知らないが、朴さんが何か言うと写真撮影をOKしてくれた。

전시장 해설자 이소민 씨. 그녀는 당초 사진을 찍게 해주지 않았지만,



이 일본인은 문제없다 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박씨가 뭔가 말하니 사진 촬영을 OK 해 주었다.

Ms. Lee So-min, the Commentator of the exhibition hall. She didn't allow me to take a picture of her at first, but when Mr. Park said her something, I don't know if he said this Japanese person is no problems or not, she agreed with me to take a picture.

私は日本的なものに興味があったのでその写真をいくつか紹介する。正面入り口。玄関は小さく、建物全体も比較的小さい。板壁と戸袋、そして灯籠は日本的だ。写真中央の濃い茶色の部分が玄関。



나는 일본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 사진을 몇 개 소개한다.

정면 입구. 현관은 작고 건물 전체도 비교적 작다. 판벽과 문자루, 그리고 등롱은 일본적이다. 사진 중앙의 짙은 갈색 부분이 현관.

I was interested in something Japanese, so I will introduce some of those photos. The front entrance. The entrance is small and the entire building is relatively small. The wooden board walls, door bags, and stone lanterns are Japanese. The dark brown part in the center of the picture is the entrance.

この館で最も広い部屋には、おもてなしの宴会だろうか、座敷机には料理が並んでいた。部屋の造りは床の間（とこのま）、違い棚（ちがいだな）、長押（なげし）、障子（しょうじ）など典型的な和室だ。食卓はちょっと日本風ではない。



이 건물에서 가장 넓은 방에는, 대접의 연회일까, 좌식 책상에는 요리가 들어서 있었다. 방의 구조는 도코노마, 치가이다나, 나가시, 슈지동 전형적인 일본식 방이다. 식탁은 좀 일본식이 아니다.

In the largest room in this house, is this a banquet of hospitality? On the table was lined with dishes. The room is built in a typical Japanese-style,

such as Tokonoma (alcove), Stepped shelves, Nageshi (decorative horizontal beam), Shoji (paper sliding door). The table is not Japanese style.

外には防空壕があった。第二次大戦中に作られたものであろうが、鬱陵島も連合国軍の攻撃の対象になっていたのだろうか。説明書きには米空軍の攻撃から守るために作られたと書いてある。



밖에는 방공호가 있었다. 2 차대전 중에 만들어진 것이겠지만, 울릉도도 연합군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일까. 설명에는 미 공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적혀 있다.

There was an air-raid shelter outside. It may have been created during World War II, but was Ulleungdo also the target of Allied attacks? The description says it was designed to protect against attacks by the U.S. Air Force.

私は戦争の体験はないが、今住んでいる日本の家にも防空壕の跡がある。私が 11 歳の時だったと思うが、わが家は畑地に建てられた。きっと、戦時中に畑作業をしている時に空襲があった時の逃げ場であったらと思う。若松もアメリカ軍の焼夷弾が降ってきたという話を聞いた。戦争は繰り返してはならぬと改めて思う。

나는 전쟁 체험은 없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일본 집에도 방공호의 흔적이 있다. 내가 열한 살 때였던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밭터에 지어졌다. 분명 전시 중 밭일을 할 때 공습이 있었을 때의 도피처였을 것이다. 와카마츠도 미군의 소이탄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쟁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새삼스럽게 생각한다.

I haven't experienced any war, but there are traces of air-raid shelters in my current Japanese house. I think I was 11 years old, but my house was built in a field. I think it must have been a place to escape when there was an air raid while working in the fields during the war. I have heard that on Wakamatsu also had American incendiary bombs fallen. I think once again that war should not be repeated.

さて、庭には添水（そうず、別名、ししおどし）、灯籠があり日本庭園の作りとなっている。かつてはこの庭から道洞の港が一望できたという。郡主の館だからそのような場所が選ばれたに違いない。



자, 정원에는 소우즈 (添水, 별명, 鹿威しし시오도시), 등롱이 있어 일본 정원으로 꾸며졌다. 예전에는 이 마당에서 도동의 항구가 한눈에 보였다고 한다. 군주의 관저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선택된 것이 틀림없다.

In the garden, there is a sozu (also known as shishiodoshi) and a stone lantern, which are designed to create a Japanese garden. In the past, it is said that the port of Dodong could be seen at a glance from this garden. Such a place must have been chosen because it is the county governor's house.

左が李さんで、右が朴さん。朴さんは私より 4 つ、李さんは 12 も年上だ。なのに二人の髪の毛は黒くかつ多い。見た目も若く見える。島の生活のせいだろうか。

왼쪽이 이 씨이고 오른쪽이 박 씨. 박 씨는 나보다 4 살, 이 씨는 12 살이나 많다. 그런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은 검고 또 많다. 보기에도 젊어 보인다. 섬 생활 탓일까.

The photo shows Mr. Lee on the left and Mr. Park on the right. Mr. Park is four years and Mr. Lee is twelve years older than me. But their hair is black and many. They look young, too. Is it because of island life?



下の写真は、旧郡主館跡に来る前に朴さんが日本の建物だと教えてくれた



家。作りとしては、許さんがいる歴史文化体験センターと似ている。ガラス戸には次のような文字が見える。

아래 사진은 옛 군주관 터에 오기 전 박 씨가 일본 건물이라고 알려준 집. 만들기로는 허 씨가 있는 역사문화체험센터와 비슷하다. 유리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자가 보인다.

The picture below shows the house which Park told me that it was a Japanese building before coming to the site of the former county official residence. It is similar to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xperience center where Ms. Huh is working. The following characters can be seen on the glass windows.



도장 대성사 (塗装大成社 Painting Taisei Company)

경북커텐 (慶北カーテン Gyeongbuk Curtain)

옷수선 (洋服修繕 Repair of clothes)

11時少し前、李さん、朴さんと別れた後、ラさんの教会に行った。教会を少し下ったところの食堂で昼食をご馳走になった。ラさんは食事前に小さな声で何か祈りをしていたが、私はそれに気づかず先に箸を手にしてしまった。まずいと思って箸を下ろしたが手遅れだ。

11시 조금 전 이 씨, 박 씨와 헤어진 뒤 라 씨의 교회에 갔다. 교회를 조금 내려간 곳의 식당에서 점심을 대접받았다. 라 씨는 식사 전 작은 소리로 무언가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먼저 젓가락을 손에 들고 말았다. 실례라고 느껴 젓가락을 내려놓았지만 이미 늦었다.

Shortly before 11 o'clock, after breaking up with Mr. Lee and Mr. Park, I went to Ra's church. I was treated to lunch at a restaurant a little way down from the church. Mr. La prayed in a low voice before eating, but I didn't notice it and picked up the chopsticks first. I thought it was bad, so I put down my chopsticks, but it's too late.

ラさんは、私が何のために文集を作るのかいぶかしげだった。このことは先日ラさんを訪ねた時説明し、文書で示したつもりだったが、納得してもらってなかったようだ。私は、日本人が鬱陵島でどんなことをしたのか事実を知りたい、それは日本人と韓国人の友好のためだ、というようなことを答えた。それでもまだ納得いかない様子だった。日本の支配の下ではひどいこともあったと思うが、漁業関係では技術の交流もあったと聞いている。その辺りのことも含めて日本人の鬱陵島での振る舞いを知りたいのだ。

라 씨는 내가 무엇을 위해 문집을 만드는지 의아해할 것 같았다. 이 일은 요전 라씨를 방문했을 때 설명하고 문서로 표시한 셈치고 있었지만 납득하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일본인이 울릉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사실을 알고 싶다, 그것은 일본인과 한국인의 우호를 위해서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그런데도 아직 납득이 가지 않는 눈치였다. 일본의 지배 하에서는 심한 일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업 관계에서는 기술의 교류도 있었다고 알고 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일본인의 울릉도에서의 행동을 알고 싶은 것이다.

Mr. La was quizzical about what I would make a literary collection for. When I visited La the other day, I thought I explained this and showed it in writing, but he didn't seem to be convinced. I replied that I wanted to know the facts about what the Japanese did on Ulleungdo because of the friendship between the Japanese and Koreans, but he still seemed unconvinced. I think there were terrible things under Japanese rule, but I heard that there were also technological exchanges in the fishing industry. I want to know how Japanese people behave on Ulleungdo, including those in that area.

信仰の話も出た。敬虔ではないが仏教思想の方が私にはしっくりいくと話した。独島の話も出たが、私はそれには乗らなかった。いつも韓国の人々にいうことだが、互いに政府発表の偏った情報しか持たず、それも少ない我々が議論しても実りはないと思うからだ。

신앙 얘기도 나왔다. 경건하지는 않지만 불교사상이 내게는 더 잘 맞는다고 했다. 독도 얘기도 나왔지만 나는 거기에 타지 않았다. 늘 한국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서로 정부 발표의 편향된 정보만 갖고, 그것도 적은 우리가 논의해도 결실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There was also talk of faith. I said that although I am not devout, Buddhist thought fits me better. Dokdo was also mentioned, but I chose not to engage in that topic took photo. This is because, as I always say to Korean people, we only have biased information about each other's government announcements, and besides, our information is limited. I don't think it will be fruitful for us to discuss under that state.

ラさんとの昼食は 13 時前に終わった。私は被写体をさがしながら道洞の港の方へ下っていった。旧郡主の館を少し下ったところにこんな家があった。きっと日本式家屋だと思う。このような感じの家は近くに数軒あった。今度訪島した時は意を決して家を訪ねてみようと思う。この家は日本家屋かと。また何か新しい出会いを期待しよう。



라 씨와의 점심 식사는 13 시 전에 끝났다. 나는 피사체를 찾으면서 도동의 항구 쪽으로 내려갔다. 구군주 관을 조금 내려간 곳에 이런 집이 있었다. 꼭 일본식 가옥일 거야. 이런 느낌의 집은 근처에 몇 채 있었다. 이번에 방도했을 때는 마음먹고 집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 집은 일본 가옥이냐고. 또 뭔가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자.

The lunch with Mr. La ended before 13:00. I went down towards the port of Dodong, looking for the subject. There was a house like this a little below the former county lord's house. I'm sure it's a Japanese-style house. There were several houses that looked like this nearby. The next time I visit the island, I will definitely visit these houses. Is this a Japanese house? Let's look forward to another new encounter.

道洞は狭い集落だが、前回行った店がどこにあったのかほとんど覚えていない。だが、写真を撮った人の顔はだいたい覚えている。前回の訪島で「刺身どんぶり」と日本語でいってくれた人がたまたまこの店から出てきた。この写真を取った後すぐに下りていって、私はあなたのことを覚えているが、あなたは私のことを覚えているか、とあのメモを見せると、写真を撮ってくれた人だろ、覚えているよ、という身振りを示してくれた。ああ、皆さん覚えてくれているのだと嬉しかった。あの店はここだったのだと確認できた。



도동은 좁은 취락이지만 지난번에 갔던 가게가 어디에 있었는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진을 찍은 사람의 얼굴은 대체로 기억하고 있다. 지난 번 방도에서 '사시미돈부리'이라고 일본어로 말해준 사람이 우연히 이 가게에서 나왔다. 이 사진을 찍은 후 바로 내려가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만, 당신은 나를 기억하느냐고 저 메모를 보여주자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잖아, 기억해, 라는 몸짓을 보여주었다. 아, 다들 기억해주는 거라고 기뻐다. 그 가게는 여기였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

Dodong is a small village, but I hardly remember where the restaurant I went last time was. But I remember most of the faces I had taken photos. On my last visit, a man who said "Sashimi Donburi" in Japanese happened to come out of this restaurant. As soon as I took this picture, I went down, and I showed the memo that says I remember you, you remember me? Then, he showed me the gesture that you were the person who took the picture, I remember you. Oh, I was happy that everyone remembers. I was able to confirm that that store was here.

港に戻るとそこにはフェリーを迎える情景があった。岸壁にはフェリーに積み込む荷物を満載したトラックが列をなしていた。そして観光客を迎えるバスが港広場に集結していた。3月はまだシーズン前だが鬱陵島は夏を迎える準備を着々と進めていた。

항구로 돌아오니 그곳에는 페리를 맞이하는 정경이 있었다. 암벽에는 페리에 싣는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줄지어 있었다. 그리고 관광객을 맞이하는 버스가 항구 광장에 집결해 있었다. 3월은 아직 시즌 전이지만 울릉도는 여름을 맞을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When I returned to the harbor, there was a scene of welcoming the ferry.

The quay was lined with trucks loaded with cargo to load the ferry. and buses to welcome tourists gathered in the harbor square. Although March is still before the season, Ulleungdo has been steadily preparing for the summer.



去年の6月に来た時と比べると3月はやはり客は少ない。市場の前では干物を作っていた。何かと聞くと「イーメンス」と教えてくれた。イーメンスが何か確認していない。

작년 6 월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3 월은 역시 손님이 적다. 시장 앞에서는 건어물을 만들고 있었다. 뭐냐고 물었더니 '이멘스'라고 알려줬다. 이멘스가 뭔지 확인하지 않았어.



Compared to when I came here last June, there are still fewer customers in March. She was making dried fish in front of the market. When I asked her what it was, she told me, "Eamens." I didn't confirm what Eamens is.

道洞発 15 時 30 分。フェリーの改札を待ち、フェリーにおとなしく乗って浦項まで 3 時間半辛抱した。今回は「優等席」を選んだが、かなり席が空いていた。こんなことなら、もっとやすい一般席を購入し、船が出た後優等席の空き席に移動すればよかったと思う。日本の特急列車のように検札に来るわけでもなし。

도동발 15 시 30 분. 페리 개찰를 기다리고 페리를 얇전히 타고 포항까지 3 시간 반을 참았다. 이번엔 우등석을 골랐지만 제법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이럴 바에야 좀 더 싼 일반석을 구입해 배가 나간 뒤 우등석 빈 자리로 이동하면 좋았을 것 같다. 일본의 특급열차처럼 검표하러 오는 것도 아니다.

The ferry leaves Dodong at 15:30. I waited for the ticket gate open and quietly took the ferry to Pohang for three and a half hours. This time, I chose the "honor seat," but there were quite a few seats available. If this is the case, I think I should have bought a more convenient general seat and moved to an empty seat in the honor seat after the ship left. They don't come to check tickets like Japanese limited express trains.

今回も浦項から釜山まで帰った。フェリーを下りてタクシーを探していたら、男性から声をかけられた。バスターミナルに行く客を探していたようだ。すぐにその男の車に乗ったのだが、すでに先客が 4 人いて私が 5 人目だった。私で満員となり車は出た。以前も書いたが、運賃は割り勘ではなく、みんな

同じ通常料金を払った。乗り合いタクシーは乗客にとってはメリットがない。日本人の私はこれが悔しい。

이번에도 포항에서 부산까지 돌아왔다. 페리를 내려 택시를 찾고 있었는데, 남성이 말을 걸었다. 버스터미널로 가는 손님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 바로 그 남자의 차에 탔는데 이미 선객이 4 명 있고 내가 5 명째였다. 나로 만원이 되어 차는 나왔다. 이전에도 썼지만 운임은 더치페이가 아니라 모두 같은 통상요금을 냈다. 합승 택시는 승객에게 있어서는 메리트가 없다. 일본인인 나는 이것이 분하다.

I went back from Pohang to Busan this time as well. I was going down the ferry and looking for a taxi, then a man approached me. I think he was looking for a customer to go to the bus terminal. I got into his car right away, but I was the fifth one with four previous customers. Once the car was full, we departed the ferry terminal. As I wrote before, the fare was not split, but everyone paid the same regular fare. A shared taxi is not beneficial to passengers. As a Japanese, I am frustrated by this.

浦項 (バス) ⇒ 老圃 (地下鉄) ⇒ 釜山は特に思い出すことがない。ホテルは韓成モテル、新しい名前は Business Hotel Busan Station. 前に見た時は工事中だったが、模様替えをし、名前が変わったが何があったのだろうか。夜の 9 時半くらいにチェックインしたが、見知らぬ女性が受付にいた。建物はあまり変わった感じではなかったが、廊下の見通しがよくなったような気がする。以前は自分の部屋以外にどれくらいの部屋があるのか無いのか見当がつかないような建物の構造だった。明日は光州へ行ってみようと計画している。

포항(버스) ⇒ 노포(지하철) ⇒ 부산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 호텔은 한성모텔, 새 이름은 Business Hotel Busan Station. 전에 봤을 때는 공사중이었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밤 9 시 반쯤 체크인했는데 낯선 여성이 접수처에 있었다. 건물은 별로 달라진 느낌은 아니었지만 복도 전망이 좋아진 것 같다. 예전에는 내 방 외에 어느 정도의 방이 있는지 없는지 짐작할 수 없는 건물 구조였다. 내일은 광주에 가보려고 계획하고 있다.

Pohang (bus) ⇒ Nopo (subway) ⇒ Busan has nothing in particular to remember. The hotel is Hanseong Motel, and the new name is Business Hotel Busan Station. When I saw it before, it was under construction, but

its name was changed after remodeling. What happened? I checked in around 9:30 p.m., but there was a strange woman at the reception desk. The building didn't look very unusual, but I feel like the corridor's view has improved. It used to be a structure of a building where I couldn't guess, how many rooms there were other than my own. I'm planning to go to Gwangju tomorrow.



3月21日(火) 光州に行ってみた  
 3월 21일(화) 광주에 가봤다  
 March 21 (Tus) I went to Gwangju

今日は初めての光州行きだ。本題の鬱陵島とは異なるが、一連の旅の続きなので記録しておきたい。

오늘은 첫 광주행이다. 본론의 울릉도와는 다르지만, 일련의 여행의 연속이므로 기록해 두고 싶다.

Today is my first trip to Gwangju. Although it is different from Ulleungdo in the main subject, it is a continuation of a series of journeys, so I would like to record this.

光州は大きな都市だし、いつだったか光州事件というようなこともあったし、以前から一度行ってみたいと思っていた。さらに、昨年(2016年)6月に崔貞美さんのお宅で光州 KJ クラブの会長の具書昌さんと総務の全恵子さんに会っていたので一層その思いが強くなっていた。ただ、今回は時間的な余裕がなかったのでバスで行って帰るだけのお試しの旅を計画した。

광주는 큰 도시이고, 언젠가 광주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고, 예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게다가 작년(2016년) 6월에 최정미씨의 집에서 광주 KJ 클럽 회장 구서창씨와 총무 전해자씨를 만났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 생각이 강해져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버스로 가고 돌아가기만의 체험 여행을 계획했다.

Gwangju is a big city, and I don't remember when it was, there was a Gwangju incident, so I've always wanted to go there. Furthermore, in June 2016 at Choi's house, I met Mr. Koo Seo-chang, the chairman of the Gwangju KJ Club, and Ms. Jeon Hye-ja, the general manager, so that feeling was even stronger. However, this time I didn't have enough time, so I planned a trial trip just to go forth and back by bus.

沙上(ささん)の西部バスターミナルから光州行きの高速バスが出てい



ると聞いていたので、まずは沙上に向かった。乗車券の半券を見ると 10 時 40 分発の光州行きに乗っている。多分 8 時くらいにホテルを出たと思う。

사상 서부버스터미널에서 광주행 고속버스가 나와 있다고 들어서 먼저 사상으로 향했다. 승차권 반권을 보면 10 시 40 분에 출발하는 광주행을 타고 있다. 아마 8 시 정도에 호텔을 8 시에 호텔을 나왔다고 생각한다.

I heard that there is an express bus bound for Gwangju from the western bus terminal in Sasang, so I headed for Sasang first. Seeing the ticket stub, I took the bus leaving for Gwangju at 10:40. I think I left the hotel around 8 o'clock.

前ページの写真の左端の窓口が高速バスの切符売り場。そんなことが分らなかったなので右側の窓口で「光州」というと、あっち、というゼスチャー。掲示をよく見ると「고속버스 승차권 발매 Express Bus Ticket Counter」と書いてあった。右側は「승차권 발매 Intercity Bus Ticket Counter」とあった。よく見ると理解できるのだが、ぱっと見には区別がつかない。まだその程度のハングル能力だ。

앞 페이지 사진의 왼쪽 끝 창구가 고속버스 매표소.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오른쪽 창구에서 '광주'라고 하면 저쪽이라는 제스처. 게시물을 자세히 보면 '고속버스 승차권 발매 Express Bus Ticket Counter' 라고 적혀 있었다. 오른쪽은 '승차권 발매 Intercity Bus Ticket Counter' 라고 했다. 자세히 보면 이해가 되지만, 언뜻 보기에는 구별이 안 된다. 아직 그 정도의 한글 능력이다.

The ticket window for the expressway bus is located at the left window of the previous page photo. I didn't understand that, so saying "Gwangju" at the counter on the right, the officer gestured like it's that way. Looking closely at the notice, it says, "고속버스 승차권 발매 Express Bus Ticket Counter". On the right was "승차권 발매 Intercity Bus Ticket Counter". I can understand it if I look closely, but I can't tell the difference at a glance. I still am that level of Hangul ability.

ターミナルは大きいからいろいろな店があるが、日本の「ダイソ」(ダ



イソー)があった。店内に入ってみると所狭しと商品が積まれていた。

터미널은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게가 있지만, 일본의 「다이소」가 있었다. 가게 안에 들어가 보니 산더미 같이 상품이 쌓여 있었다.

The terminal is big, so there are many shops, but there was a Japanese "다이소" (Daiso). When I entered the store, I found many goods piled up.

ところで、長距離バスは、請求しなければ乗車券の半券を返してくれない。後で旅の記録を整理するのにこの半券がないと困るので、いつも運転手さんに半券をくれと頼む。また、半券だから長い方と短い方があるが、それが会社と乗客の控になると思う。しかし、そのどちらを回収するか運転手によって異なっている。多分乗車券をチェックするのが目的で、半券は回収後廃棄するだけなのであろう、どちらを回収してもあるいはしなくても構わないのだ。何か事件事故が起こったときに乗客情報がなくていいのだろうか。

그런데 장거리 버스는 청구하지 않으면 승차권 반권을 돌려주지 않는다. 나중에 여행 기록을 정리하는 데 이 반권이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항상 운전 기사에게 반권을 달라고 부탁한다. 또, 반권이기 때문에 긴 쪽과 짧은 쪽이 있지만, 그것이 회사와 승객의 사본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중 어느 쪽을 회수할지 운전자에 따라 다르다. 아마 승차권을 체크하는 것이 목적으로, 반권은 회수 후 폐기하는 것 뿐일 것이다, 어느 쪽을 회수해도 혹은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다. 무슨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승객 정보가 없어져도 되는 것일까.

By the way, long-distance buses don't return the ticket stub unless we claim it. I always ask the driver to give me a stub because I cannot sort out my travel records later if I have not it. Also, since it's a stub, there are longer and shorter ones, but I think that will be a copy for the company and the passengers. However, it depends on the driver which one to collect. Perhaps the purpose is to check the ticket, and the ticket is only to be discarded after collection. Whether or not they collect the stub seems arbitrary. Is it OK if they do not have passenger information when they have trouble?

途中の風景。釜山の近郊にはこのような農業用ハウスが沢山ある。



도중 풍경. 부산 근교에는 이런 농업용 하우스들이 많이 있다.

The scenery along the way. There are many agricultural houses like this near Busan.



光州まで 2 時間くらいと聞いていたが、3 時間以上かかった。途中でどこかのサービスエリアでトイレ停車があった。ここにどれくらい停車するのか、いつ発車するのか分からなかったので、斜め前の座席に座っていた青年にいつ頃発車するのか英語で聞いた。そしたら、日本語で聞いて下さいと日本語が返ってきた。どこに行っても驚くことはあるが、これにも驚いた。彼は韓国人だったが、連れの女性は日本人だった。彼女によると 10 分「くらい」停車すると思います、といった。旅先で日本語に触れると何だかほっとする。よく分からないから早々にバスに戻った。それからしばらくして大都市らしい光景が見えてきた。韓国は高層住居が多い。

광주까지 2 시간 정도로 듣고 있었는데 3 시간 넘게 걸렸다. 도중에 어딘가 휴게소에서 화장실 정차가 있었다. 여기에 얼마나 정차하는지, 언제 발차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대각선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청년에게 언제쯤 발차하는지 영어로 물었다. 그랬더니 “일본어로 물어보세요”라고 일본어가 돌아왔다. 어딜 가나 놀랄 일을 있지만 이것도 놀랐다. 그는 한국인이었지만 동행한 여성은 일본인이었다. 그녀에 따르면 10 분 정도 정차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여행지에서 일본어를 들으면 왠지 안심이 된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일찍 버스에 돌아왔다. 그때부터 얼마 후 대도시다운 광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은 고층 주거가 많다.

I heard that it was about two hours to Gwangju, but it took more than three hours. There was a toilet stop on the way in some service area. I didn't know how long it would stop here or when it would leave, so I asked a young man sitting diagonally in front of me when it would leave in English. Then he said me to ask in Japanese. Everywhere I go, I'm surprised, but I'm also surprised by this. He was Korean, but the woman with him was Japanese. According to her, the bus would stop for about 10 minutes. I feel relieved when I hear Japanese while traveling. I got back to the bus early because I wasn't sure. Then, after a while, a large city-like sight came into view. There are many high-rise houses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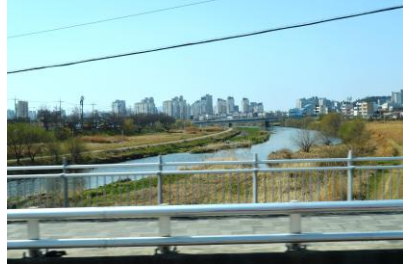
ここは既に光州だろうが、目的のバスターミナルに近づいたようだ。写真の建物は多分住宅。

이곳은 이미 광주일 텐데 목적인 버스터미널에 가까워진 것 같다. 사진 속 건물은 아마 주택일 것이다.

Here would be already Gwangju, it seems to be close to the aimed bus terminal. The building in the picture are probably apartment houses.

バスターミナルには14時少し前に着いた。結構時間がかかった。腹が減っていたのでまずは飯を食った。フードコートでビビンパを注文。どこに行ってもこれが一番いい。値段もさることながら、中身に当たり外れがない。食堂のお姉さんの写真を撮らせてもらって、帰りの乗車券を買い、バスに乗るまでの間すこしターミナルの写真を撮った。

버스터미널에는 14 시 조금 전에 도착했다. 꽤 시간이 걸렸다. 배가 고파서 우선은 밥을 먹었다. 푸드코트에서 비빔밥을 주문했다. 어디에 가도 이게 제일 좋다. 값도 그렇지만, 내용에 빗맞음이 없다. 식당 언니의 사진을 찍고, 돌아오는 승차권을 사고, 버스를 탈때까지 잠깐 터미널 사진을 찍었다.



I arrived at the bus terminal a little before two o'clock in the afternoon. It took quite a while. I was hungry, so I ate first. I ordered bibimbap at the food court. This is the best wherever I go. Not to mention the price, the contents are never hit or miss. After lunch I took a picture of woman workers in the food court, and next, bought a return ticket, and took a picture of the terminal for a while until I got on the bus.



バスターミナル全貌。この建物の向こうにバスの乗り場がある。手前は広場になっていて、何か催し物があるのかステージが設置され、椅子が並べられていた。

버스 터미널 전모. 이 건물 너머에 버스 승강장이 있다. 앞쪽은 광장으로 되어 있고, 무슨 행사가 있는지 스테이지가 설치되어 의자가 진열되어 있었다.

A full view of the bus terminal. There is a bus stop beyond this building. There was a square in front of the terminal, and was there a stage. If there was any event, chairs were arranged.



帰りのバスの発車時間は 15 時。帰りは少し心に余裕が出てきた。行きよりは少し多めに写真を撮った。

돌아오는 버스의 출발 시간은 15시. 돌아오는 길은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가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사진을 찍었다.

The bus back to Busan depart at 15:00. I felt a little relaxed on my way Busan. I took a little more picture than the outward trip.



太陽光発電パネル。土砂崩れでもあったのだろうか、パネルがゆがんでいる。韓国の電力事情は知らないが、原発に頼らない政策を打ち出してほしいものだ。アメリカ、ソ連、日本の原発災害事例を見れば明らかなように、災害現場の復旧はほぼ永久的に不可能だ。その上、生活の場を奪われた人々に対して、許可した行政も電力会社も今の技術水準では責任が「とれない」のだ。多少の金銭的な「補償」はあっても、奪われた時間と古里はもう戻ってこない。古里を奪われた人々の辛さは察するに余りある。これは金銭で解決できるものではない。



태양광 발전 패널. 산사태라도 있었던 것일까, 패널이 뒤틀려 있다. 한국의 전력 사정은 모르지만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정책을 내놓았으면 한다. 미국, 소련, 일본의 재난 사례를 보면 분명하듯이 재난 현장의 복구는 거의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생활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지금의 기술수준으로는 허가한 행정도 전력회사도 책임이 “질 수 없”는 것이다. 약간의 금전적 보상은 있어도 빼앗긴 시간과 고향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고향을 빼앗긴 사람들의 괴로움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것은 금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Solar power generation panel. Maybe it was a landslide, but the panels were distorted. I don't know about Korea's electricity situation, but I hope it will come up with a policy that does not rely on nuclear power plants. As can be seen in disaster cases in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and Japan, it is almost permanently impossible to restore the disaster site. Moreover, at the current level of technology the authorized administration and power companies cannot take responsibility for those who have been deprived of their living space. Although there is some financial "compensation," the lost time and the old village will no longer come back. It is hard to imagine the pain of those who have been deprived of their hometowns. This cannot be solved by money.

犠牲を国民に押しつけ、日本政府は原発推進政策を維持している。原発のような技術が未確立な部分の多いものは一旦災害が発生すれば、その時点から新たな技術開発が必要となる。要するに推進する行政も電力会社も「責任を

とれる技術がない」のだ。「規制基準」に合格したからといっても、それは安全を保障するものではない。原発に頼らない新たな電源開発を望むばかりだ。

희생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일본 정부는 원전 추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원전과 같은 기술이 미확립 부분이 많은 것은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와 된다. 요컨대 추진하는 행정도 전력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술이 없다.' '규제기준'에 합격했다고 해서도 그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 발전에 의지하지 않는 새로운 전원 개발을 바랄 뿐이다.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s to promote nuclear power while pushing the sacrifices onto the people. When a disaster occurs with a technology that still has many unestablished aspects, new technological developments become necessary from that point onward. In other words, neither the administration nor the power companies have the 'technology to take responsibility.' Passing the 'regulatory standards' does not guarantee safety. I can only hope for the development of new power sources that do not rely on nuclear energy.

トイレ休憩所に来た。この写真は 16 時 34 分に撮影。光州を出てちょうど 1 時間半だ。屋根の看板には次のように書かれていた。

화장실 휴게소 왔어. 이 사진은 16 시 34 분에 촬영. 광주를 떠난 지 딱 1 시간 반이다. 지붕의 간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I came to the bathroom rest area. This photo was taken at 16:34. It's been exactly an hour and a half since I left Gwangju. The sign on the roof read.

국민평가 우수휴게소

(國民の評価優秀休憩所 A resting place with excellent public evaluation)

사천휴게소 (泗川休憩所 Sachon Rest Area)



ここは泗川という所らしい。過去に何回も長距離バスに乗ったが、どのルートを通ったのか全然知らない。また、バスの名前は금호고속と書かれている。これはバス会社の名前ようだ。

여기는 사천이라는 곳인 것 같다. 과거에 몇 번이나 장거리 버스를 탔지만, 어떤 루트를 통과했는지 전혀 모르다. 또 버스의 이름은 금호고속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은 버스 회사의 이름인 것 같다.

This seems to be a place called Sacheon. I've taken a long-distance bus many times in the past, but I don't know which route I took at all. Also, the name of the bus is written as 금호고속. This seems to be the name of the bus company.

沙上のバスターミナルに着いたのは18時10分くらい。バスは15時発だったので、光州、沙上間は3時間と10分くらいだ。これで光州行きの方法はだいたい分かった。この次行く時はもう少し綿密な計画を立てていきたい。片道3時間以上かかるので最低一泊二日の旅を目指したい。

사상의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18 시 10 분 정도. 버스는 15 시 출발이었으므로 광주, 사상 간은 3 시간과 10 분 정도이다. 이로써 광주행 방법은 대충 알 수 있었다. 이 다음에 갈 때는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싶다. 편도 3 시간 이상 걸리므로 최소 1 박 2 일 여행을 목표로 하고 싶다.

I arrived at Sasang bus terminal at about 18:10. The bus left at 15:00, so it takes about 3 hours and 10 minutes between Gwangju and Sasang. Now I know how to get to Gwangju. The next time I go, I want to make a more detailed plan. It takes more than three hours one-way, so I want to aim for a trip for at least one night and two days.

釜山について久しぶりに地下街を歩いてみた。中央駅からチャガルチまで往復した。チャガルチに日本語ボランティアの人がいたが、写真は断られた。崔貞美さんはまだ来ているという。彼女への手紙を言付けて引き返した。地



下街では新しい出会いはなかった。釜山駅まで戻り、顔なじみとなった食堂で夕食。顔なじみになったが店の名前は知らない。

부산에 도착해서 오랜만에 지하상가를 걸어왔다. 중앙역에서 자갈치까지 왕복했다. 자갈치에 일본어 자원봉사자가 있었지만 사진은 사절 당했다. 최정미 씨는 아직 와 있다고 한다. 그녀에게 편지를 전갈해서 되돌아갔다. 지하상가에서는 새로운 만남은 없었다. 부산역까지 돌아와서 낮익은 식당에서 저녁식사. 낮이 익었지만 가게 이름은 모른다.

I reached Busan and walked through the underground shopping district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I made a round walk from Chuo Station to Chagalchi. There was a Japanese volunteer in Chagalchi, but taking a photo was refused. It is said that Ms. Choi Jeong-mi is still here. I wrote her a letter and ask the volunteer to hand it, then turned back. There were no new encounters in the underground shopping district. I went back to Busan Station and had dinner at the restaurant I became familiar with. I've become familiar, but I don't know the name of the restaurant.



写真を見るとまたビビンパを食べたようだ。店によって小皿の内容が異なる。これも楽しみの一つだ。私はだいたい完食するが、完食するともう一皿?というように店の人が聞いてくることがある。た

だだ。これは嬉しいが、余り追加はしない。ダイコンキムチは追加する。汁物がついているが、味噌汁が出ることもある。この店ではないが、韓国の味噌汁は、というか、私が食べた大衆食堂の味噌汁は煮えたぎっていて、いりこ出汁がききすぎているのが多い。これは私は余り好きではない。

사진을 보니 또 비빔밥을 먹은 것 같아. 가게마다 작은 접시의 내용이 다르다. 이것도 즐거움 중 하나다. 나는 대체로 다 먹지만 다 먹으면 한 접시 더? 라는 식으로 가게 사람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공짜이다. 이건 기쁘지만, 별로 추가하지는 않는다. 무김치는 추가한다. 국물이 나와있는데, 된장국이 나오기도 한다. 이 집은 아니지만, 한국의 된장국은, 라고 할까, 내가 먹은 대중식당의 된장국은 펄펄 끓고 있고, 멸치 육수가 너무 잘 우러나오는 것이 많다. 이것은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Judging from the picture, it looks like I had bibimbap again. The contents of small plates vary from store to store. This is one of the things of pleasure. I usually clean my plate, but when I clean my plate, sometimes the staff ask me, "One more plate?" It's free. I'm happy about this, but I don't add much. In the case of daikon kimchi, I add. It comes with soup in the picture, but sometimes miso soup comes out. It's not this restaurant, but Korean miso soup, to be more accurate, the miso soup in the popular restaurant I ate, was boiling and often the iriko fish soup is too strong. I don't really like it.

私の食事中に従業員の賄い食が始まった。夜の 8 時過ぎ。椅子の上に立って写真を撮った。左上の女性がオーナー、左下の女性が料理人。この人が私に親しく話しかけてくれる。でも言葉が通じないから、だいたい声かけだけで終わり。右二人はたぶん従業員。



내 식사 중에 종업원의 식사가 시작되었다. 저녁 8 시가 넘었을 때. 의자 위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왼쪽 위 여자가 주인, 왼쪽 아래 여자가 요리사. 이 사람이 나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준다. 그래도 말이 안통하니까, 대체로 말 걸기만 하면 끝. 오른쪽 두 명은 아마 종업원일 것이다.

During my meal, the employee's meal started. It's past eight o'clock in the evening. I took a picture standing on a chair. The upper left woman is the owner and the lower left woman is the cook. This person talks to me friendly. But we can't understand the language each other, so we usually only talk shortly. The two on the right are probably employees.

この食堂の奥に「古宮参鶏湯」という店がある。一度その参鶏湯を食べたことがあるが、私には贅沢品だった。このオーナー女性はこの参鶏湯の店のオーナーでもあったと思う。

이 식당 안쪽에 고궁 삼계탕이라는 가게가 있다. 한 번 그 삼계탕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내게는 사치품이었다. 이 주인 여성은 이 삼계탕 가게의 주인이기도 했다고 생각한다.

At the back of this restaurant is a restaurant called "Old palace Samgyetang." I had that Samgyetang once and it was a luxury to me. I think this owner woman was also the owner of this Samgyetang restaurant.

客が来た。顔なじみの人らしい。この人にも写真を撮ってあげた。すると、店の人に海苔を袋にいっぱい詰めさせ、私に持って帰れという。もちろんいらないというのだが、まあ、とにかく韓国の人の律儀な面をしばしば経験する。

손님이 왔다. 낯익은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한테도 사진 찍어줬다. 그러자 가게 사람에게 김을 자루에 가득 담아 시켜서 내에게 가져가라고 한다. 물론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 뭐 어쨌든 한국 사람의 성실한 면을 자주 경험한다.



A visitor has come. He seems to be a familiar face. I took a picture of this person, too. Then, he asked the shop person to fill a bag with seaweed for me to take. Of course, I say I don't need it, but anyway, I often experience the polite side of the Korean people.

この食堂で夕食をしながら写真を撮って時間を過ごし、ホテルに帰った。ホテルはこの食堂の向かい側だ。だからこのホテルと食堂は私にとっては一対の物だ。ホテルのフロントには一人の男性がいた。前のオーナーの息子の「教授」に似ていたので「キョース?」と尋ねた。無反応だったので違ったようだ。名刺をもらってオーナーが変わったことを知った。それでホテルの名前が変わり模様替えもしたのだ。そして一人の女性。奥さんかと思ったらワーカーと



のこと。この人は昨夜フロントにいた人だ。オーナーは任仁鎬임인호さん。前のオーナーの息子さんもこんな感じの人だった。

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사진을 찍고 시간을 보내다가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은 이 식당 맞은편이다. 그래서 이 호텔과 식당은 나에게서는 하나의 세트처럼 느껴진다. 호텔 프런트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전 주인 아들의 '교수'를 닮아서 "교스?"라고 물었다. 무반응이라 달랐던 것 같다. 명함을 받고 주인이 바뀐 것을 알았다. 그래서 호텔 이름이 바뀌고 리모델링도 한 것이다. 그리고 한 여자. 부인인가 했더니 '워커'라고 한다. 이 사람은 어젯밤 프런트에 있던 사람이다. 주인은 任仁鎬 임인호 씨. 전 주인의 아들도 이런 느낌의 사람이었다.

Having dinner at this restaurant I took a picture, then went back to the hotel. The hotel is across from this restaurant. So this hotel and restaurant are a pair for me. There was a man at the front desk of the hotel. He looked like the former owner's son, "Kyosu (Professor)". So I asked him "Kyosu?" He didn't respond, so I figured it wasn't 'Kyosu'. I got a business card and found out that the owner had changed. That's why the name of the hotel changed and it was rearranged. And there was a woman, I think she's a wife, but he said she's a worker. This person was at the front desk last night. The owner is Mr. Lim In-ho. The son of the former owner was also like this.



3 月 22 日 (水) 帰国 : 大邱から福岡へ  
 3 월 22 일(수) 귀국: 대구에서 후쿠오카로  
 March 22 (Wed) Return, From Daegu to Fukuoka

帰国日。手元に残ったバス乗車券を見ると釜山発 8 時 30 分。これからするとホテルを 7 時前には出たと思う。バスターミナルは沙上ではなく老圃、地下鉄釜山駅から直通で終点だ。バスの運転手は半券を切らずに全部私にくれた。

귀국일. 손에 남아 있는 버스 승차권을 보면 부산 출발 8 시 30 분. 이것으로 보아 호텔에서 7 시 전에는 나왔을 거야. 버스 터미널은 사상이 아닌 노포, 지하철 부산역에서 직통으로 종점이다. 버스 기사는 반권을 끊지 않고 전부 나에게 주었다.

Day of return. Looking at the remaining bus ticket, I started Busan at 8:30. From this, I think I left the hotel before seven o'clock. The bus terminal is not Sasang, but Nopo. Nopo is the last stop and the subway goes through to Nopo from Busan. The bus driver gave me whole ticket without cutting out the stub.

この乗車券を見て「謎」が解けた。左側の半券には승차권 (회수용) [乗車券 (回収用)]、右側には승차권 (승객용) [乗車券 (乗客用)]と印刷されている。この時も私は乗車券をくれというとそのままくれた。運転手(会社)は、客が乗車券を購入しているかどうかだけが問題なのだ。老婆心ながら思う。発券窓口では何人の客が東大邱行きの切符を購入したかは分かる。しかし、半券を回収しないとその内何人が実際に東大邱行きのバスに乗ったかどうかは分からない。これって、管理上問題は無いのかしら。行方不明者が出た時など捜索の手がかりが少なくなる。

이 승차권을 보고 수수께끼가 풀렸다. 왼쪽 반권에는 ‘승차권(회수용)’, 오른쪽에는 ‘승차권(승객용)’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이때도 나는 승차권을 달라고 하면 그냥 줬다. 운전자(회사)는 고객의 승차권 구입 여부만 문제이다. 노파심이지만 생각하다. 발권 창구에서는 몇 명의 손님이 동대구행 표를 구입했는지는 알 수 있다. 그러나 반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그 중 몇 명이 실제로 동대구행 버스를

승차권 (회수용) No. 13869201			승차권 (승객용) No. 13869201		
부산 101.5 동대구 고속			부산 101.5 동대구 고속		
요금 6,700 원			요금 6,700 원		
출발일 Date of departure	출발시간 Time	좌석 Seat NO.	출발일 Date of departure	출발시간 Time	좌석 Seat NO.
2017.03.22	08:30	17	03.22 수	08:30	17
승인 6,700 20170322-700-03-0105 70080117			승인번호 023077818 승인 6,700 구매자 010****1234		
(주)천일고속 [08:16]			가맹점사업자번호:1148201186		
출발터미널: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요금 (소독공제)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유효기간:당일차정차에 한함 [08:16] 20170322-700-03-0105		
구매자010****1234 007323			고속회사:(주)천일고속 604-81-00854		
			현금영수증문역 126-2		

랐는지는 알 수 없다. 이게 관리상 문제는 없는 걸까? 실종자가 나왔을 때 등 수색의 단서가 적어진다.

Seeing this ticket I could solve the "mystery." On the left-hand stub, 승차권 (회수용) [Ticket (for collection)] and 승차권 (승객용) [Ticket (for passengers)] are printed on the right-hand side. Also at this time, I asked for a ticket, and the driver gave it to me as it was. The only problem with drivers (companies) is whether customers have purchased tickets. Though it may not be necessary, but I think. At the ticket counter, they can know how many customers bought tickets to Dongdaegu. However, they cannot know how many of them actually took the bus to Dongdaegu without collecting the stubs. I wonder if there is any management problem with this. If someone goes missing, there may be fewer clues for a search, such as when a missing person occurs.

釜山－大邱の高速バス路線の距離は 144km くらい。その料金が 6700W、これは日本円で 670 円くらいだから日本のバス料金に比べるとかなりやすい。

부산-대구 고속버스 노선의 거리는 144km 정도. 그 요금이 6700W, 이것은 엔화로 670 엔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의 버스 요금에 비하면 꽤 싸다.

The distance between Busan and Daegu is about 144km. The fare is 6,700W, which is about 670 yen in Japanese yen, so it is cheaper than the bus fare in Japan.

東大邱には 10 時過ぎに着いたと思う。大邱空港までタクシーで行った。5 分もかかったのだろうか、もっと離れていると思ったので驚いた。実は、この



バスターミナルと空港との距離感がなかった。浦項に行く時、空港からタクシーで一万円以上かけて行った。馬鹿なことをしたと思う。

동대구에는 10 시 넘어서 도착한 것 같아. 대구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 5 분이나 걸렸을까, 더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랐다. 사실이 버스터미널과 공항의 거리감이 없었다. 포항에 갈 때 공항에서 택시로 일만엔 이상을 들여 갔다.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해.

I arrived at Dongdaegu bus terminal after about 10 o'clock. I took a taxi to Daegu Airport. Would it have taken 5 minutes? I was surprised because the distance was too short. I thought it was farther away. Actually, there was no sense of distance. When I went to Pohang, I spent more than 10,000 yen by taxi from the airport. I think I did something stupid.

朝ごはんを食べていなかったなので空港で食べた。二階に食堂があったが、どんな食堂があるかうろうろ探していると、どこかの会社の女性事務員と出会い、こちらには何もありませんよ、食堂はそこだけ、という。仕方ないのでその食堂に入った。ここで食べたのがまたビビン바。伝票を見ると 버섯불고기비빔밥 (キノコ焼肉ビビン바)、9000W。時間は 10 時 20 分くらい。飛行機は 14 時だ。まだだいぶ時間的な余裕があった。でも、写真がないので余りうろうろしていないようだ。

아침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공항에서 먹었다. 2 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어떤 식당이 있는지 어슬렁어슬렁 찾다가 어느 회사의 여성 사무원과 만나,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식당은 거기 뿐 이라고 한다. 어쩔 수 없어서 그 식당에 들어갔다. 여기서 먹은 게 또 비빔밥. 전표를 보면 버섯 불고기 비빔밥, 9000W. 시간은 10 시 20 분 정도. 비행기는 14 시이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었다. 근데 사진이 없어서 별로 안 서성거리는 것 같아.

I had not eaten breakfast, so I ate at the airport. There was a restaurant upstairs, but when I was wandering around to find out what kind of restaurant there was, I met a female office worker of some company. She said there was nothing here, and that's the only restaurant. I had no choice, so I went into the restaurant. Here



again I ate bibimbap. Looking at the slip, 버섯 불고기 비빔밥 (Mushroom Yakiniku Bibimbap), 9000W. The time is around 10:20. The plane leaves at two o'clock in the afternoon. I still had a lot of time to spare. But I don't think I'm wandering around much because I don't have any pictures.

空港待合室。どこの空港もだいたいこんな感じだろう。飛行機へ荷物の積み込みが始まった。誰かがコックピットの窓ガラスを拭き始めた。あそこの窓はこんな風に開くのだ。初めて見た。それにしても正面辺りにまでは手が届かない感じだから、そこはどうするのだろうか。汚れたまま飛行機は飛ぶのかしら。

공항 대합실. 어느 공항이나 대체로 이런 느낌이겠지. 비행기에 짐을 싣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조종석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다. 저기 창문은 이렇게 열리는 거야. 처음 봐. 그렇다고 해도 정면 근처까지는 손이 닿지 않는 느낌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더러워진 채로 비행기는 날까?

Airport waiting room. The airport would look like this everywhere. The loading of goods has begun on the plane. Someone started wiping the cockpit window. That's how the window over there opens. It's my first time seeing it. Even so, He can't reach the front, so what should he do there? I wonder if perhaps the plane flies even with dirty windows.

これ以後の写真はないので、思い出もここで終わりとする。

이후의 사진은 없으니 추억도 여기서 끝이다.

There are no further photos, so I'll end my memories here.







## あとがき

ポピー植ゆ 世界は戦禍 重ねたり

2025 年 6 月に新しく韓国大統領に選任された李在明大統領は、日本に対しては非常に批判的な人のようだ。その幾分かは日本による朝鮮半島の植民地支配の反映だと思う。反日感情と日本に対する批判は異なると思うが、私の数次にわたる韓国旅行の最中に反日感情に触れたことがない。このような旅日記ができたのも、優しい韓国の人々と接することができたおかげだと思う。

かつての日本がそうであったように、今や世界では強き国が弱き国を理不尽に支配しようとしている。国防費の増額志向がその端的な表れである。私は日本国憲法 9 条の擁護派であるので、このような世界の動きを非常に憂えている。しかし、このような大国の動き、あるいは大国に限らず「力」で自由を抑えようとする動きはいずれ破綻する。なぜなら、「エントロピー増大の法則」に反しているからだ。

たかが旅日記でたいそうなことを言ってしまった。世界平和と各国民の友好を願うばかりだ。

たとえ言葉が通じなくても、表情は通じる。

たとえ歴史が絡んでも、個人の気持ちは正直である。

それを信じて、私はまた旅に出たいと思う。

2025 年 7 月 19 日

天 野 松 男

## 꼬리말

양귀비 심다 세계 전화 거둬 있다

2025 년 6 월 새로 한국 대통령에 선임된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사람인 것 같다. 그 중 일부는 일본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 지배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반일 감정과 일본에 대한 비판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수차에 걸친 한국 여행 중에 반일 감정을 마주친 적이 없다. 이런 여행 일기가 생긴 것도 착한 한국 사람들과 접할 수 있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세계에서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불합리하게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국방비 증액 지향이 그 단적인 표현이다. 나는 일본 헌법 9 조의 옹호파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의 움직임에 매우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국의 움직임, 혹은 대국에 한정하지 않고 「힘」으로 자유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은 언젠가 파탄된다. 왜냐하면, 「엔트로피 증대의 법칙」에 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작 여행일기에서 대단한 말을 하고 말았다. 세계 평화와 각 국민의 우호를 바랄 뿐이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표정은 통한다.  
역사가 얽혀 있어도 개인의 감정은 솔직하다.  
그것을 믿기에 나는 다시 여행을 떠나고 싶다.

2025 년 7 월 19 일  
아마노 마쥬오

## Afterword

planted poppies / the scars of war still anew / layer upon layer

President Lee Jae-myung, who was newly elected president of Korea in June 2025, seems to be a very critical person to Japan. I think some of this reflects Japan's colonial rule on the Korean Peninsula. I think anti-Japanese sentiment and criticism of Japan are different, but I have never encountered anti-Japanese sentiment during my several trips to Korea. I think the reason why I was able to write such a travel diary is because I was able to interact with kind Korean people.

Like Japan in the past, strong countries in the world are now trying to control weak countries unreasonably. This is a clear indication of the desire to increase national defense spending. Since I am an advocate of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I am very worried about this kind of global movement. However, such a move by a great power, or a move to curb freedom with "power" not only by a great power, will eventually fail, because it violates the "law of increasing entropy."

I just said a lot of things in my travel diary. I only wish for world peace and friendship among the people.

Even if words don't reach across, expressions do.

Even when history is entangled, personal feelings remain sincere.

Believing in that, I wish to set out on another journey.

July 19, 2025  
Matsuo Amano







鬱陵島に行ってきた  
울릉도가 불렀다  
Ulleungdo Called to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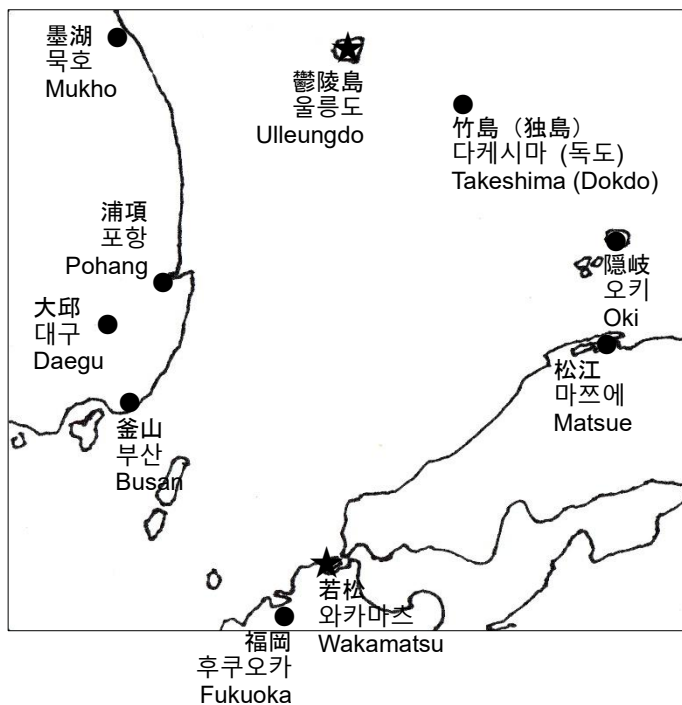
---

発 行 2025 年 7 月 21 日  
著 者 天野松男  
発行者 天野松男  
〒808-0103  
北九州市若松区二島 4-3-24

---

©Amano Matsuo  
ISBN978-4-9906943-2-6 C0026 ¥1500E





鬱陵島に行ってきた 울릉도가 불렀다 Ulleungdo Called to me

天野松男 아마노 마쓰오 Matsuo Amano

ISBN978-4-9906943-2-6 C0026 ¥1500E